

정책자료
2025-03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여성고용

고영우 · 신영민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자료
2025-03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여성고용

고영우 · 신영민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고영우) 1
제2장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범위	(고영우) 3
제1절 자료의 구성	3
제2절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	4
1. 수도권	7
2. 강원제주권	11
3. 충청권	13
4. 호남권	17
5. 대구경북권	20
6. 동남권	24
제3절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	27
1.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27
2.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30
제4절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고용구조	33
제5절 소 결	42
제3장 여성 지역노동시장과 통근 특성의 변화	(신영민) 64
제1절 분석의 개요	64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66
제3절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방향의 변화	69

1.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변화	69
2. 통근방향 기초통계	73
3.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방향 변화 분석	78
제4절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시간의 변화	97
1. 지역노동시장권 통근시간 변화	97
2. 단일노동시장 통근시간 변화	104
제5절 소 결	110
제4장 결 론	(고영우 · 신영민) 116
참고문헌	121

표 목 차

〈표 2- 1〉 연도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 모수 조정	4
〈표 2- 2〉 연도별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5
〈표 2- 3〉 연도별·초광역권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5
〈표 2- 4〉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8개)	7
〈표 2- 5〉 강원제주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0개)	11
〈표 2- 6〉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8개)	14
〈표 2- 7〉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38개)	17
〈표 2- 8〉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3개)	21
〈표 2- 9〉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7개)	24
〈표 2-10〉 연령대별·초광역권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	28
〈표 2-11〉 학력별·초광역권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	31
〈표 2-12〉 수도권 성별 고용률	34
〈표 2-13〉 강원제주권 성별 고용률	35
〈표 2-14〉 충청권 성별 고용률	37
〈표 2-15〉 호남권 성별 고용률	38
〈표 2-16〉 대구경북권 성별 고용률	40
〈표 2-17〉 동남권 성별 고용률	41
〈표 3- 1〉 전체 및 여성 지역노동시장 수 변화(2010년 및 2020년)	65
〈표 3- 2〉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변화(2010년 및 2020년, 변동된 경우) ..	70
〈표 3- 3〉 연도별 역내 통근자와 역외 통근자의 비율, 전체와 여성 비교 ..	74
〈표 3- 4〉 연도별 여성 역외 통근자가 많은 지역(상위 20개 지역)	76
〈표 3- 5〉 연도별 역내 통근자가 적은 지역(하위 20개 지역)	77
〈표 3- 6〉 수도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 ..	79
〈표 3- 7〉 충청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 ..	85

〈표 3- 8〉 호남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	88
〈표 3- 9〉 대구·경북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	90
〈표 3-10〉 동남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	94
〈표 3-11〉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99
〈표 3-12〉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100
〈표 3-13〉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101
〈표 3-14〉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102
〈표 3-15〉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103

그림목차

[그림 2- 1]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	9
[그림 2- 2]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10
[그림 2- 3] 강원제주권 지역노동시장권	12
[그림 2- 4] 강원제주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13
[그림 2- 5] 충청권 지역노동시장권	15
[그림 2- 6]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16
[그림 2- 7] 호남권 지역노동시장권	18
[그림 2- 8]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19
[그림 2- 9] 대구경북권 지역노동시장권	22
[그림 2-10]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23
[그림 2-11] 동남권 지역노동시장권	25
[그림 2-12]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26
[그림 2-13]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30
[그림 2-14]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32
[그림 3- 1] 지역노동시장권 통근특성 분석 과정	67
[그림 3- 2] 2010년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83
[그림 3- 3] 2020년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83
[그림 3- 4] 2010년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86
[그림 3- 5] 2020년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86
[그림 3- 6] 2010년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89
[그림 3- 7] 2020년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89
[그림 3- 8] 2010년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92

[그림 3- 9] 2020년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92
[그림 3-10] 2010년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95
[그림 3-11] 2020년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96
[그림 3-12] 전국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2010, 2020년)	98
[그림 3-13] 수도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105
[그림 3-14] 강원·제주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106
[그림 3-15] 충청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107
[그림 3-16] 호남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108
[그림 3-17] 대구·경북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109
[그림 3-18] 동남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110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노동시장권별 여성고용의 특성 및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순히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식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연령계층 및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을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여성고용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그 변화 및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근권역의 차이에 따라 지자체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는지, 지역노동시장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특성 및 변화

제2장에서는 ‘수정된 콤즈 방법론’(Coombes and Bond, 2008)을 활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164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138개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윤윤규 외(2012)에서 도출한 2010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75개)보다는 적게 도출된 것인 반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2015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52개)보다는 많게 설정된 결과이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12개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된 것에 비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훨씬 좁게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강원제주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0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이 도출되었다. 권역 내 20개 시군구 지역 모두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천음성권 및 괴산증평권 등 국지적으로 결합 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호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호남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3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대구광역시와 인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5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후, 2020년에는 이것이 분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동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7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동남권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변화가 상당히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집단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비교

제2장에서는 여성 취업자를 연령대 및 학력별로 구분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이를 비교하여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및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였는데, 20~3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44개가 형성되었

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보다 적은 개수인바, 청년층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40~5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68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수이다. 다만, 초광역권역별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로 구분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였다. 고졸이하 학력계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총 191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 지역노동시장권보다 상당히 많은 개수인바, 고졸이하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좁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총 128개로 분석됨에 따라,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취업자들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통근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3.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의 통근 특성

제3장에서는 2010년과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근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근방향 변화, 그리고 통근방향의 영향을 받은 통근시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남성을 포함한 고영우 외(2023)의 분석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을 포함한 전체 지역노동시장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성 지역노동시장만의 특징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은 직주분리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가격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는 지역노동시장권과 통근방향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점, 통근 비율 감소로 산업 정체 내지 직주근접화가 관찰되는 점, 농업이 주 산업인 군 지역보다는 대도시 및 광역시, 도시 인접 지역의 통근시간 증가가 군 지역보다 뚜렷하게 크다는 점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유사한 점이다.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가 좁으며, 이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이 세분화되고 단일 노동시장이 많은 점, 역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이 돌봄 내지 가사 분담을 위해 주거지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광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강남 3구, 특히 강남구로의 일자리 집중이 남성보다 더 심화되었으며, 이는 주 통근방향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경기도권 여성 취업자의 통근시간은 서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김포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광주시, 용인시, 수원 영통구, 평택시 등 경기도권 시군구에서 나타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고영우 외(2023)에서 남성을 포함할 경우 원주혁신도시의 영향, 평창과 정선의 통근시간 소폭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성으로 한정된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지역노동시장 재편 및 통근방향·시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세종과 청주,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통근시간 증가가 관찰된다. 특히 세종과 청주의 통근시간 증가 정도는 남성보다 크며, 다른 충청권 시군구의 통근시간 증가보다도 큰데, 이는 충청권에서 여성 일자리의 적지 않은 비중이 세종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호남권도 강원·제주권과 유사하게 수도권 및 충청권보다 지역노동시장과 통근방향 변화, 통근시간 증가가 크지 않다. 이는 호남권 일자리도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역외 이주, 고령화로 인한 기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권은 호남권, 강원·제주권보다는 변화가 있으나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서는 변화가 작다. 대구 및 인근 시군의 지역노동시장 재편과 통근시간 증가가 관찰되는 점은 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남권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보다는 지역노동시장의 변화가 작다. 부산 구도심보다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의 통근시간 증가와 통근방향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강서진해자유구역 조성과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에서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통근이동에 근거한 지역노동시장권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숙련수준(학력)이 낮을수록 좁게 형성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노동시장권이 집단별로 상이하게 형성됨을 확인한바, 다양한 지역고용정책을 지역 간 연계·협력함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에서의 여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제조업 분야로의 취·창업 지원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학력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형성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간 취·창업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 및 인구유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일자리재배치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및 단기 일자리,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저학력 및 중고령층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등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단위로) 지역의 여건을 충족하는 집중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지에 거점 센터를 두고,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영우 외, 2023).

제 1 장 서 론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 여건 차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상이한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지역에 특화된 지역고용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경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하는 공간적 지역고용정책은 쉽게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기능적으로 단일성을 가지는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상이한 경우, 행정구역 기준으로만 시행되는 고용정책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 있다. 지역수준의 고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능지역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식별하고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영우 외, 2020).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선택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및 양육·보육 등의 여건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은 남성에 비해 협소하므로, 일자리 탐색 및 노동시장 참여가 거주지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영우 외, 2018).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이 상승하면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출산율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교육의 질적 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미래의 소득수준과 함께 여성의 고용 및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진영·이중하, 2012). 따라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자체 간의 상호관련성(예컨대, 노동력 이동이나 정책의 조화 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영우 외, 2018).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여성(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참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 특성 및 가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영우 외, 2018).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식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연령계층 및 학력별 지역노동시장권을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여성고용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그 변화 및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단위 중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지역노동시장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지역 정주 등과 관련된 지역여성고용정책, 나아가 지역여성고용정책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범위¹⁾

제1절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를 활용하여 여성 취업자들의 시군구 간 통근량을 집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통계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격 접근서비스(RAS)를 활용하여, 인구총조사 20% 표본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프로젝트고유번호 : RAS25080606). 윤윤규 외(2012)의 연구에서 2010년 인구총조사 10% 통근 집계자료를 활용하였고, 고영우 외(2020)의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총조사 20% 통근 집계자료(프로젝트고유번호 : RAS20101501)를 활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의 연속성 및 도출된 지역노동시장권을 비교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고영우 외(2023)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능한 수준에서 비자치구인 '구'단위 지역을 구분하여 통근행렬을 집계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

1) 본 장의 연구에서는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 고영우 외(2023)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상기 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론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이에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윤윤규 외(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 비자치구로, 충청북도 청주시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등 4개 비자치구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전국적으로 250개 시군구 단위로 여성 취업자의 통근자수를 집계하였다. 이상의 250개 시군구 수준에서 통근지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24,011,648명의 취업자 중 10,099,408명의 여성 취업자에 대한 통근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2절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취업자 규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표 2-1>과 같이 여성의 통근취업자수는 전체 통근 취업자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전체 통근행렬 자료에 대한 취업자 규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윤윤규 외(2012) 및 고영우 외(2020)와 마찬가지로 전체 취업자수에서 여성의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취업자수 기준에 일률적으로 비례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약 42.1%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 연도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 모수 조정

	전체 취업자수	여성 취업자수	여성 비중	최소 취업자수 기준	
				하단 (3,500)	상단 (25,000)
2010년	20,669,174	8,502,196	0.411	1,440	10,284
2015년	24,111,611	9,806,891	0.407	1,424	10,168
2020년	24,011,648	10,099,408	0.421	1,472	10,515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표 2-2〉는 연도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도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164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138개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윤윤규 외(2012)에서 도출한 2010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75개)보다는 적게 도출된 것인 반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2015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52개)보다는 많게 설정된 결과이다.

〈표 2-2〉 연도별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단위: 개, 명)

	전체			여성		
	권역 개수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권역 개수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10년	137	4,487	6,235,626	175	1,875	907,293
2015년	134	5,360	7,462,463	152	2,052	872,526
2020년	138	4,761	6,459,161	164	1,752	1,272,148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표 2-3〉 연도별 · 초광역권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단위: 개, 명, %)

	권역 개수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노동공급자급률		노동수요공급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10년							
전국	175	1,875	907,293	58.7	99.7	59.4	99.4
수도권	27	3,070	907,293	58.7	97.6	59.4	93.9
강원제주권	20	3,814	86,586	92.0	99.3	83.2	98.8
충청권	31	5,354	177,050	59.5	98.8	62.1	98.6
호남권	41	5,471	78,673	69.4	99.7	68.9	99.2
대구경북권	28	1,875	179,011	65.7	99.3	67.5	99.4
동남권	28	6,371	285,156	70.6	99.6	60.1	98.9

〈표 2-3〉의 계속

	권역 개수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노동공급자급률		노동수요공급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15년							
전국	152	2,052	872,526	56.4	100.0	56.0	100.0
수도권	26	8,553	872,526	56.4	90.6	56.0	88.1
강원제주권	20	4,647	102,191	88.4	98.4	81.4	98.4
충청권	27	6,711	154,292	73.5	97.8	73.6	96.8
호남권	35	5,487	113,954	72.9	99.1	75.3	97.9
대구경북권	22	2,052	448,458	76.9	100.0	75.2	100.0
동남권	22	7,996	621,058	72.5	98.8	73.1	98.1
2020년							
전국	164	1,752	1,272,148	51.2	99.7	57.9	99.8
수도권	28	3,870	1,272,148	51.2	93.4	57.9	90.8
강원제주권	20	4,281	101,020	88.2	97.5	73.1	98.0
충청권	28	4,924	164,541	73.0	97.2	74.6	95.8
호남권	38	4,774	90,347	74.5	98.5	72.7	97.2
대구경북권	23	1,752	190,840	72.2	99.7	73.6	99.8
동남권	27	5,105	266,023	70.3	98.4	66.5	96.7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표 2-3〉은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 도출 결과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초광역권역별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집단의 지역노동시장권은 164개인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2010년 기준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75개)보다는 적고 2015년 기준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52개)보다는 많은 수치이다. 초광역권역별로 도출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시군구(20개)가 독립적인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강원제주권을 제외하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에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개수가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포함되는 시군구 정보는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권, 서울동북권, 서울서북권, 서울서부권, 서울서남권, 강동하남권, 인천동부권, 인천서부권, 김포권, 수원시(권), 성남권, 분당권, 의정부권, 안양권, 안산시흥권, 고양권, 파주권, 오산화성권 등 18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지역들인 반면, 나머지 10개 시군구는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8개)

서울권 (16개 시군구)	서울 14개 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동북권 (2개 시군구)	서울 2개 구(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북권 (3개 시군구)	서울 3개 구(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서부권 (3개 시군구)	서울 3개 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울서남권 (3개 시군구)	서울 2개 구(구로구, 금천구), 경기 광명시
강동하남권 (2개 시군구)	서울 1개 구(강동구), 경기 하남시
인천동부권 (5개 시군구)	인천 5개 구(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인천서부권 (3개 시군구)	인천 2개 구(부평구, 계양구), 경기 부천시
김포권 (2개 시군구)	인천 1개 구(서구), 경기 김포시
수원시(권) (4개 시군구)	경기 수원시 전체(4개 구)
성남권 (2개 시군구)	경기 성남시 2개 구(수정구, 중원구)

〈표 2-4〉의 계속

분당권 (4개 시군구)	경기 성남시 1개 구(분당구), 용인시 2개 구(기흥구, 수지구), 경기 광주시
의정부권 (4개 시군구)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안양권 (5개 시군구)	경기 안양시 전체(2개 구),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흥권 (3개 시군구)	경기 안산시 전체(2개 구), 시흥시
고양권 (2개 시군구)	경기 고양시 2개 구(덕양구, 일산동구)
파주권 (2개 시군구)	경기 고양시 1개 구(일산서구), 파주시
오산화성권 (2개 시군구)	경기 오산시, 화성시
시군구 단위 단일노동시장 (10개 시군구)	인천 강화군/용진군/ 경기 평택시/용인 처인구/이천시/안성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 양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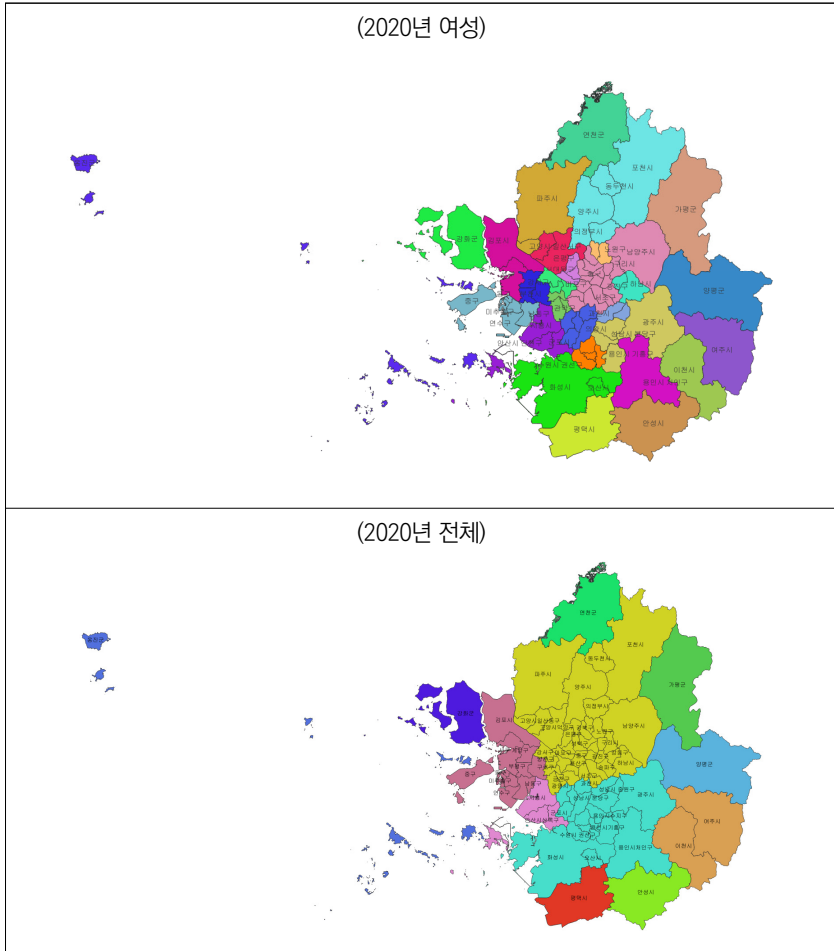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12개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된 것에 비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훨씬 좁게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는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가 거대한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도 수원과 성남을 중심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이 크게 형성된 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서울 및 경기 지역도 상당히 세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 통근취업자의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9개 시군구(인천 강화군, 경기 평택시, 용인 처인구,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지역이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서는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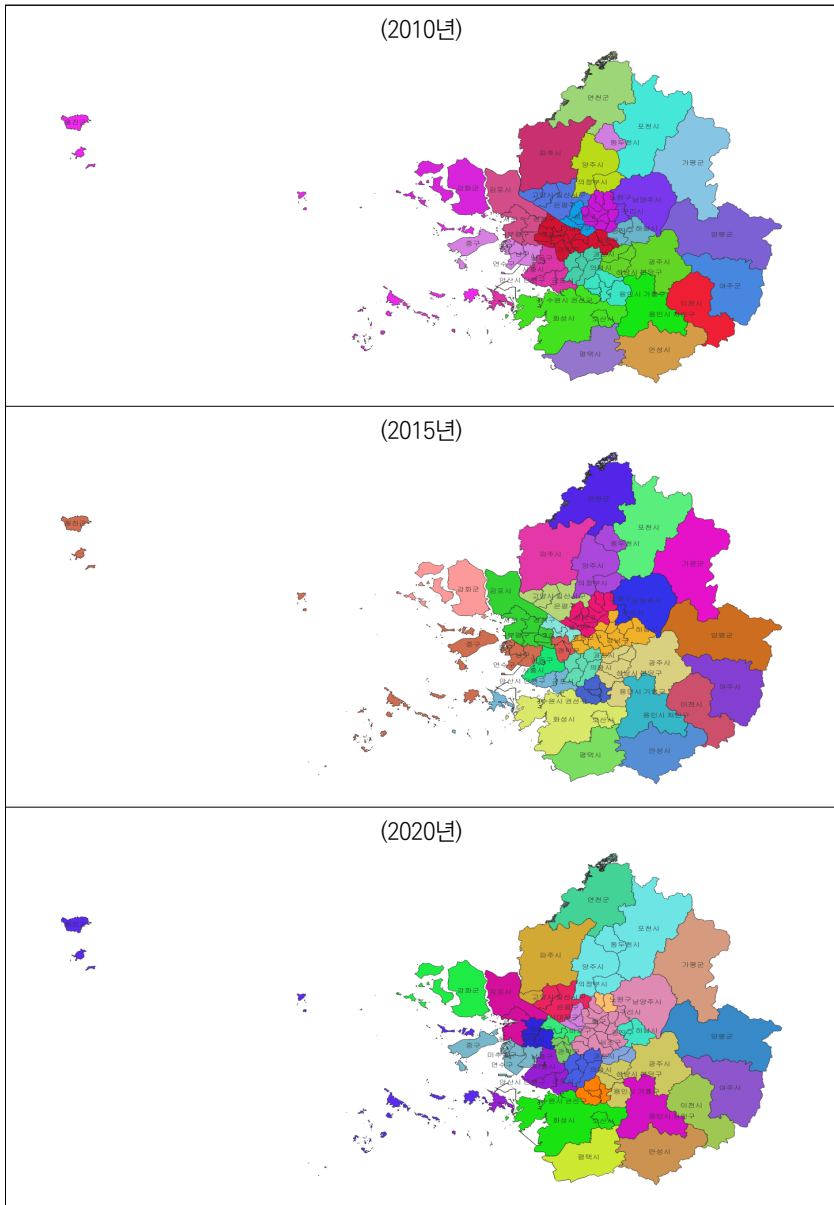
데,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경기도 지역에서는 성남시와 김포시 지역의 세분화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1]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20년 전체 취업자 지역노동시장권 정보는 고영우 외(2023)에서 인용.

[그림 2-2]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2. 강원제주권

강원제주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0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포함되는 시군구 정보는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권역 내 20개 시군구 지역 모두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강원제주권에서는 한 가지 차이가 확인된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는 19개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제주권 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이 결합하여 통합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모든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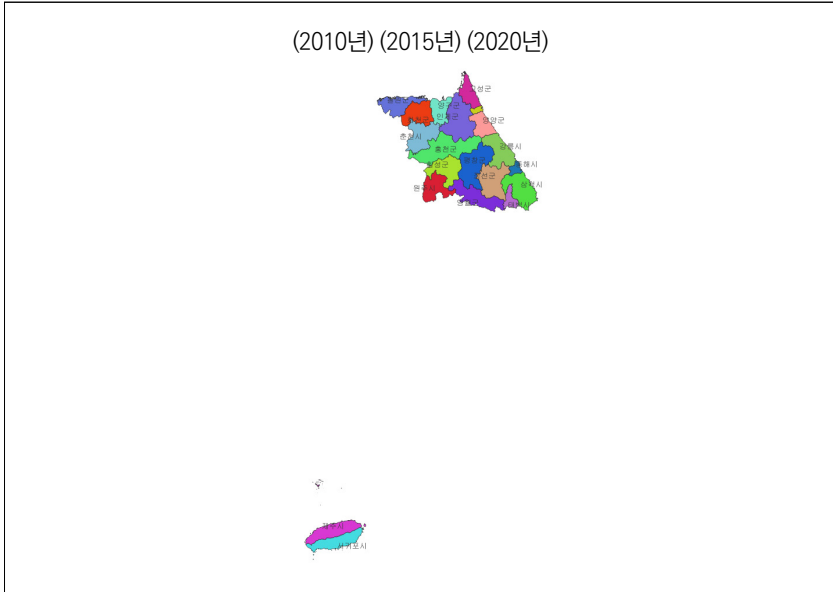
[그림 2-4]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 통근취업자의 강원제주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강원제주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0개 모든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강원제주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0개)

시군구 단위 단일노동시장 (20개 시군구)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 강원 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	--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2-4] 강원제주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3. 충청권

충청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포함되는 시군구 정보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동부권, 대전서부권, 청주남부권, 진천음성권, 괴산증평권, 논산계룡권 등 6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지역들인 반면, 나머지 22개 시군구는 각각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충청권에서도 협소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동부권 및 대전서부권은 대전 내 지역과 대전 외 지역으로 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

〈표 2-6〉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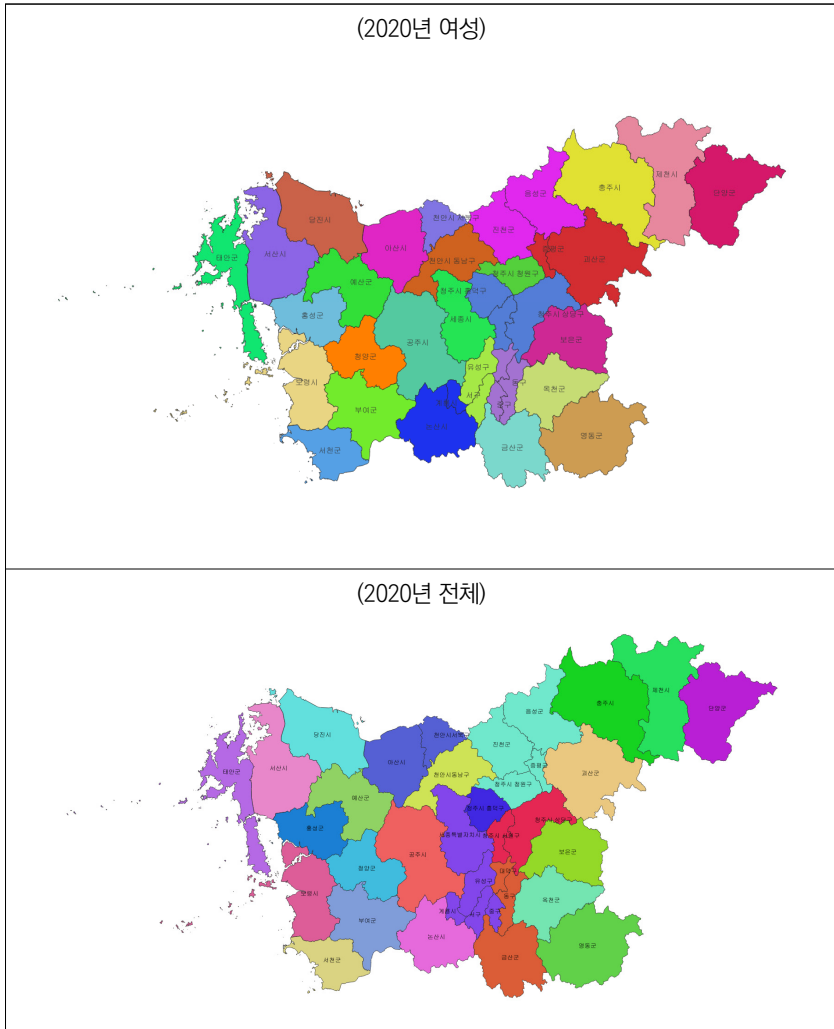
대전동부권 (3개 시군구)	대전 3개 구(동구, 중구, 대덕구)
대전서부권 (2개 시군구)	대전 2개 구(서구, 유성구)
청주남부권 (3개 시군구)	충북 청주시 3개 구(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진천음성권 (2개 시군구)	충북 진천군, 음성군
괴산증평권 (2개 시군구)	충북 괴산군, 증평군
논산계룡권 (2개 시군구)	충남 논산시, 계룡시
시군구 단위 단일노동시장 (22개 시군구)	세종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청주 청원구/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 충남 천안 동남구/천안 서북구/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 충남 당진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며,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는 다른 지역들과 결합하여 거대한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였던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등은 괴산증평권 및 논산계룡권으로 국지적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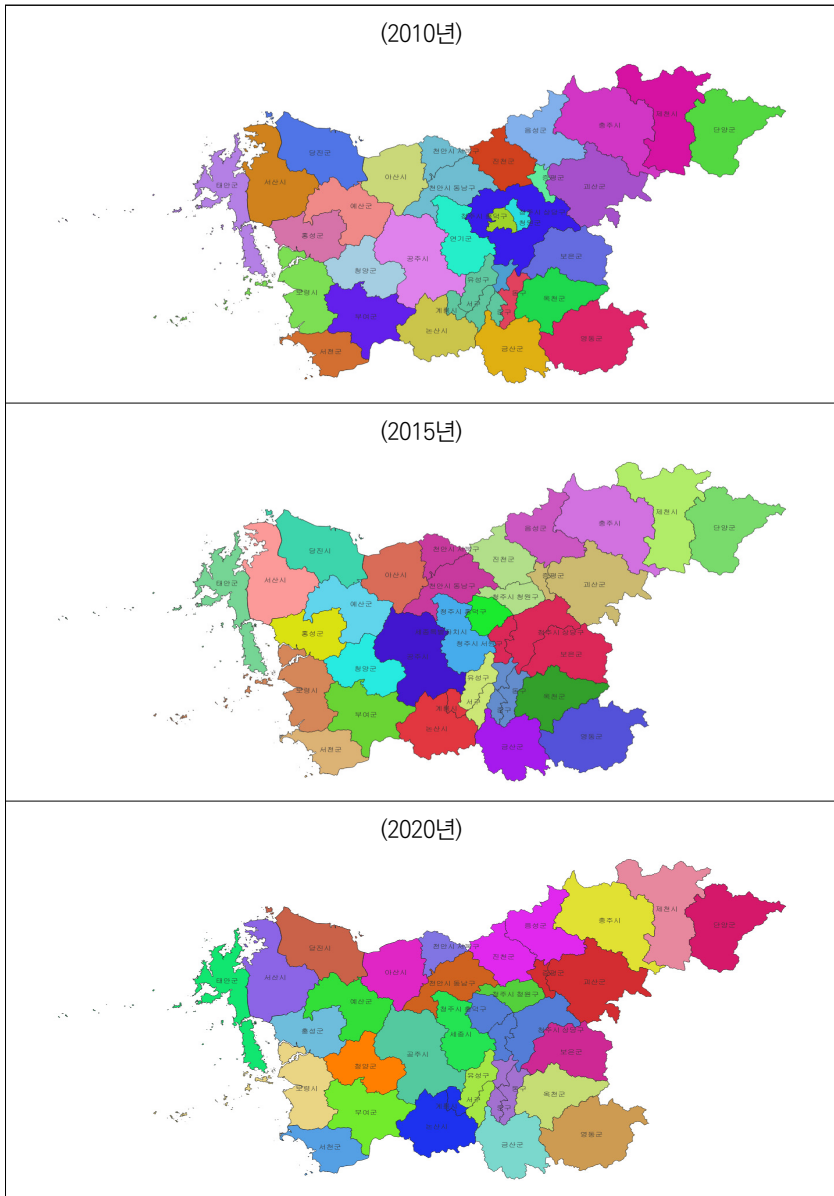
[그림 2-6]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 통근취업자의 충청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충청북도의 5개 시군구(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와 충청남도의 12개 시군구(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천음성권 및 괴산증평권 등 국지적으로 결합 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변화가 발견된다.

[그림 2-5] 충청권 지역노동시장권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20년 전체 취업자 지역노동시장권 정보는 고영우 외(2023)에서 인용.

[그림 2-6]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4. 호남권

호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포함되는 시군구 정보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동남권, 광주동북권, 광산장성권, 덕진완주권 등 4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지역들인 반면, 나머지 34개 시군구는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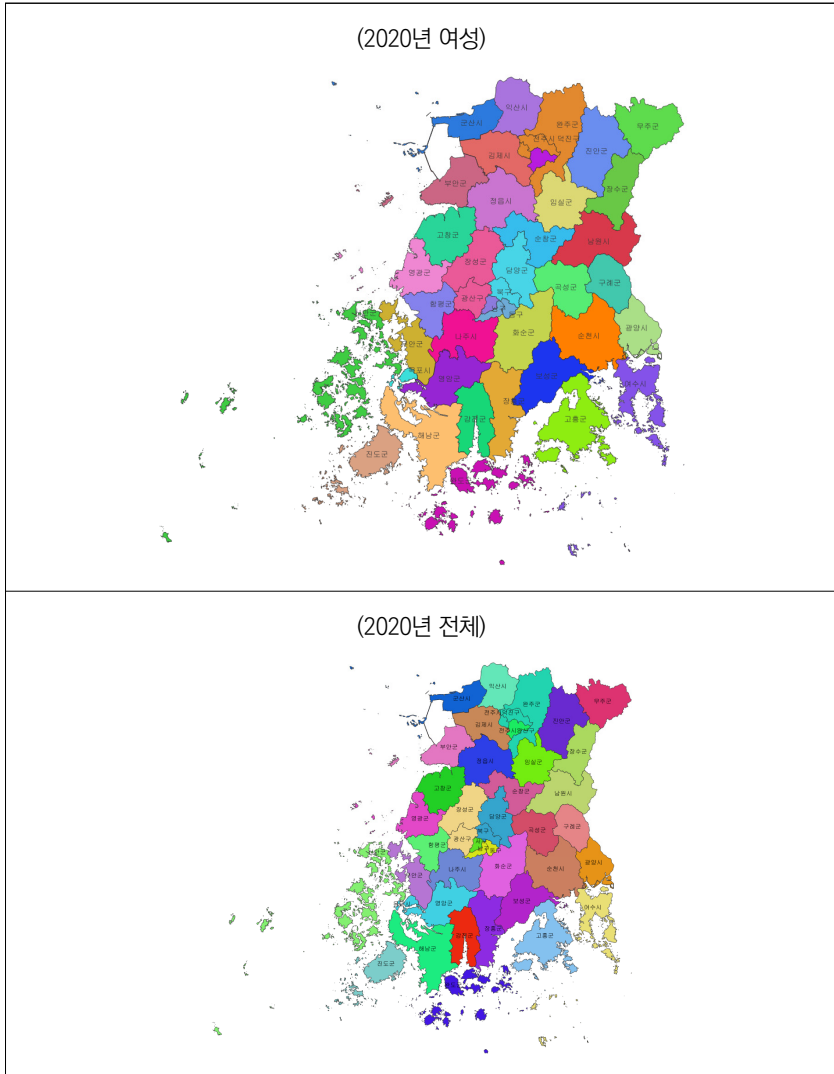
[그림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호남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목포영암권이 형성된 것을 제외하면, 호남권에서 전체 취업자 지역노동시장권과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동일하게 형성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표 2-7>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38개)

광주동남권 (2개 시군구)	광주 2개 구(동구, 남구)
광주동북권 (2개 시군구)	광주 1개 구(북구), 전남 담양군
광산장성권 (2개 시군구)	광주 1개 구(광산구), 전남 장성군
덕진완주권 (2개 시군구)	전북 전주시 1개 구(덕진구), 전북 완주군
시군구 단위 단일노동시장 (34개 시군구)	광주 서구/ 전북 전주 완산구/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전남 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 전남 무안군/함평군/영광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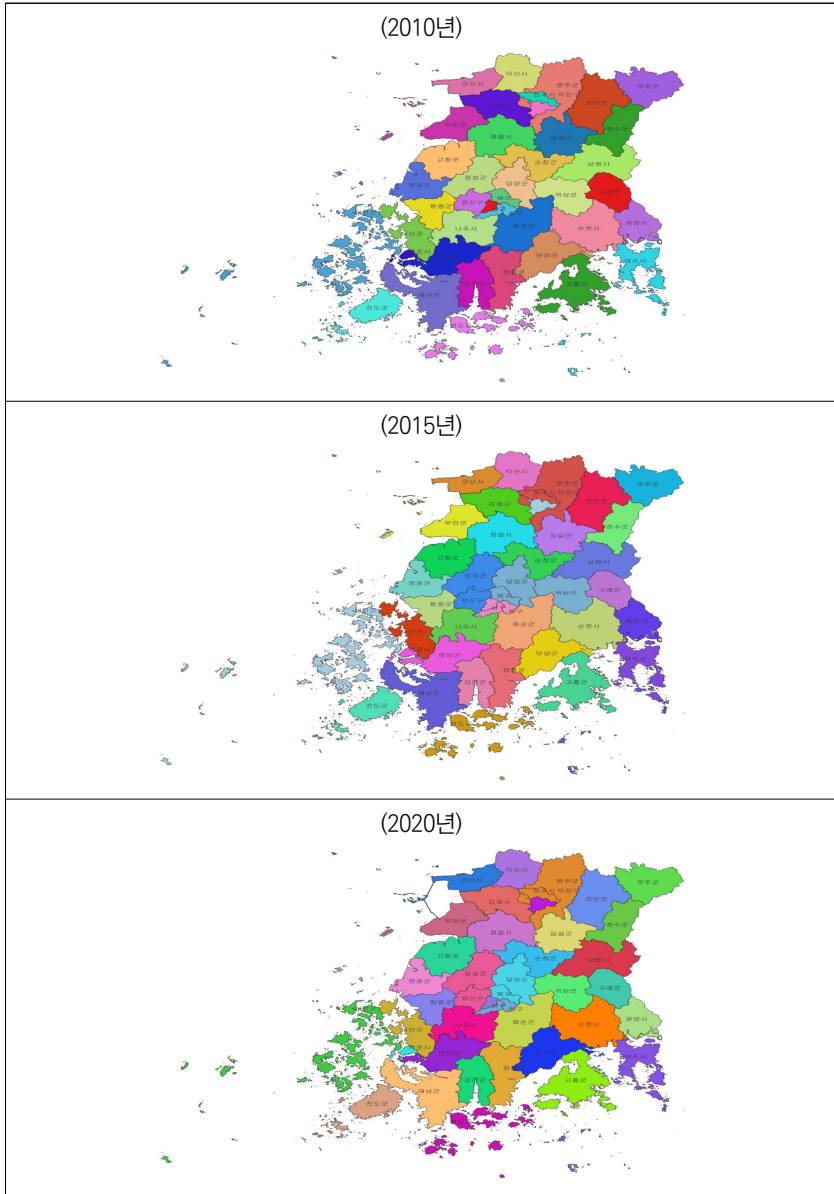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2-7] 호남권 지역노동시장권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20년 전체 취업자 지역노동시장권 정보는 고영우 외(2023)에서 인용.

[그림 2-8]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그림 2-8]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 통근취업자의 호남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남권은 가장 많은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권역이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시군구 역시 30개(전북 13개, 전남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있었던 지역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광주동남권(광주 동구, 남구) 외 모든 지역이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이었는데, 2015년에는 큰 틀에서 4개 결합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후, 2020년에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세분화되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대구경북권

대구경북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3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포함되는 시군구 정보는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북부권, 대구서남권, 수성경산권, 구미칠곡권, 군위의성권 등 5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지역들인 반면, 나머지 18개 시군구는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대구경북권에서도 협소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형성된 대구북부권(대구 중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은 여성을 대상으로는 대구북부권(대구 중구, 서구, 북구), 구미칠곡권(경북 구미시, 칠곡군), 군위의성권(경북 군위군, 의성군)으로 세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 통근취업자의 대구경북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경상북도의 17개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광역시와 인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후, 2020년에는 이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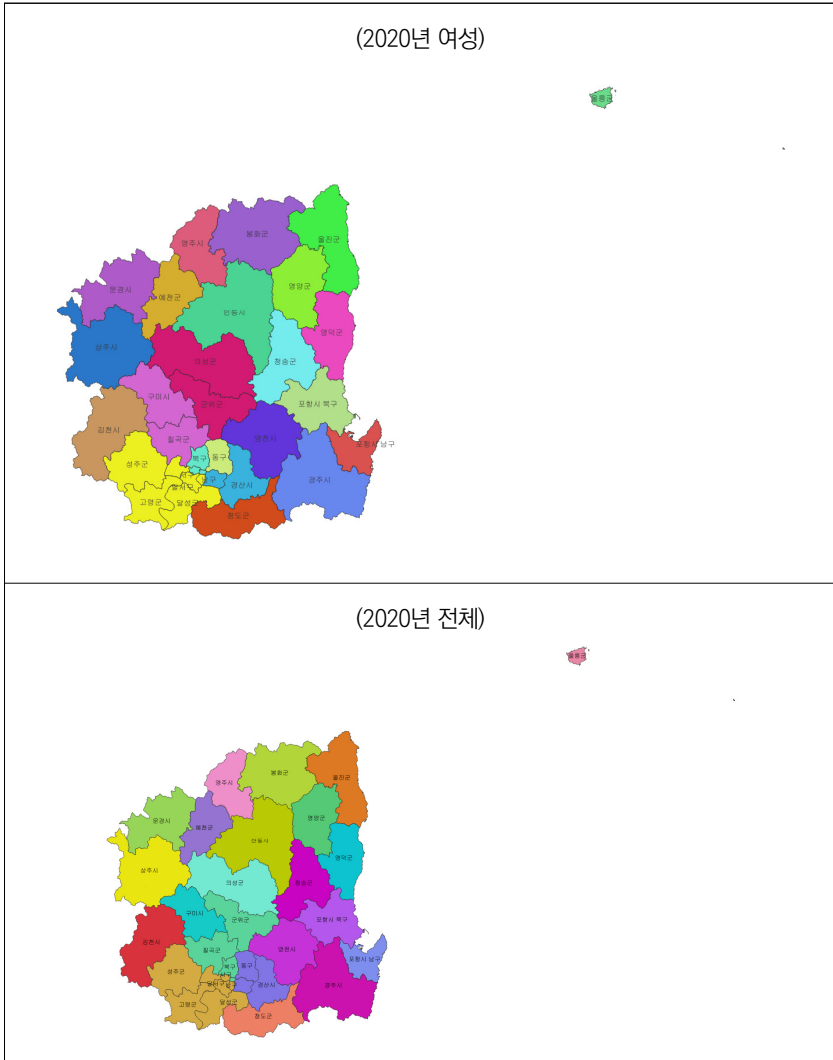
분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표 2-8〉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3개)

대구북부권 (3개 시군구)	대구 3개 구(중구, 서구, 북구)
대구서남권 (5개 시군구)	대구 3개 구군(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수성경산권 (2개 시군구)	대구 1개 구(수성구), 경북 경산시
구미칠곡권 (2개 시군구)	경북 구미시, 칠곡군
군위의성권 (2개 시군구)	경북 군위군, 의성군
시군구 단위 단일노동시장 (18개 시군구)	대구 동구/ 경북 포항 남구/포항 북구/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 경북 영천시/상주시/문경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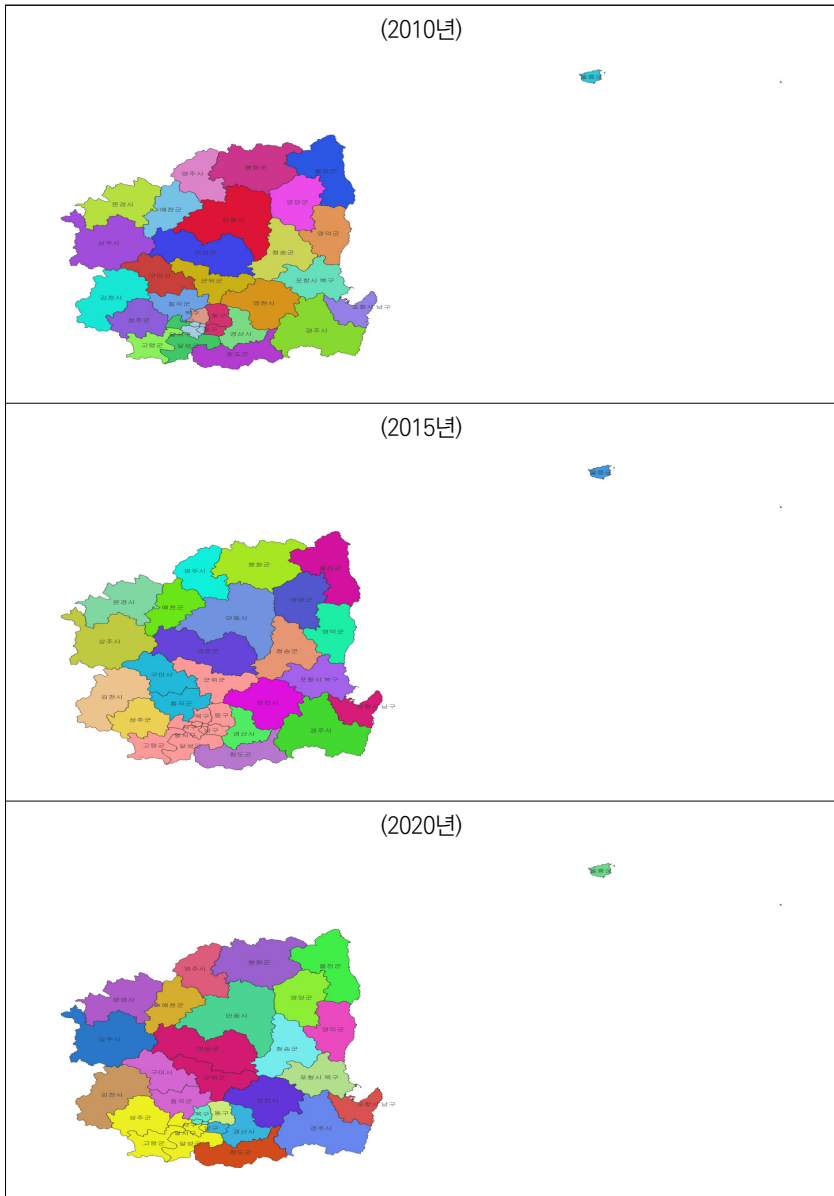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2-9] 대구경북권 지역노동시장권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20년 전체 취업자 지역노동시장권 정보는 고영우 외(2023)에서 인용.

[그림 2-10]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6. 동남권

동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7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포함되는 시군구 정보는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서부권, 부산동남권, 부산북부권, 울산중부권, 회원함안권 등 5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지역들인 반면, 나머지 22개 시군구는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분 : 2020년(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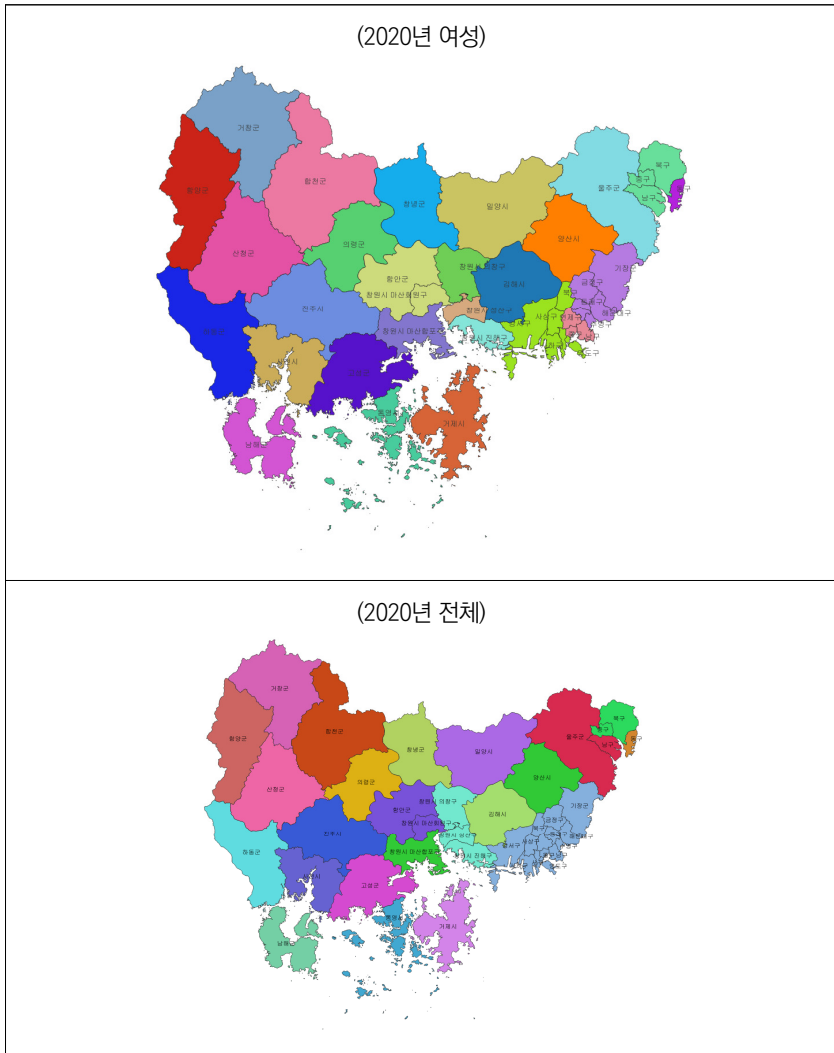
부산서부권 (7개 시군구)	부산 7개 구(중구, 서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동남권 (3개 시군구)	부산 3개 구(동구, 부산진구, 남구)
부산북부권 (6개 시군구)	부산 6개 시군(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울산중부권 (3개 시군구)	울산 3개 구(중구, 남구, 북구)
회원함안권 (2개 시군구)	경남 창원시 1개 구(마산회원구), 경남 함안군
시군구 단위 단일노동시장 (22개 시군구)	울산 동구/울주군/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경남 창원 의창구/창원 성산구/창원 마산합포구/창원 진해구/ 경남 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 경남 합천군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동남권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는 부산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반면, 부산 지역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세 권역으로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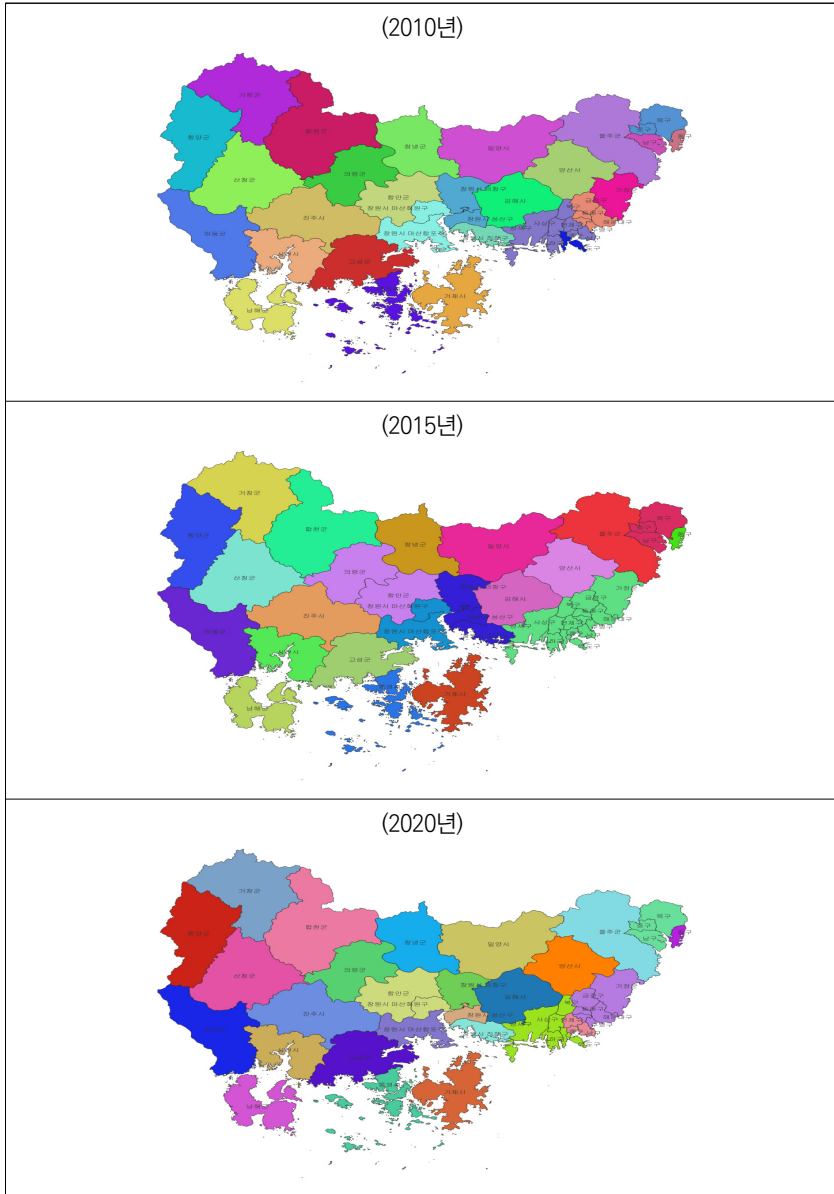
올려, 창원진해권도 각각의 비자치구 지역별로 노동시장권이 세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동남권 지역노동시장권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20년 전체 취업자 지역노동시장권 정보는 고영우 외(2023)에서 인용.

[그림 2-12]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그림 2-12]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 통근취업자의 동남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동남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7개(울산 2개, 경남 15개)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변화가 상당히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에 부산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였는데, 2020년에 이 지역이 다시 3개의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남 창원 지역도 2015년에 창원진해권과 마산권으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이 2020년에는 회원함안권을 제외하면 모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으로 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

사회경제적 집단들 사이의 공간적 행태는 상호 이질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이용가능한 통근수단의 제약 등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간적 제약(spatial constraints)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집단별(하위) 지역노동시장권(Sub-LLMAs)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윤윤규 외, 2012).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절에서는 여성 통근자를 연령대와 학력별로 구분하여 집단별 통근행렬을 별도로 추출함으로써,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고 그 특징을 서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지금부터 여성을 연령대별로 20대 및 30대의 청년층과 40대 및 50대의 중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2-10〉 연령대별 · 초광역권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단위: 개, 명, %)

	권역 개수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노동공급자급률		노동수요공급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30대							
전국	144	380	121,170	39.8	99.7	29.8	99.0
수도권	36	625	121,170	39.8	85.9	29.8	82.9
강원제주권	16	1,094	35,698	82.0	97.1	76.3	97.6
충청권	22	971	57,694	65.1	97.5	70.5	95.1
호남권	27	826	45,894	73.8	97.4	75.6	96.9
대구경북권	22	380	77,330	73.5	99.7	75.0	99.0
동남권	21(1)	1,027	99,630	67.2	98.0	65.7	95.5
40~50대							
전국	168	698	140,055	54.1	99.3	43.5	100.0
수도권	40(1)	1,334	140,055	54.1	92.2	43.5	88.1
강원제주권	18	1,776	50,999	86.7	97.8	74.5	98.0
충청권	26	2,267	70,062	75.0	96.2	73.5	96.0
호남권	31	1,702	60,202	78.4	98.7	74.0	96.3
대구경북권	24	698	73,708	73.9	99.3	71.5	100.0
동남권	29	2,167	97,616	61.8	97.8	58.2	96.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초광역권 이외 지역과 결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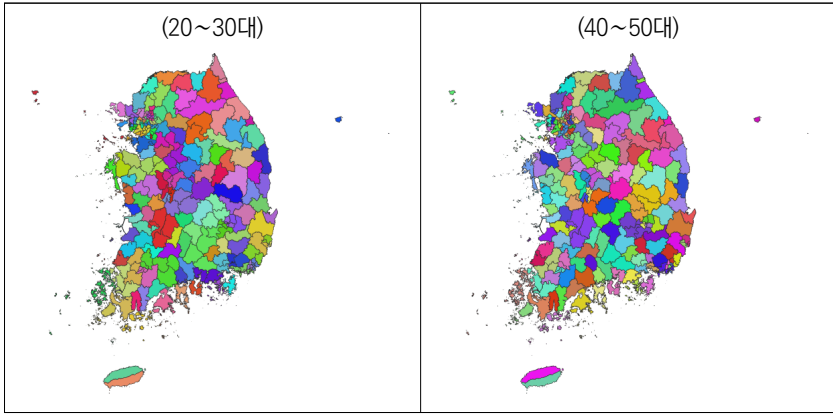
〈표 2-10〉은 각 초광역권역별로 식별된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 및 노동시장 통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0~3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44개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여성 통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 지역노동시장권보다 적은 개수로, 청년층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초광역권역별로 살펴보아도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반

적으로 적게 형성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전체 여성 취업자의 지역노동시장권은 28개인 반면, 20~30대 연령층의 지역노동시장권은 36개가 형성되어, 청년층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시장권이 좁게 형성되고 분화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상대적으로 더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20~30대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27개로 전체 여성의 경우(38개)보다 무려 11개나 적게 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호남권에서는 청년층 여성의 통근 이동이 상당히 넓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권에서는 경남 진주시, 합천군, 산청군과 동남권 이외 지역인 경북 고령군이 결합하여 초광역권 경계를 넘는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었다.

40~5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68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수이다. 다만, 초광역권역별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경우(28개)보다 훨씬 많은 40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수도권 지역의 중고령층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상당히 좁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강원제주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중고령층의 지역노동시장권이 다소 적게 형성된 반면, 대구경북권과 동남권에서는 다소 많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강원제주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40~50대 연령의 여성 취업자도 상대적으로 넓은 통근권을 형성하는 반면, 대구경북권과 동남권에서는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의 통근이 상대적으로 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40~5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제주권에 걸쳐 지역노동시장권(경기 포천시 + 강원 철원군)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3]은 연령대별로 식별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40~50대 연령층보다 20~30대 연령층의 지역노동시장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형성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²⁾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2.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지금부터 여성을 학력별로 고졸이하 학력계층과 전문대졸이상 학력계층으로 구분하여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2-11〉은 각 초광역권역별로 식별된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 및 노동시장 통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졸이하 학력계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91개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 지역노동시장권보다 상당히 많은 개수로, 고졸이하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좁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모든 시군구가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한 강원제주권을 제외하면, 모든 초광역권역에서 고졸이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많게 형성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경우 40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바, 대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졸이하 학력의 여성 취업자의 통근권

2) 초광역별로 자세한 결과는 [부도 2-1]~[부도 2-6]에 제시되어 있다.

역이 상당히 좁게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에 서는 초광역권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노동시장권(울산 북구 + 경북 경주시)이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28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보다 훨씬 적은 개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취업자들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통근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적은 개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2-11〉 학력별 · 초광역권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비교

(단위: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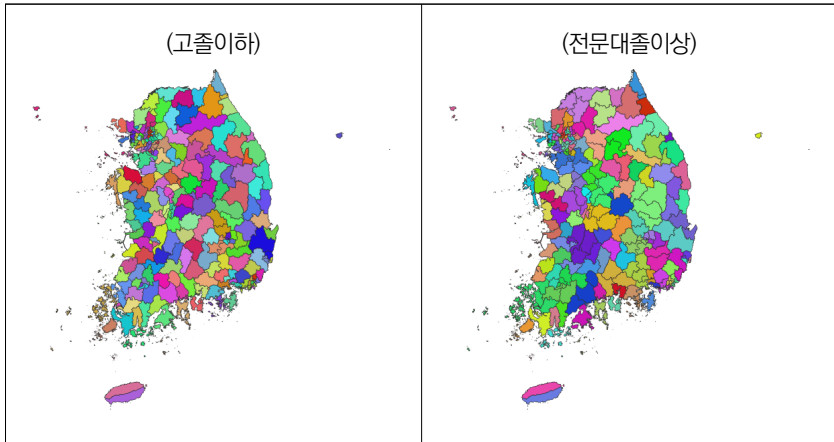
	권역 개수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노동공급자급률		노동수요공급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고졸이하							
전국	191	1,225	133,890	54.5	99.6	48.2	100.0
수도권	40	3,102	133,890	54.5	95.8	48.2	95.1
강원제주권	20	2,891	46,132	91.0	99.0	79.1	98.7
충청권	31	3,449	60,354	73.5	98.0	72.8	97.6
호남권	41	3,402	37,921	79.2	99.1	75.5	98.8
대구경북권	26	1,225	64,196	72.9	99.6	73.4	100.0
동남권	33(1)	3,757	87,988	70.5	99.2	67.6	97.7
전문대졸이상							
전국	128	527	187,246	40.5	99.8	31.8	99.2
수도권	34(1)	768	187,246	40.5	86.4	31.8	81.1
강원제주권	14	1,390	54,888	81.5	97.1	73.7	97.5
충청권	19(1)	1,475	99,256	73.1	94.8	68.8	93.5
호남권	23	1,155	85,285	75.8	97.3	73.4	93.0
대구경북권	18(1)	527	95,303	72.7	99.8	74.6	99.2
동남권	20	1,866	107,132	55.8	96.1	62.6	95.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초광역권 이의 지역과 결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34개로 전체 여성 취업자(28개) 대비 많이 형성되었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단이 나누어질수록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범위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초광역권역에서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전체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적게 형성되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전체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38개보다 15개나 적은 23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경우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한바, 초광역권역의 경계를 넘는 지역노동시장권도 상대적으로 많이 식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3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초광역권역의 경계를 넘어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수도권(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제주권(강원 철원군)에 걸쳐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이다.

[그림 2-14]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³⁾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3) 초광역별로 자세한 결과는 [부도 2-7]~[부도 2-12]에 제시되어 있다.

둘째는 충청권과 호남권에 걸쳐 형성된 서천군산권(충남 서천군 + 전북 군산시)이다. 마지막 셋째는 대구경북권과 동남권에 걸친 청도밀양권(경북 청도군 + 경남 밀양시)이다.

[그림 2-14]는 학력별로 식별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이하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된 반면,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당히 크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고용구조

본 절에서는 2020년 인구총조사 경제활동부문 표본조사(20%) 자료를 활용하여 6개 초광역권역별(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고용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구분되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률은 <표 2-12>와 같다. 수도권 평균 여성 고용률은 51.1%로 남성 고용률(70.5%)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이천시, 성남권 등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산 화성권, 김포권, 인천 옹진군 등에서 남성 고용률이 높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노동시장권은 경기 양평군, 인천 강화군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 고용률이 낮은 지역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서북권, 서울권, 서울서부권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낮은 지역노동시장권은 오산화성권, 경기 연천군, 경기 안성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권(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20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구분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역 내 모든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

〈표 2-12〉 수도권 성별 고용률

(단위: %)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서울권	51.5	67.9	59.3	45.3
서울동북권	47.7	65.2	56.0	44.8
서울서북권	51.5	67.1	58.8	47.0
서울서부권	53.2	70.2	61.4	45.0
서울서남권	52.4	70.9	61.6	43.0
강동하남권	52.1	71.3	61.4	43.4
인천동부권	49.8	70.3	60.0	41.9
인천서부권	51.1	69.6	60.1	43.6
김포권	51.2	75.4	63.5	39.6
인천 강화	44.3	59.4	51.8	43.3
인천 용진	63.9	75.1	70.0	42.1
수원시	51.4	71.2	61.2	42.2
성남권	53.3	69.6	61.4	43.4
분당권	49.0	71.8	60.1	41.8
의정부권	49.2	69.1	59.2	41.4
안양권	50.7	70.5	60.3	43.1
안산시흥권	52.9	74.2	64.0	39.8
고양권	50.5	70.4	60.1	43.6
파주권	50.0	72.3	60.9	41.7
오산화성권	52.9	79.3	66.7	37.8
평택시	51.9	75.3	64.0	39.1
용인 처인	51.0	71.8	61.7	40.1
이천시	55.7	74.3	65.3	41.4
안성시	50.2	71.8	61.6	38.6
여주시	50.2	68.5	59.4	41.9
연천군	46.1	68.7	57.9	38.0
가평군	46.6	63.6	55.2	42.0
양평군	44.2	61.0	52.5	42.6
수도권 전체	51.1	70.5	60.6	43.0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표 2-13〉 강원제주권 성별 고용률

(단위: %)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춘천시	50.0	62.9	56.3	45.6
원주시	50.2	68.2	59.0	43.4
강릉시	50.1	64.1	57.0	44.3
동해시	48.5	67.9	58.2	41.6
태백시	52.1	67.2	59.7	43.7
속초시	52.6	68.1	60.3	44.3
삼척시	49.6	63.8	56.9	42.4
홍천군	52.8	70.1	61.5	42.3
횡성군	48.5	63.9	56.3	42.8
영월군	52.6	65.8	59.3	43.5
평창군	50.7	68.5	59.7	41.8
정선군	53.3	69.9	61.8	42.2
철원군	52.1	74.4	63.3	41.0
화천군	59.6	75.6	67.9	42.3
양구군	54.6	74.5	64.7	41.4
인제군	56.7	75.0	66.2	41.1
고성군	57.0	73.9	65.9	40.7
양양군	53.8	67.8	60.9	43.6
제주시	55.8	70.0	62.8	44.9
서귀포시	59.8	73.7	66.8	44.3
강원제주권 전체	52.7	68.2	60.4	43.9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강원제주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률은 〈표 2-13〉과 같다. 강원제주권 평균 여성 고용률은 52.7% 수준으로 수도권 여성 고용률(51.1%)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권 내에서는 제주 서귀포시,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등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철원군 등에서 남성 고용률이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제주권 내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노동시장권은 강원 동해시와 강원 횡성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남성 고용률이 낮은 지역(강원 춘천시, 강원 삼척시, 강원 횡성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 춘천시와 제주 제주시로 권역 내 중심지에 여성 취업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낮은 지역노동시장권은 강원 고성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는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구분되었다. 2020년 기준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률은 <표 2-14>와 같다. 충청권 평균 여성 고용률은 50.0% 수준으로 수도권 여성 고용률(51.1%)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내에서는 충남 청양군, 세종시, 진천음성권, 충남 천안 서북구 등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고용률이 높은 지역노동시장권(충남 당진시, 충남 천안 서북구, 진천음성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내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노동시장권은 충북 영동군, 대전동부권, 충남 공주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남성 고용률이 낮은 지역(대전동부권,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충남 금산군, 충남 공주시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낮은 지역노동시장권은 충남 당진시, 진천음성권,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는 3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구분되었다. 2020년 기준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률은 <표 2-15>와 같다. 호남권 평균 여성 고용률은 48.5% 수준으로 앞선 충청권의 여성 고용률(50.0%)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내에서는 전북 장수군, 전북 무주군, 전남 신안군 등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고용률이 높은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전남 광양시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내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노동시장권은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전북 익산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남

〈표 2-14〉 충청권 성별 고용률

(단위: %)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대전동부권	46.1	62.6	54.3	43.0
대전서부권	50.3	68.7	59.4	42.9
세종시	54.8	74.5	64.6	42.6
청주남부권	50.9	68.8	59.8	42.9
진천음성권	53.4	75.1	65.2	37.2
괴산증평권	50.5	69.0	60.1	40.4
충주시	49.3	69.3	59.5	40.7
제천시	47.6	65.8	56.6	42.1
청주 청원	51.3	72.5	62.1	40.6
보은군	49.7	68.1	58.8	42.6
옥천군	49.2	65.6	57.4	43.0
영동군	44.9	63.8	54.2	41.9
단양군	47.8	66.5	57.1	41.8
논산계룡권	47.0	66.6	56.6	42.0
천안 동남	49.7	68.9	59.3	41.6
천안 서북	53.1	75.7	64.6	40.4
공주시	46.9	63.1	54.9	43.3
보령시	49.0	69.4	59.5	40.0
아산시	49.1	74.9	62.6	37.3
서산시	47.7	74.4	61.6	37.3
당진시	51.8	78.4	66.0	36.5
금산군	47.9	63.1	55.5	43.4
부여군	47.9	64.4	56.0	43.6
서천군	47.9	64.9	56.3	43.2
청양군	56.1	71.7	63.9	44.0
홍성군	52.8	71.3	62.1	42.6
예산군	51.7	70.6	61.2	42.0
태안군	52.4	70.7	61.6	42.2
충청권 전체	50.0	69.8	60.0	41.4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성 고용률이 낮은 광주동남권,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 익산시 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화순군, 전남 구례군, 전북 무주군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낮은 지역노동시장권은 전남 영암군, 전남 광양시, 전남 여수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호남권 성별 고용률

(단위: %)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광주동남권	48.0	61.8	54.6	45.8
광주동북권	47.0	63.6	55.2	43.5
광산장성권	49.1	70.7	59.9	41.1
광주 서구	49.0	65.8	57.1	44.3
덕진완주권	48.3	65.4	56.8	42.8
전주 완산	48.0	62.9	55.2	45.5
군산시	45.4	66.0	55.8	40.1
익산시	45.7	62.9	54.2	42.6
정읍시	48.6	66.4	57.4	43.2
남원시	48.2	64.3	55.9	44.8
김제시	47.0	66.8	56.7	42.2
진안군	54.6	70.2	62.3	44.4
무주군	58.9	70.9	64.7	47.1
장수군	60.3	71.0	65.6	46.7
임실군	50.2	67.6	58.9	42.9
순창군	48.4	64.4	55.9	46.0
고창군	48.0	65.1	56.4	43.4
부안군	46.8	64.8	55.6	43.1
목포시	47.7	65.1	56.3	42.8
여수시	45.4	69.8	57.8	38.5
순천시	49.8	68.1	58.8	42.9
나주시	51.1	69.5	60.2	43.0
광양시	49.6	75.3	63.0	37.8
곡성군	51.6	68.4	59.9	43.7
구례군	52.6	65.8	58.8	47.2

〈표 2-15〉의 계속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고흥군	49.6	64.3	56.7	45.1
보성군	52.4	68.5	60.0	45.7
화순군	52.5	64.0	58.0	47.3
장흥군	52.3	67.4	59.6	45.7
강진군	50.5	68.6	59.2	44.1
해남군	51.4	69.6	60.2	43.8
영암군	53.3	76.2	65.6	37.7
무안군	52.0	68.1	60.0	43.6
함평군	51.5	68.6	59.9	43.9
영광군	48.5	69.2	58.8	41.6
완도군	50.3	68.8	59.9	40.4
진도군	49.1	71.8	60.7	39.5
신안군	58.8	75.9	67.7	41.5
호남권 전체	48.5	66.6	57.4	42.8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23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구분되었다. 2020년 기준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률은 〈표 2-16〉과 같다. 대구경북권 평균 여성 고용률은 45.7% 수준으로 초광역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 내에서는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등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고용률이 높은 지역노동시장권도 이들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 내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노동시장권은 경북 영덕군과 경북 포항 남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고용률이 낮은 지역(경북 영덕군, 경북 문경시, 수성경산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경북 청송군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낮은 지역노동시장권은 경북 포항 남구,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대구경북권 성별 고용률

(단위: %)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대구북부권	45.2	63.6	54.2	42.6
대구서남권	45.9	66.3	55.9	41.7
수성경산권	43.4	62.8	52.8	42.3
대구 동구	43.4	63.2	53.0	42.3
구미칠곡권	48.6	71.4	60.3	39.3
군위의성권	46.3	65.2	55.5	42.4
포항 남구	42.8	67.3	55.4	37.4
포항 북구	43.2	65.6	54.1	40.8
경주시	45.5	66.9	56.3	40.1
김천시	48.9	68.6	58.7	42.0
안동시	50.0	65.0	57.3	44.6
영주시	44.7	63.2	53.8	42.0
영천시	45.8	66.9	56.5	39.9
상주시	49.0	65.5	57.0	44.3
문경시	46.1	62.1	53.8	44.4
청송군	61.1	74.9	67.9	45.8
영양군	59.4	72.6	65.7	46.9
영덕군	42.6	59.7	50.6	44.6
청도군	48.0	64.8	56.2	44.0
예천군	49.5	69.5	59.2	43.2
봉화군	53.1	70.8	61.8	43.9
울진군	45.5	67.4	56.7	39.1
울릉군	61.9	79.8	71.8	38.3
대구경북권 전체	45.7	65.8	55.6	41.6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표 2-17〉 동남권 성별 고용률

(단위 : %)

	고용률			여성 취업자 비중
	여성	남성	전체	
부산서부권	45.1	64.0	54.4	41.9
부산동남권	44.8	61.7	52.9	44.3
부산북부권	44.6	63.3	53.5	43.8
울산중부권	45.1	70.4	57.9	38.5
울산 동구	42.9	70.6	57.4	35.4
울산 울주	45.1	70.0	58.0	37.4
회원함안권	46.6	66.4	56.6	41.0
진주시	49.4	66.1	57.6	43.5
통영시	48.3	65.2	56.8	42.0
사천시	48.2	68.3	58.4	40.9
김해시	49.9	72.5	61.4	40.0
밀양시	47.0	64.0	55.3	43.7
거제시	46.6	73.7	61.0	35.9
양산시	49.3	70.2	59.6	41.7
창원 의창	49.6	69.2	59.5	41.5
창원 성산	50.1	73.1	61.9	39.6
창원 마산합포	44.4	62.3	53.1	42.5
창원 진해	45.8	69.9	58.1	38.8
의령군	46.2	65.5	55.7	42.2
창녕군	49.4	67.5	58.4	42.8
고성군	48.9	67.2	58.2	41.4
남해군	51.3	65.6	58.2	45.5
하동군	51.4	65.5	58.3	45.2
산청군	45.6	61.6	53.3	44.4
함양군	49.8	65.4	57.2	45.6
거창군	51.6	66.6	58.9	45.1
합천군	47.5	66.2	56.5	43.6
동남권 전체	46.4	66.7	56.4	41.5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27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구분되었다. 2020년 기준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률은 <표 2-17>과 같다. 동남권 평균 여성 고용률은 46.4% 수준으로 대구경북권(45.7%)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권 내에서는 경남 거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남해군 등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고용률이 높은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 김해시 등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동남권 내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노동시장권은 울산 동구,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부산북부권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남성 고용률이 낮은 경남 산청군, 부산동남권,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남 함양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거창군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취업자수 비중이 낮은 지역노동시장권은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울산 울주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 고영우 외(2023) 등의 연구에서 활용한 '수정된 콤즈 방법론'(Coombes and Bond, 2008)을 활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자들의 시군구 간 통근행렬을 집계하였다. 통계청 및 통계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를 활용하여, 인구총조사 20% 표본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프로젝트고유번호: RAS25080606). 총 250개 시군구 수준에서 통근지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24,011,648명의 취업자 중 10,099,408명의 여성 취업자에 대한 통근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164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138개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윤윤규 외(2012)에서 도출한 2010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75

개)보다는 적게 도출된 것인 반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2015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52개)보다는 많게 설정된 결과이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서울권, 서울동북권, 서울서북권, 서울서부권, 서울서남권, 강동하남권, 인천동부권, 인천서부권, 김포권, 수원시(권), 성남권, 분당권, 의정부권, 안양권, 안산시흥권, 고양권, 파주권, 오산화성권 등 18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12개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된 것에 비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훨씬 좁게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제주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0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권역 내 20개 시군구 지역 모두 각자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제주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0개 모든 시군구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대전동부권, 대전서부권, 청주남부권, 진천음성권, 괴산증평권, 논산계룡권 등 6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협소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천음성권 및 괴산증평권 등 국지적으로 결합 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호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광주동남권, 광주동북권, 광산장성권, 덕진완주권 등 4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었으며,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호남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3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대구북부권, 대구서남권, 수성경산권, 구미칠곡권, 군위의성권 등 5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었으며, 대구광역시와 인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5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후, 2020년에는 이것이 분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동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7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부산서부권, 부산동남권, 부산북부권, 울산중부권, 회원함안권 등 5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복수의 시군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였으며, 동남권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변화가 상당히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였는데, 20~3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44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보다 적은 개수인바, 청년층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40~5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68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수이다. 다만, 초광역권역별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별로 구분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였다. 고졸이하 학력계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총 191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 지역노동시장권보다 상당히 많은 개수인바, 고졸이하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좁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총 128개로 분석됨에 따라,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취업자들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통근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부표 2-1〉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연도별 연계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서울서부권	서울북부권	서울권	서울	용산구				
			서울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리남양주권	구리남양주권		경기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북부권		서울동북권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서울동남권	강동하남권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서남권	서울서부권	서울서부권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				
			서울서남권	인천서부권	인천서부권	경기	부천시	
						인천북부권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남부권	김포권	인천
경기	김포시							
인천동부권	인천동부권	인천동부권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옹진		인천 옹진	인천	옹진군				

〈부표 2-1〉의 계속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인천 강화	인천 강화	인천 강화	인천	강화군
오산화성권	오산화성권	오산화성권	경기	오산시
			경기	화성시
	수원시(권)	수원시(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용인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성남권	분당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성남광주권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광주시
		성남권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의정부양주권	의정부권	의정부권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경기	동두천시
안양과천권	안양권	안양권	경기	포천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과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안산시흥권	안산시(권)	안산시흥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경기	시흥시
고양시(권)	고양시(권)	고양권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파주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파주시	파주시		경기	파주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경기	평택시
용인 처인	용인 처인	용인 처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경기	이천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경기	안성시
여주군	여주시	여주시	경기	여주시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경기	양평군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부표 2-2〉 강원제주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연도별 연계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강원	원주시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태백시	태백시	강원	태백시
속초시	속초시	속초시	강원	속초시
삼척시	삼척시	삼척시	강원	삼척시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횡성군	횡성군	강원	횡성군
영월군	영월군	영월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평창군	평창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강원	정선군
철원군	철원군	철원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화천군	화천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양구군	양구군	강원	양구군
인제군	인제군	인제군	강원	인제군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강원	양양군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부표 2-3〉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연도별 연계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대전 동구	대전동부권	대전동부권	대전	동구
대전 대덕			대전	대덕구
대전서부권	논산계룡권	논산계룡권	대전	중구
논산시			충남	논산시
	대전서부권	대전서부권	충남	계룡시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연기군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청주 흥덕	청주 흥덕	청주남부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상당	청주동부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보은군	충북	보은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원군	청주북부권	청주 청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진천군			진천음성권	충북
음성군	음성군		충북	음성군
괴산군	괴산증평권	괴산증평권	충북	괴산군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충북	제천시
옥천군	옥천군	옥천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영동군	영동군	충북	영동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충북	단양군
천안시(권)	천안시(권)	천안 동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 서북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충남	보령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충남	아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충남	서산시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부여군	부여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서천군	서천군	충남	서천군
청양군	청양군	청양군	충남	청양군
홍성군	홍성군	홍성군	충남	홍성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충남	예산군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충남	태안군
당진군	당진시	당진시	충남	당진시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부표 2-4〉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연도별 연계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광주동남권	광주남부권	광주동남권	광주	동구
광주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동북권	광주동북권	광주	서구
담양군			전남	북구
곡성군		곡성군	전남	담양군
광주 광산	광산장성권	광산장성권	광주	곡성군
장성군			전남	광산구
전주 덕진	덕진완주권	덕진완주권	전남	장성군
완주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완산	전주 완산	전주 완산	전북	완주군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전북	군산시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전북	익산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전북	정읍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전북	남원시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전북	김제시
무주군	무주군	무주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장수군	장수군	전북	무주군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전북	장수군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전북	임실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전북	순창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전북	고창군
목포시	목포영암권	목포시	전남	부안군
영암군		영암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전남	영암군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전남	여수시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구례군	구례군	전남	광양시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보성군	보성군	전남	고흥군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전남	화순군
강진군	강진군	강진군	전남	장흥군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전남	강진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전남	해남군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무안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전남	함평군
완도군	완도군	완도군	전남	영광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전남	완도군
신안군	신안군	신안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부표 2-5〉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연도별 연계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경산시	경산시	수성경산권	경북	경산시
대구동부권	대구권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대구 북부권	대구	동구
대구중부권			대구	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달성		대구서남권	대구	남구
성주군	성주군		대구	달서구
고령군			대구	달성군
군위군		군위의성권	경북	성주군
의성군	의성군		경북	고령군
구미시	구미칠곡권	구미칠곡권	경북	군위군
칠곡군			경북	의성군
포항 남구	포항 남구	포항 남구	경북	구미시
포항 북구	포항 북구	포항 북구	경북	칠곡군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경북	경주시
영주시	영주시	영주시	경북	김천시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경북	안동시
상주시	상주시	상주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경북	영천시
청송군	청송군	청송군	경북	상주시
영양군	영양군	영양군	경북	문경시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경북	청송군
청도군	청도군	청도군	경북	영양군
예천군	예천군	예천군	경북	영덕군
봉화군	봉화군	봉화군	경북	청도군
울진군	울진군	울진군	경북	예천군
울릉군	울릉군	울릉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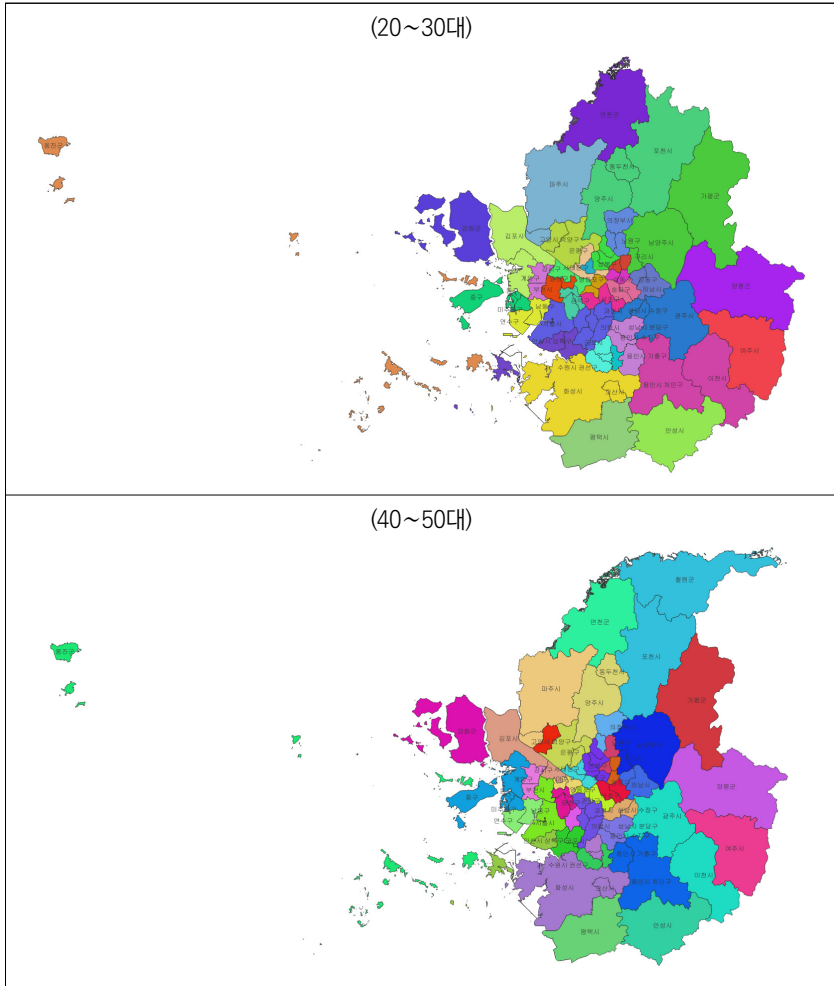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부표 2-6〉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연도별 연계

2010년	2015년	2020년	시도	시군구
부산동남권	부산시(권)	부산서부권	부산	중구
부산서부권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부산동남권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부산북부권		부산북부권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기장			부산	수영구
울산북부권			부산	기장군
	울산중부권	울산중부권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	울산 동구	울산 동구	울산	동구
(구)창원권	울산 울주	울산 울주	울산	울주군
	창원진해권	창원 의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성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 진해		창원 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마산권	마산권	창원 마산합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합안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함안권		경남	함안군
의령군		의령군	경남	의령군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경남	통영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경남	사천시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경남	김해시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경남	밀양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경남	거제시
양산시	양산시	양산시	경남	양산시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경남	창녕군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경남	남해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함양군	함양군	경남	함양군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경남	거창군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경남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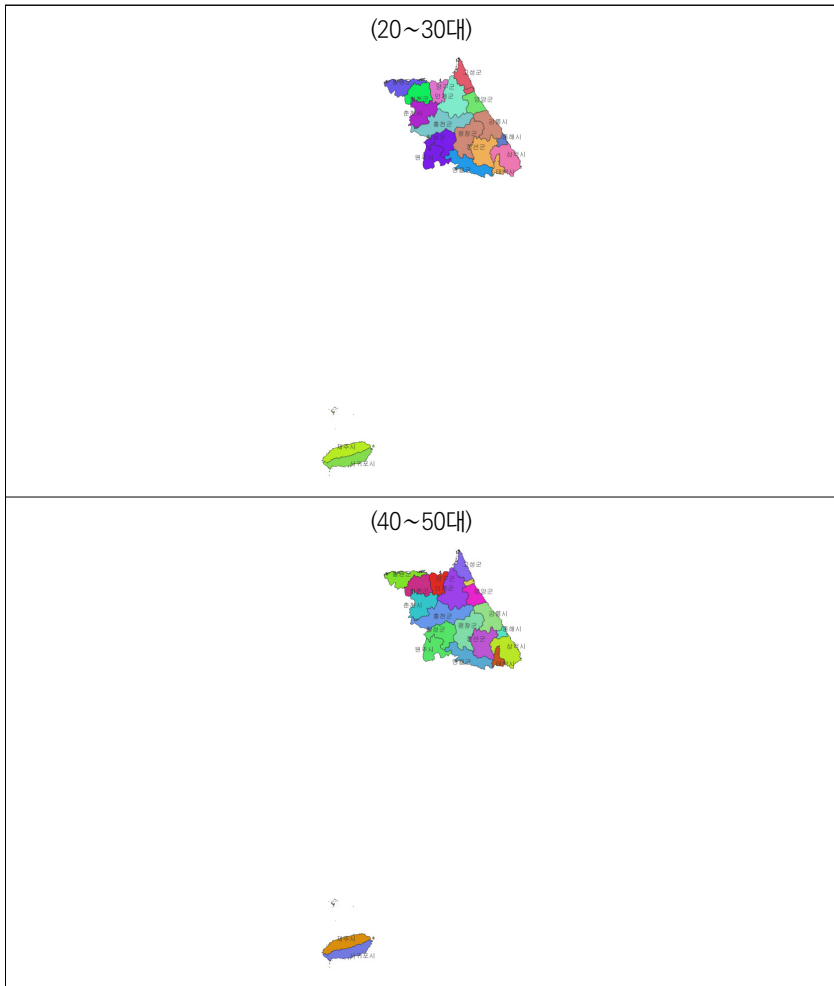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2015년 정보는 각각 윤윤규 외(2012), 고영우 외(2020)에서 인용.

[부도 2-1] 수도권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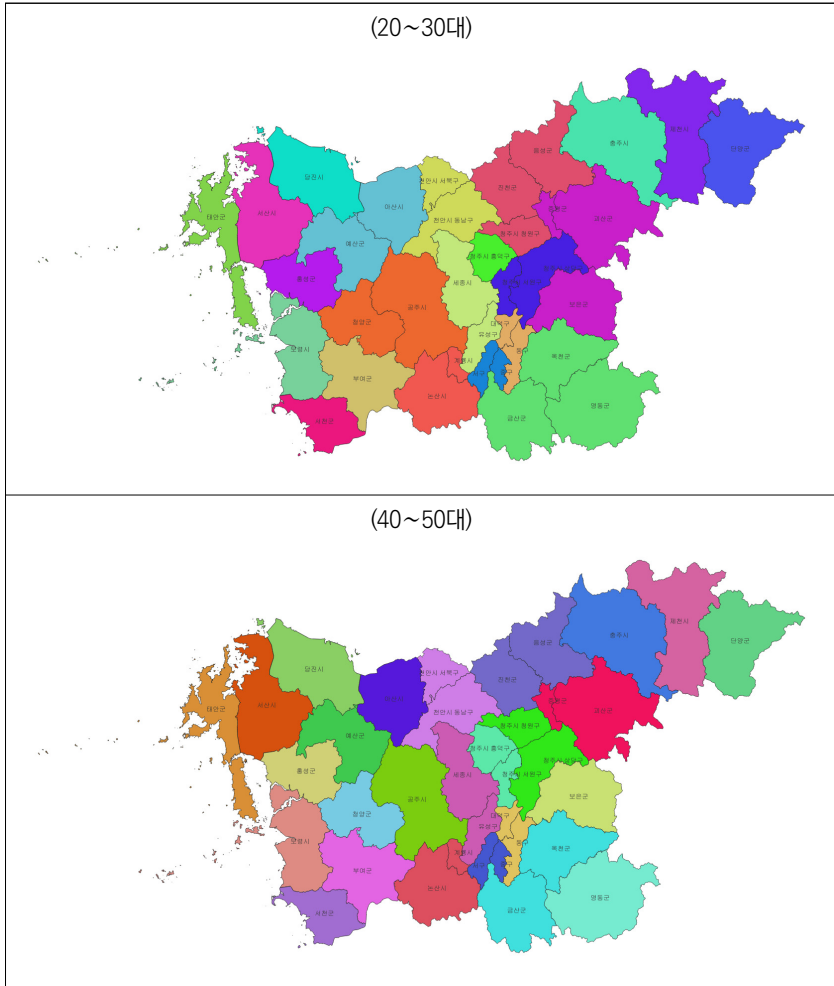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2] 강원제주권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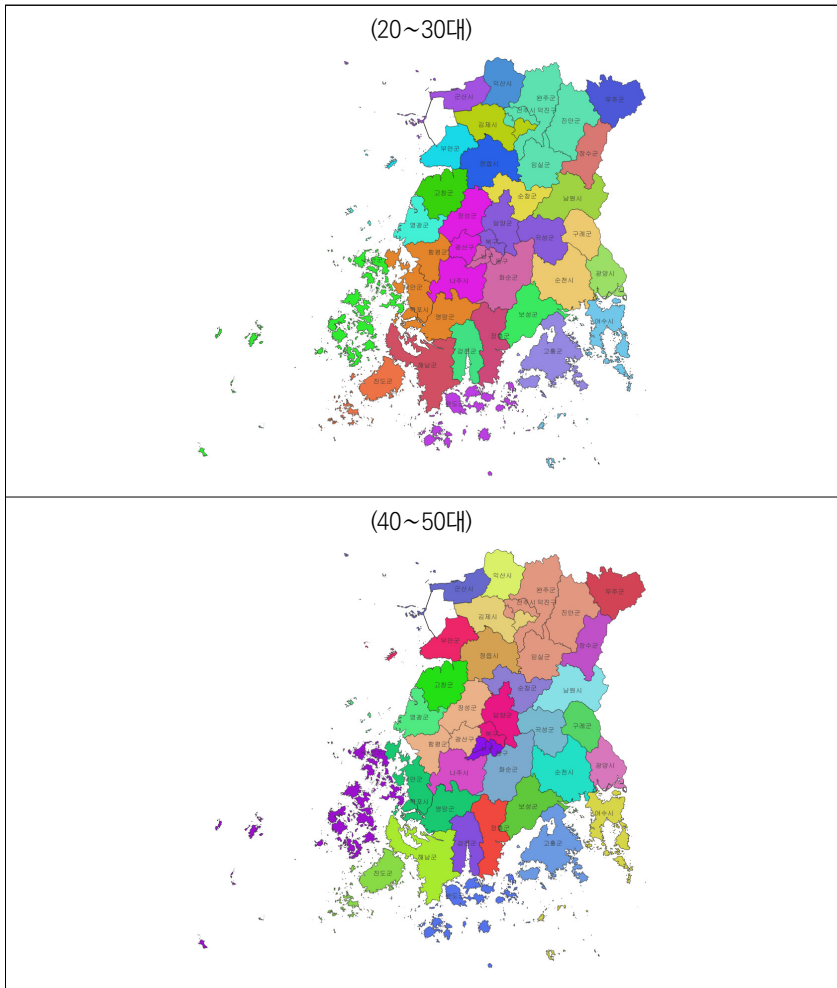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3] 충청권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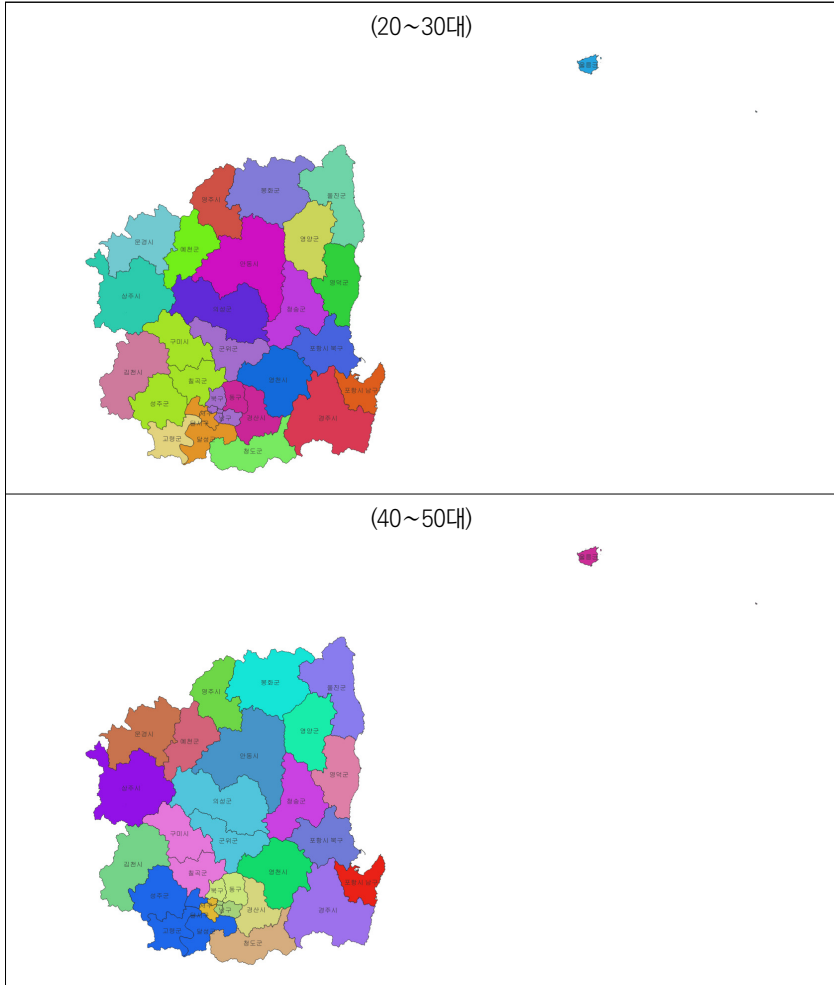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4] 호남권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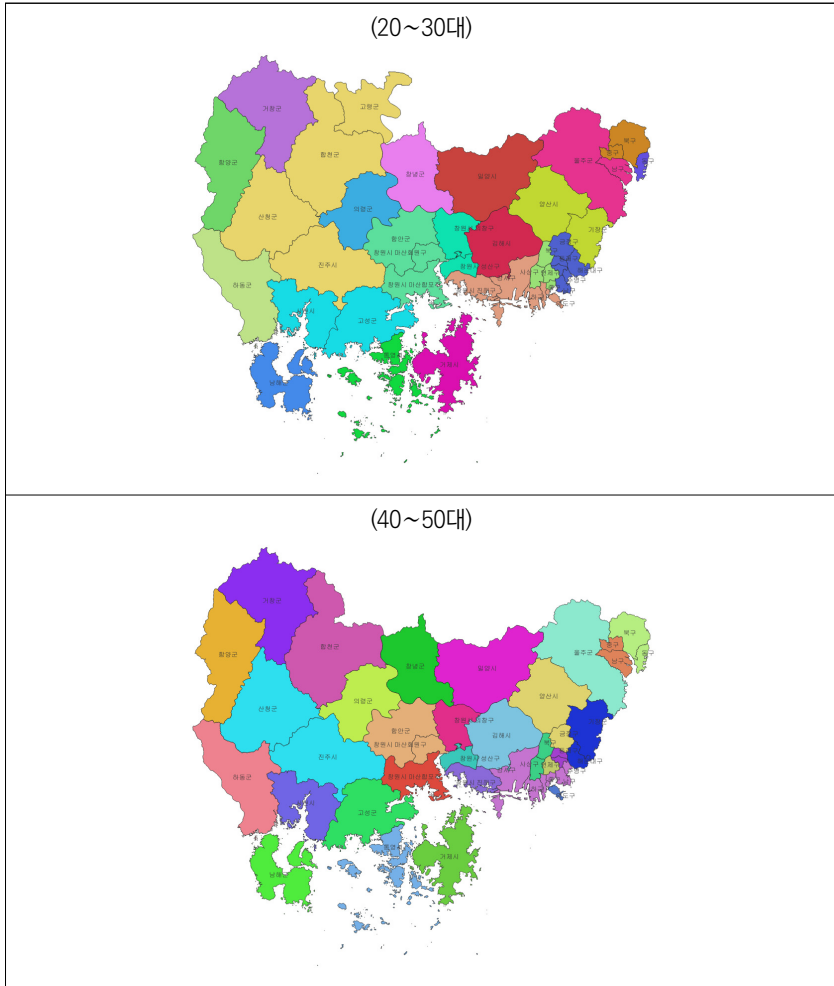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부도 2-5] 대구경북권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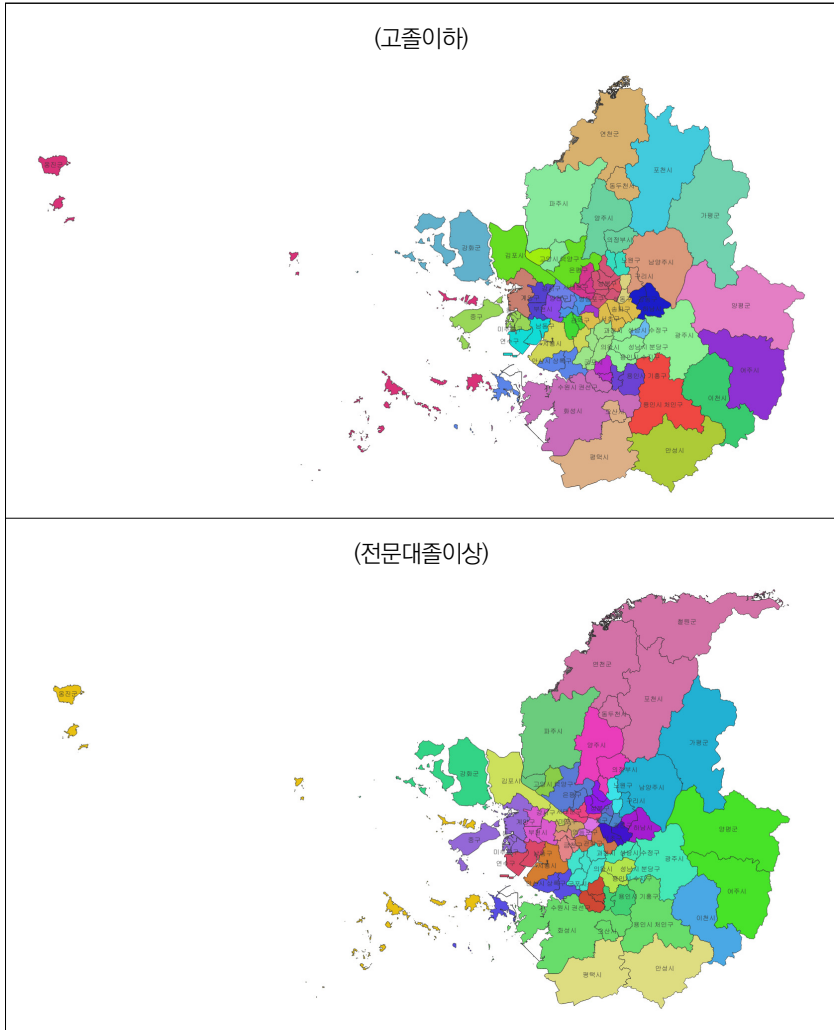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6] 동남권 연령대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7] 수도권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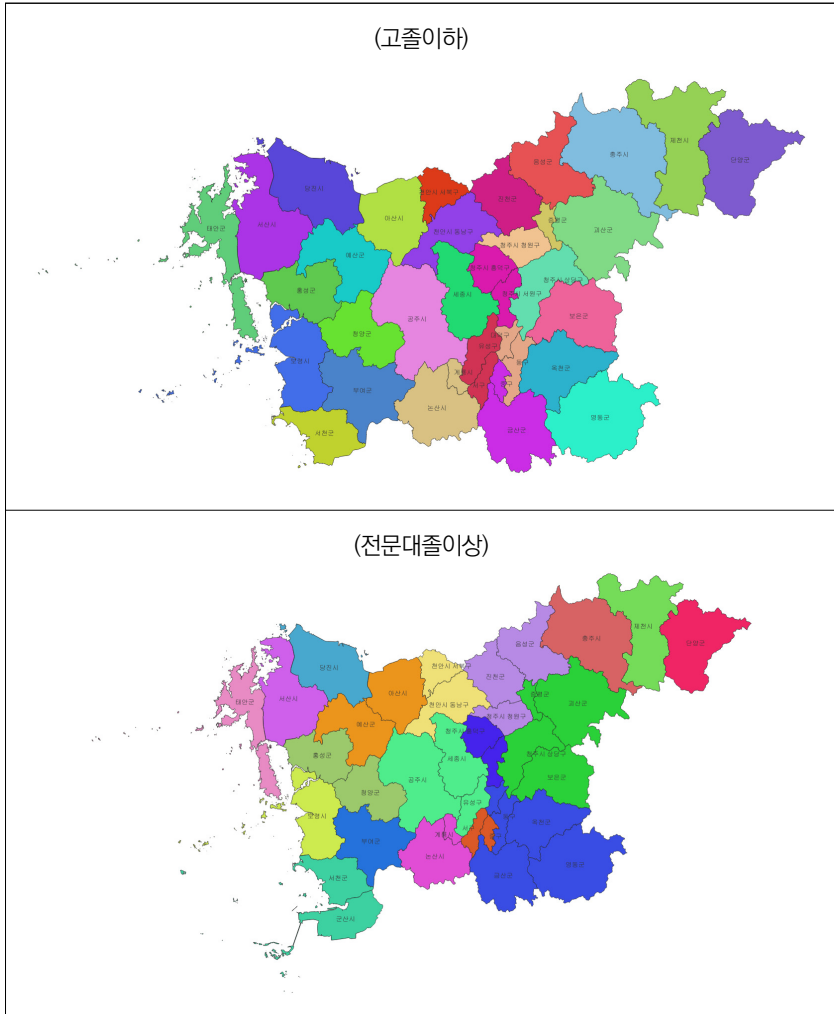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8] 강원제주권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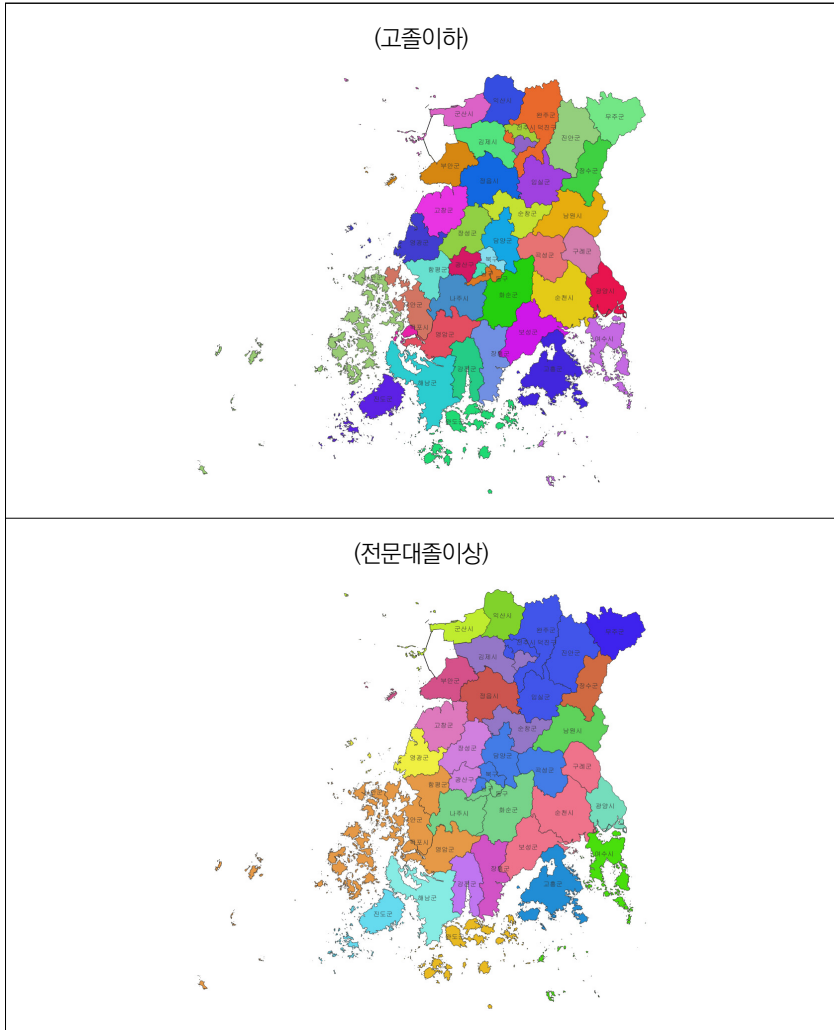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9] 충청권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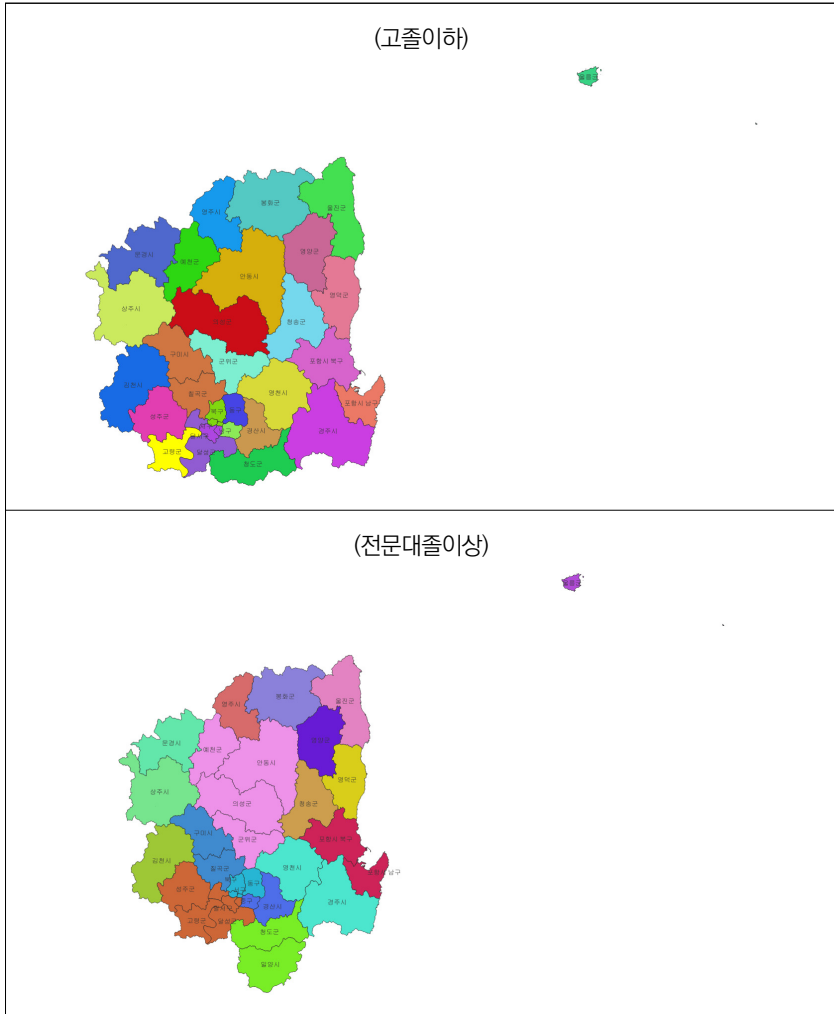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10] 호남권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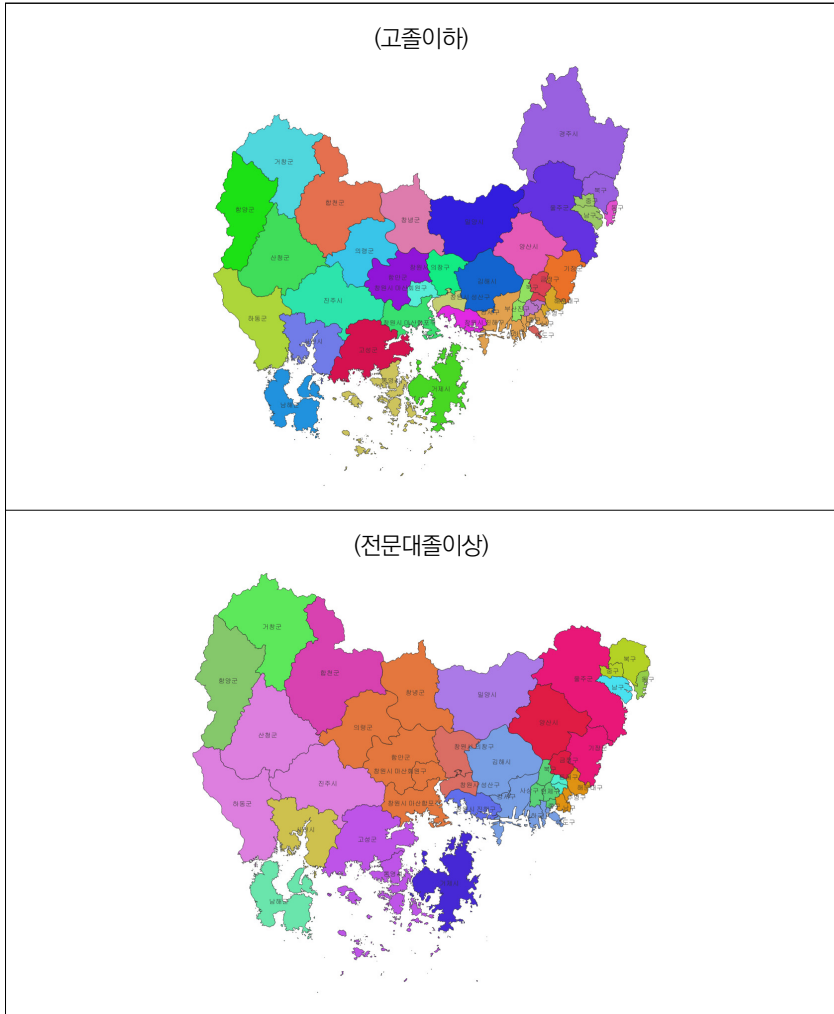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부도 2-11] 대구경북권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부도 2-12] 동남권 학력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2020년)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제 3 장

여성 지역노동시장과 통근 특성의 변화

제1절 분석의 개요

이 장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통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은 여러 이유로 출퇴근 반경이 좁고 통근시간 역시 짧다. 그 결과 지역노동시장 반경도 남성보다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여성이 가구 내 주 돌봄자로서 자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남성 배우자보다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하거나(Hanson and Pratt, 1990; Preston et al., 1993; Goldin, 2021), 이러한 이유의 연장선에서 혹은 일자리의 특성상 여성 일자리가 주로 도심에 분포하거나 대중교통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Hanson and Johnston, 1985).

이는 앞장의 분석에서 제시되었듯 남녀를 통합한 경우의 지역노동시장에 비해 여성 지역노동시장 수가 많고 범위가 좁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표 3-1>은 2010년과 2020년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별 전체(남+여)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2010년의 경우, 남성이 포함된 단일노동시장은 117개, 지역노동시장은 20개로 전체 노동시장 수가 137개이지만, 여성 단일노동시장은 150개로 전체보다 33개 많다. 여성은 역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노동시장 수가 많다는 점도 남성이 포함된 경우보다 지역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3-1〉 전체 및 여성 지역노동시장 수 변화(2010년 및 2020년)

		2010년			2020년			10년간 증감	
		전체	여성	차이	전체	여성	차이	전체	여성
지역	수도권	14	27	13	12	28	16	-2	1
	강원·제주권	20	20	0	19	20	1	-1	0
	충청권	24	31	7	25	28	3	1	-3
	호남권	34	41	7	37	38	1	3	-3
	대구·경북권	24	28	4	22	23	1	-2	-5
	동남권	21	28	7	23	27	4	2	-1
특성	단일노동시장	117	150	33	114	127	13	-3	-23
	지역노동시장	20	25	5	24	37	13	4	12
계		137	175	38	138	164	26	1	-11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20%);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2010년 정보는 윤윤규 외(2012)에서 인용.

다만 10년간 전체 노동시장은 1개 늘어난 반면, 여성 노동시장은 11개가 감소했고, 특히 충청, 호남, 대구·경북권에서 많이 감소했다. 이는 세 지역에서 단일노동시장이 아닌 지역노동시장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10년간 12개가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출퇴근 반경도 넓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세 지역은 남녀를 통합한 경우와, 여성으로 한정된 경우의 지역노동시장 수가 이전보다 적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반면 수도권과 동남권은 여전히 지역노동시장권 수의 차이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여성의 통근 양태와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① 통근환경의 특성과 ② 통근방향이다. ① 대중교통 인프라나 도로 현황, 지역 사업체 변화, 전반적인 고용 수준, 혹은 개인 통근에 관한 상황 변화는 통근방향이 변하지 않더라도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해 ② 통근지역(방향)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통근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분석 내용은 여성 지역노동시장권과 주 통근방향의 변화, 이로 인한 통근시간의 변화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분석한다.

- 첫째, 10년간 지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 둘째,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통근양상 변화
- 셋째,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통근시간 변화

첫째, 지역노동시장 변화는 광역별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의 지역노동시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남녀를 통합 분석한 경우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다만 이는 앞 장에서도 다루는 사항으로, 간략히 통합분석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절의 내용 중 남녀를 통합한 분석의 결과는 고영우 외(2023)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분석의 필요에 따라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영우 외(2023)을 참조하기 바란다.

둘째, 지역노동시장별 통근방향의 변화, 주 통근지와 거주지의 변화 등 통근양상을 분석한다. 통근방향과 지역의 변화는 통근시간의 변화 역시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과 일자리, 거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노동시장 재편에 따라 여성의 통근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를 수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광역권별, 주요 지역노동시장별로 분석한다.

셋째,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시간 증감을 분석한다. 통근양상의 변화는 통근시간의 변화를 수반하지만, 통근양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통근시간은 증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혔듯 통근 수단, 통근환경, 혹은 통근에 관련된 개인 특성의 변화 역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단일노동시장의 통근시간 증감은 통근양상보다는 통근 환경과 수단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노동시장은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일노동시장별, 지역노동시장별 통근시간 증감을 분석해 어떠한 요인이 여성의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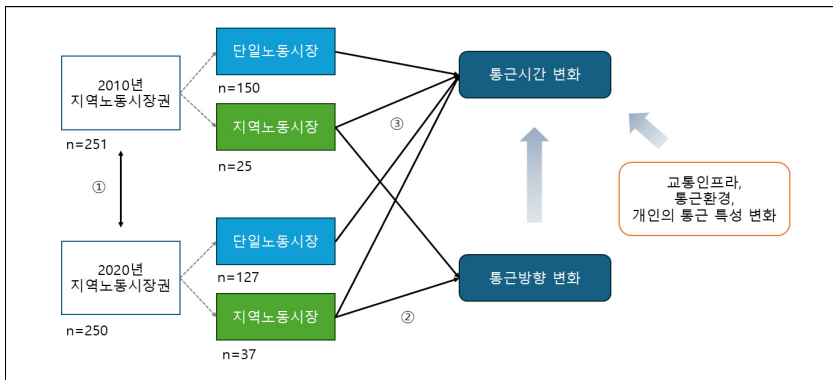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이러한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2010년,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근 집계 자료를 활용한다. 통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자료로는 「지역별고용조사」도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구총조사 자료는 비록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비해 시점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전국 단위 전수조사로 기초지자체의 통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지자체별 평균적인 통근시간과 통근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장의 분석 내용에 적합하다. 다만 2015년은 통근시간 항목이 범주형으로 조사되어 비교에 한계가 있기에, 2010년과 2020년의 통근 특성을 비교분석한다(고영우 외, 2023).

앞 장에서 밝힌 바 있지만, 단일노동시장은 행정 경계와 지역노동시장이 일치하며, 주 통근방향 역시 역내이다. 따라서 단일노동시장은 통근시간 변화와 해당 시군구의 통근시간 변화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은 2010년에도 인천 강화군만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을 형성하였고, 2020년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 강화군 단일노동시장의 평균통근시간은 행정구역인 강화군의 통근시간과 같다. 반면 지역노동시장은 지역노동시장의 평균통근시간과 개별 시군구의 통근시간에 차이가 있고, 주 방향 역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2010년에는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이었으나 2020년에 서울권에 포함된 구리시, 남양주시는 평균통근시간이 서울권 전체의 평균통근시간과 차이가 있으며, 지역노동시장 통합에 따라 주 통근방향 역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 지역노동시장권 통근특성 분석 과정



자료 : 저자 작성.

앞서 <표 3-1>에서 살펴보았지만, 2010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에 포함된 시군구(일반 행정구 포함)는 251곳으로, 이 중 59.7%에 해당하는 150개 시군구는 행정구역과 노동시장 경계가 동일한 단일노동시장이다. 나머지 101개 시군구가 25개의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한다. 반면 2020년은 250개 시군구 중 50.8%인 127개 시군구가 단일노동시장이고, 나머지 123개 시군구가 연결되어 총 37개의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한다.⁴⁾

따라서 분석 절차는 ① 2010년, 2020년 여성 지역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한 후 ② 이 중 복합적인 지역노동시장의 통근양상(통근방향, 주 통근지와 주거지)을 분석한다. 이후 ③ 복합 지역노동시장과 단일노동시장별 통근시간의 증감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통근양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지역노동시장에 속하는 시군구별 주 방향 분석을 수행한다. 지역노동시장 내 개별 시군구의 전체 통근자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통근하는 지역노동시장 내 타 시군구를 주 통근지로 정의하고 산출한 뒤 이를 지적도로 시각화,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한다.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취업자 수의 정도에 따라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을 진한 색, 적은 곳을 연한 색으로 표시하여 시각화하고, 지역노동시장 내 각 지역의 주 통근지로의 통근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다만 단일노동시장도 역외 통근 비율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가시성을 위해 지적도에서 단일노동시장은 생략하였다.

평균통근시간은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각 시군구의 거주지(출발지)-통근지(도착지)별 통근자의 수와 평균통근시간으로 구성된 통근시간행렬(OD Matrix)에서 지역노동시장별, 개별시군구별 평균통근시간을 가중평균(weighted mean)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노동시장권 2010년과 2020년 각각의 가중 평균통근시간을 산출 후, 단일노동시장과 지역노동시장권의 시군구별 평균통근시간 변화를 분석한다.

4) 2016년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폐지(-2)되고 청주시·청원군 통합 후 서원구가 출범(+1)하며 2020년 기준 시군구 수는 250개로 1개 감소하였다. 다만 부천시 3개 일반구 체제는 2024년 1월 다시 적용되었다. 그 외 연기군→세종시 출범, 여주군·당진군 등의 시 승격은 시군구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3절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방향의 변화

1.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변화

〈표 3-2〉는 앞 장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2010년과 2020년 기간 변동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정리한 것이다. 175개 지역노동시장권 중 단일노동시장이면서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변동된 지역노동시장만 정리하였다. 광역별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지역노동시장 변화가 가장 크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북부권에서 도봉구와 노원구가 분화되어 서울동북권을 별도로 형성하고, 서남권 10개 지역(구로, 금천, 동작, 관악 등)이 분리되어 서울권과 서부권으로 통합된 것이다. 용산,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구 등 서울 강남 지역은 서울권으로 통합되었으며, 서남권의 구로, 금천구, 광명시가 별도의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였다. 구리시, 남양주시도 별도의 노동시장에서 서울권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서울서남권에 속하던 부천시 3구는 인천 북부의 부평구, 계양구와 통합되어 인천 북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었고, 기존 인천 북부에 속하던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분리되어 김포권 노동시장을 형성하였다. 수원·용인권 노동시장에서는 용인시 기흥, 수지구가 분리되어 성남 분당구, 광주시와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었고, 수원 권선구가 통합되어 수원시는 하나의 단일한 노동시장으로 재편되었다. 권선구의 분리로 오산·화성시는 두 시로 이루어진 지역노동시장이 되었으며, 분당구를 제외한 성남시의 다른 일반구 2곳(수정, 중원구)도 별도의 성남 지역노동시장으로 변화하였다. 의정부, 양주시에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결합하여 의정부·양주권 지역노동시장이 되었으며, 고양시에서 일산서구가 파주시와 통합하여 별도의 지역노동시장으로 재편되었다.

강원·제주권에 변화가 없는 반면, 충청권은 수도권에 이어 지역노동시장 변화가 활발한 광역 중 한 곳이다. 대전서부권(서구, 유성구, 중구, 계룡시) 중 중구와 계룡시가 분리되었으며, 계룡시는 논산시와 결합해 논산·계

〈표 3-2〉 여성 지역노동시장권 변화(2010년 및 2020년, 변동된 경우)

광역	2010		2020		증감	비고
	지역 노동시장	지역 수	지역 노동시장	지역 수		
수도권	서울북부	10	서울	16	+6	+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리시, 남양주시 - 도봉구, 노원구
			서울동북	2	+2	+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부	4	서울서북	3	-1	- 용산구
	구리·남양주	2		0	-2	-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서남	13	서울서부	3	-10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부천 원미구, 부천 소사구, 부천 오정구, 광명시
			서울서남	3	+3	+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서울동남	3	강동하남	2	-1	- 송파구
	인천북부	4	인천서부	5	+1	+ 부천시(舊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 서구, 김포시
	수원·용인	5	경기 수원시	4	-1	+ 수원 권선구 - 용인 기흥구, 용인 수지구
	오산·화성	3	오산·화성	2	-1	- 수원 권선구
			성남	2	-2	성남 분당구, 광주시
	성남·광주	4	분당	4	+4	+ 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용인 수지구, 광주시
			의정부·양주	2	의정부	4
고양시	3	고양	2	-1	- 고양 일산서구	
파주시	1	파주	2	+1	+ 고양 일산서구	
강원·제주	변동 없음					
충청권	대전서부	4	대전서부	2	-2	- 중구, 계룡시
	논산시	1	논산·계룡	2	+1	+ 계룡시
	대전 동구	1	대전동부	3	+2	+ 중구, 대덕구
	대전 대덕구	1		0	-1	- 대덕구
	연기군	1	세종시	1	0	연기군 → 세종시
	청주 상당구	1	청주남부	3	+2	+ 청주 서원구, 청주 흥덕구
	청주 흥덕구	1		0	-1	- 청주 흥덕구
	진천군	1	진천음성	2	+1	+ 음성군
	음성군	1		0	-1	- 음성군
	괴산군	1	괴산증평	2	+1	+ 증평군
증평군	1		0	-1	- 증평군	

〈표 3-2〉의 계속

광역	2010		2020		증감	비고
	지역 노동시장	지역 수	지역 노동시장	지역 수		
	천안시	2	천안 동남	1	-1	- 천안 서북구
			천안 서북	1	+1	+ 천안 서북구
호남권	광주 북구	1	광주 동북	2	+1	+ 담양군
	담양군	1		0	-1	- 담양군
	광주 광산구	1	광산장성	2	+1	+ 장성군
	장성군	1		0	-1	- 장성군
	전주 덕진구	1	덕진완주	2	+1	+ 완주군
	완주군	1		0	-1	- 완주군
대구· 경북권	대구중부	4	대구북부	3	-1	+ 북구, - 남구, 달서구
	대구 북구	1		0	-1	-북구
	대구 달성군	1	대구서남	5	+4	+ 남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고령군	1		0	-1	- 고령군
	성주군	1		0	-1	- 성주군
	대구동부	2	대구 동구	1	-1	-수성구
	경산시	1	수성경산	2	+1	+수성구
	군위군	1	군위의성	2	+1	+ 의성군
	의성군	1		0	-1	- 의성군
	구미시	1	구미칠곡	2	+1	+ 칠곡군
칠곡군	1		0	-1	- 칠곡군	
동남권	부산서부	7	부산서부	7	0	+ 중구, 서구, 영도구 -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부산동남	3	부산동남	3	0	+ 동구, 부산진구, 남구 -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북부	5	부산북부	6	+1	+ 기장군
	부산 기장군	1		0	-1	- 기장군
	울산북부	2	울산중부	3	+1	+ 남구
	울산 남구	1		0	-1	- 남구
	(구)창원	2	창원 의창구	1	-1	- 창원 성산구
			창원 성산구	1	+1	+ 창원 성산구
	마산	2	회원함안	2	0	+ 함안군 -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	1	+1	+ 창원 마산합포구
함안군			0	-1	- 함안군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룡권을, 중구는 대덕구와 함께 동구와 결합하여 동부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였다. 청주는 전체 노동시장 변화와 유사하게 청원군 통합, 지역 산업시설 유치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재편이 활발한 지역으로 청주 상당구에 서원구, 흥덕구가 결합하여 청주 남부 노동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진천과 음성, 괴산과 증평이 각각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였다. 천안시는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에서 각각 개별적인 단일노동시장으로 분화하였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와 전주의 지역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남녀를 통합한 전체 지역노동시장 변화와 유사하다. 광주 북구와 담양군이 통합하여 광주 동북권을 형성하고, 광산구와 장성군이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전주 덕진구는 완주군과 결합해 지역노동시장이 되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중부(중구, 서구, 남서구, 달서구) 지역노동시장에 북구가 통합되어 북부 노동시장을 형성한 반면, 남구와 달서구가 분리되어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과 함께 별도의 서남권 노동시장을 형성하였고, 동부(동구, 수성구)에서 수성구가 분리되어 경산시와 수성·경산권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군위군은 의성군과, 구미시는 칠곡군과 결합해 각각 군위·의성권, 구미·칠곡권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동남권의 부산서부권은 지역노동시장에 속한 자치구 수는 동일하지만 구성이 변경되었다. 기존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외에 동남권의 중구, 서구, 영도구가 통합된 반면, 기존 북부의 동구, 부산진구, 남구가 동남권으로 재편되어 중구-서구-영도구, 동구-부산진구-남구가 맞교환되는 형태가 되었다. 한편 북부(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에 기장군이 통합되어 북부 지역노동시장은 6개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울산에서는 울산 북부(중구, 북구)에 남구가 통합되어 울산중부권으로 재편되었으며, (구)창원권에서는 의창구와 성산구가 별개의 단일노동시장으로 분리되었다. 마산권에서 마산합포구가 분리되어 단일노동시장이 되었으며, 마산회원구가 함안군과 통합되어 회원함안권을 형성하였다.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여성만으로 한정된 분석을 비교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여성 지역노동시장 변화는 남부지방(호남, 대구·경북, 동남권)보다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

진다. 전체 지역노동시장 변화(고영우 외, 2023)는 수도권이 가장 활발하긴 하였으나 강원·제주 권역의 원주·횡성권 출현이나 충청권의 대전서부·세종권 출범 등 비수도권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관찰된 반면,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수도권의 변화에 비해 비수도권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젊은 여성이 취업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수도권에서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여성의 지역노동시장 범위는 전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보다 좁다. 수도권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권과 경기 남부 등 보다 광역화된 지역노동시장이 활발한 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도 기본적으로는 서울, 경기 남부의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서울, 서울동북, 서울서북, 서울서부, 서남, 강동하남, 경기 수원시, 성남분당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부산도 전체 분석 시에는 부산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것과 다르게 부산서부, 동남, 북부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여성이 양육, 가사 부담 등의 사유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분석 시 나타난 원주횡성권이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논산·계룡권, 괴산·증평권이 출현한 것, 천안권이 분리된 것 등은 2010년에 해당 권역이 있다 분리되었거나 천안서부아산권이 출현한 전체 분석과는 다른 현상인데, 이는 지역의 일자리 구성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역내에서 여성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인근으로 이동하는 일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2. 통근방향 기초통계

〈표 3-3〉은 2010년 및 2020년 시군구별 통근자 비율의 기술통계로, 남녀 전체의 비율과 여성으로 한정할 때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통근자 비율은 시군구별 전체 취업자 중 역내·외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의 백분율(%)이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역내 통근자 비율이 높고, 역외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여성의 역내 통근자 비율이 전체와 비교했을 때 더 높다. 2010년과 2020년 역내 전체 통근자 비율 평균은 74.0%와 73.3%인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각각 79%와 77%를 보여 전체와 비교할 때 각각 5%p, 3.7%p

높다. 이는 여성의 직장이 남성보다 거주지에서 가깝고, 따라서 역외 이동보다는 역내 통근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반면 역외 통근자 비율은 역내보다 훨씬 낮다. 2010년과 2020년 모두 0.3~0.4% 정도이다. 이 역시도 여성의 비율이 0.1%p가량 낮다. 이는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으나 이러한 경우가 간혹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서울시 종로구의 역내 여성 통근자 비율은 61.0%로, 역외 통근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인근의 중구로 7.8%이고, 이어서 강남구(4.5%), 영등포구(2.2%), 성동구(2.2%) 등의 순이다. 그 외에 서울시 각 자치구 및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및 인천, 충청권으로 통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의 비율이 대체로 0.01~1% 내외이기 때문에 역외 통근자 비율의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

〈표 3-4〉는 역외 통근자가 많은 상위 20개 지역의 연도별 통근 비율을 보여준다. 역외 통근자 평균 비율이 0.3%임을 고려하면 〈표 3-4〉의 지역은 역외 통근 비율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첫째,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수도권 집중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2010년에는 상위 20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서울 자치구 간 통근인 반면 3곳이 수도권 내 이동, 충청권(대전) 2개 지역, 동남권(울산) 1개 지역이다. 2020년에는 서울 자치구 간 통근은 12개 지역으로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내 이동이 6개 지역, 충청권 2개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1개가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중 경기도 내 이동이 역외 통근 상위 지역으로 등장하였다.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고영우 외(2023)에서

〈표 3-3〉 연도별 역내 통근자와 역외 통근자의 비율, 전체와 여성 비교

	2010년					2020년				
	obs	전체		여성		obs	전체		여성	
		M	sd	M	sd		M	sd	M	sd
역내	251	0.74	0.22	0.79	0.19	250	0.73	0.19	0.77	0.18
역외	17,323	0.004	0.01	0.003	0.01	16,804	0.004	0.01	0.003	0.01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다루었듯 전체 지역노동시장 변화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여성의 상위 통근지역은 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기회는 여전히 대도시, 서비스산업 밀집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면서, 여성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직주분리 경향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지역은 강남구로, 2010년과 2020년 모두 강남구는 역외 통근자가 가장 많이 출근하는 지역이다. 송파, 관악, 양천, 서초, 강동구 등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 강남구로 출근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2020년에도 동일하다. 2010년에는 강남구 외에도 영등포, 송파, 서초, 종로, 중구 등 다른 도심으로의 통근자도 적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이 상위 통근지역으로 올라오면서 2020년에는 종로 및 중구와 같은 강북 지역 도심의 통근자가 감소한 반면, 강북에서는 마포구의 통근자 수가 증가하였다.

셋째, 수도권 및 충청 일부 지역의 역외 통근자 수가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서울 외 상위 통근 지역이 안산, 대전, 울산이었으나 2020년에는 천안-아산, 오산-화성, 수원-화성, 경기 광주-분당, 용인-분당 등 경기 남부-충청 북부 지역의 통근권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산업입지 확대와 이에 따른 정주민구 증가, 여성 제조·서비스직의 진입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 노동시장이 서울 내부 집중과 동시에, 지역 간 통근권 확장도 같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생활권 기반의 역외 통근(거점-위성도시)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절대적인 통근자 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교통 접근성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가까운 동네 일자리 중심이 여전히 주를 이루겠지만, 통근이 필요한 정규·전문직 일자리의 비율도 증가하였음은, 이를 뒷받침할 교통 접근성 및 노동 유연성 변화가 수반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0년의 일자리 중심인 강남 및 서초는 백화점, 사무, 의료, 교육 등 화이트칼라 서비스업 중심 일자리였다면, 2020년의 분당, 화성, 대전 유성 등은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 산업의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표 3-4〉 연도별 여성 역외 통근자가 많은 지역(상위 20개 지역)

	2010년				2020년			
	거주지	출근지	출근자 수(명)	통근비율 (%)	거주지	출근지	출근자 수(명)	통근비율 (%)
1	서울 송파구	서울 강남구	16,270	14.1	서울 송파구	서울 강남구	19,794	13.8
2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12,552	12.7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16,897	14.4
3	서울 양천구	서울 강남구	10,319	14.3	서울 광진구	서울 강남구	12,683	15.3
4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9,781	14.4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10,403	12.2
5	안산 상록구	안산 단원구	9,290	15.5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10,271	10.7
6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8,613	9.8	서울 강동구	서울 송파구	10,248	10.8
7	서울 강동구	서울 강남구	8,519	10.0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10,172	8.7
8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8,406	8.2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9,909	15.6
9	서울 강동구	서울 송파구	8,365	9.8	경기 광주시	성남 분당구	9,694	12.7
10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8,245	11.8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9,200	9.0
11	울산 중구	울산 남구	8,001	22.9	수원 권선구	경기 화성시	9,089	11.8
12	서울 동작구	서울 강남구	7,877	11.0	서울 동작구	서울 강남구	9,020	10.3
13	성남 분당구	서울 강남구	7,830	11.5	천안 서북구	충남 아산시	8,873	11.0
14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7,773	7.9	경기 오산시	경기 화성시	8,820	19.0
15	대전 서구	대전 중구	7,399	8.4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8,739	6.8
16	서울 중랑구	서울 강남구	7,114	9.1	서울 중랑구	서울 강남구	8,589	10.4
17	서울 성북구	서울 종로구	7,061	8.8	서울 강동구	서울 강남구	8,220	8.7
18	서울 성동구	서울 강남구	7,039	12.8	성남 분당구	서울 강남구	7,985	8.8

〈표 3-4〉의 계속

	2010년				2020년			
	거주지	출근지	출근자 수(명)	통근비율 (%)	거주지	출근지	출근자 수(명)	통근비율 (%)
19	서울 성북구	서울 중구	6,725	8.4	서울 성동구	서울 강남구	7,869	12.2
20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6,673	8.6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7,707	7.8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표 3-5〉 연도별 역내 통근자가 적은 지역(하위 20개 지역)

	2010년			2020년		
	지역	역내 통근자 수(명)	통근 비율 (%)	지역	역내 통근자 수(명)	통근 비율 (%)
1	서울 동작구	28,272	39.6	경기 과천시	3,692	33.8
2	경기 과천시	4,657	43.3	경기 의왕시	13,306	40.1
3	서울 도봉구	26,935	44.2	용인 수지구	25,998	41.0
4	서울 관악구	43,781	44.3	서울 광진구	34,800	41.9
5	경기 의왕시	10,148	44.8	서울 관악구	49,478	42.2
6	경기 광명시	24,808	44.8	서울 동작구	37,542	42.8
7	서울 성동구	24,723	45.1	서울 은평구	43,916	44.2
8	서울 광진구	32,601	45.2	서울 도봉구	29,584	45.6
9	서울 성북구	36,287	45.3	서울 강북구	29,000	46.2
10	서울 서대문구	25,585	46.3	경기 광명시	28,503	46.7
11	서울 구로구	34,387	47.0	서울 성동구	30,264	47.1
12	용인 수지구	16,953	47.3	서울 중랑구	39,199	47.4
13	서울 양천구	37,058	47.7	수원 장안구	25,545	47.5
14	서울 마포구	35,483	48.1	서울 노원구	48,128	47.7
15	서울 노원구	45,699	48.2	서울 구로구	45,166	47.9
16	서울 강북구	28,582	48.3	서울 양천구	42,741	47.9
17	서울 은평구	40,008	48.4	서울 서대문구	33,209	48.9
18	서울 용산구	20,217	48.5	성남 수정구	26,163	49.1
19	서울 중랑구	37,836	48.5	서울 성북구	43,892	49.2
20	인천 동구	5,777	48.5	서울 마포구	42,481	49.3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반면 <표 3-5>는 역내 통근자 비율이 낮은 지역의 연도별 통근 비율을 보여준다. 역외 통근의 경우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근자 수를 눈여겨봐야 하지만, 역내 통근은 지역별 인구가 다르기에 비율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내 통근자 비율이 적은 지역들은 <표 3-3>의 역내 통근자 평균인 77~79%보다 20~30%p가량 낮다. 역내 통근자가 적은 지역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역외 통근자가 많은 지역과 비교할 때 특징은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진다. 역외 통근 상위 지역은 대전 서구-유성구, 서구-중구, 인천 남구(現 미추홀구)-남동구, 용인 수지·경기 광주-분당 등 서울 외 각 지역의 일자리 중심지와 관련되어 있었으나, <표 3-5>의 지역은 경기 과천, 의왕, 광명 및 서울시 내 자치구가 주를 이룬다. 이는 수도권의 직주분리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5>의 지역은 대부분 역내에 대규모 사업체나 산업기반시설이 많지 않고 인접 시군구에 일자리나 산업 중심지가 있는 경우이다.

3.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방향 변화 분석

가. 수도권

<표 3-6>은 2020년 기준 수도권 지역노동시장의 시군구별 주 통근지와 역내·외 취업자 수 및 역외 통근자 비율(%), 총 취업자 수 증감과 역외 통근자 비율의 증감(%p)을 보여준다. 표를 보면 앞서 2절에서 살펴본 지역노동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주 통근지의 변화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구리시, 남양주시는 2010년 별도 지역노동시장에서 2020년 서울권으로 통합되었으나 주 통근지에는 변화가 없고, 동작구와 관악구도 서울 서부권에서 서울권으로 통합되었으나 10년 전에도 주 통근지는 강남구였다. 다만 용산구는 10년 전 중구가 주 통근지였으나 2020년에는 강남구로, 도봉구는 강북구에서 노원구로,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중구에서 마포구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적 변화가 서울권 전체 지역노동시장권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설명한 지역노동시장권 분류 방식의 특성상 일부 지역의 통근방향 변화가 전체 지역노동시장권 구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3-6)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지역이 주 통근지가 변화한 경우이며, 해당 지역의 변화가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 재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노동시장권 재편과 별도로 <표 3-6>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천 동구와 성남 중원구를 제외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노동시장은 여성 총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첫째,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더해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된 여성 일자리 특성상 후술할 다른 광역권보다 수도권은 취업자 증가 수가 큰 편이다. 둘째, 일자리 이동이 주로 청장년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취업자 수의 전반적인 증가는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이 이를 뒷받침한 사회적 변화, 노동시장 제도 변화를 반영한다.

<표 3-6> 수도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¹⁾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³⁾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A)	역외(B)			역내(A)				역외(B)
서울권	종로구	중구	17,134	11,506	40.2	중구	19,277	12,334	39.0	2,971	-1.2
	중구	강남구	15,634	8,706	35.8	강남구	17,267	11,600	40.2	4,527	4.4
	용산구	중구	20,217	21,493	51.5	강남구	24,707	24,481	49.8	7,478	-1.7
	성동구	강남구	24,723	30,066	54.9	강남구	30,264	33,980	52.9	9,455	-2.0
	광진구	강남구	32,601	39,480	54.8	강남구	34,800	48,188	58.1	10,907	3.3
	동대문구	강남구	33,450	29,956	47.2	강남구	37,443	33,172	47.0	7,209	-0.2
	중랑구	강남구	37,836	40,212	51.5	강남구	39,199	43,559	52.6	4,710	1.1
	성북구	종로구	36,287	43,895	54.7	종로구	43,892	45,263	50.8	8,973	-3.9
	강북구	중구	28,582	30,645	51.7	중구	29,000	33,710	53.8	3,483	2.1
	동작구	강남구	28,272	43,088	60.4	강남구	37,542	50,072	57.2	16,254	-3.2
	관악구	강남구	43,781	55,108	55.7	강남구	49,478	67,900	57.8	18,489	2.1
	서초구	강남구	34,527	33,525	49.3	강남구	44,793	40,599	47.5	17,340	-1.8
	강남구	서초구	67,936	34,362	33.6	서초구	69,573	38,773	35.8	6,048	2.2
	송파구	강남구	62,621	52,789	45.7	강남구	76,754	66,654	46.5	27,998	0.8
	구리시	남양주시	17,349	14,978	46.3	남양주시	19,400	19,770	50.5	6,843	4.2
	남양주시	구리시	48,765	31,782	39.5	구리시	77,095	51,609	40.1	48,157	0.6
서울 동북	도봉구	강북구	26,935	33,961	55.8	노원구	29,584	35,268	54.4	3,956	-1.4
	노원구	강남구	45,699	49,073	51.8	강남구	48,128	52,689	52.3	6,045	0.5

<표 3-6>의 계속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A)	역외(B)			역내(A)				역외(B)
서울 서북	은평구	중구	40,008	42,605	51.6	마포구	43,916	55,392	55.8	16,695	4.2
	서대문구	중구	25,585	29,677	53.7	마포구	33,209	34,747	51.1	12,694	-2.6
	마포구	중구	35,483	38,254	51.9	중구	42,481	43,746	50.7	12,490	-1.2
서울 서부	양천구	영등포구	37,058	40,687	52.3	영등포구	42,741	46,540	52.1	11,536	-0.2
	강서구	영등포구	52,562	50,081	48.8	영등포구	72,845	56,372	43.6	26,574	-5.2
	영등포구	강남구	37,740	33,603	47.1	강남구	51,194	42,148	45.2	21,999	-1.9
서울 서남	구로구	영등포구	34,387	38,742	53.0	영등포구	45,166	49,219	52.1	21,256	-0.9
	금천구	영등포구	25,424	18,538	42.2	구로구	31,531	24,008	43.2	11,577	1.0
	광명시	금천구	24,808	30,574	55.2	금천구	28,503	32,473	53.3	5,594	-1.9
강동 하남	강동구	강남구	44,226	40,947	48.1	송파구	48,566	46,219	48.8	9,612	0.7
	하남시	강동구	13,820	10,063	42.1	강동구	28,433	27,947	49.6	32,497	7.5
인천 동부	중구	미추홀구	10,987	3,764	25.5	미추홀구	21,626	6,355	22.7	13,230	-2.8
	동구	미추홀구	5,777	6,126	51.5	미추홀구	7,110	4,771	40.2	-22	-11.3
	연수구	남동구	24,415	18,970	43.7	남동구	47,081	29,326	38.4	33,022	-5.3
	남동구	미추홀구	49,849	26,417	34.6	연수구	64,832	39,669	38.0	28,235	3.4
인천 서부	미추홀구	남동구	40,408	29,290	42.0	남동구	48,266	30,102	38.4	8,670	-3.6
	부평구	남동구	53,740	34,591	39.2	부천시	58,489	44,184	43.0	14,342	3.8
	계양구	부평구	31,683	23,969	43.1	부평구	34,917	26,506	43.2	5,771	0.1
	부천시					영등포구	110,307	67,558	38.0	-	-
김포	인천서구	부평구	41,505	19,945	32.5	김포시	70,265	35,747	33.7	44,562	1.2
	김포시	강서구	26,259	9,455	26.5	강서구	55,521	30,455	35.4	50,262	8.9
수원	장안구	팔달구	25,590	18,794	42.3	팔달구	25,545	28,256	52.5	9,417	10.2
	권선구	화성시	26,813	24,449	47.7	화성시	39,634	37,163	48.4	25,535	0.7
	팔달구	장안구	21,986	17,249	44.0	영통구	23,908	16,261	40.5	934	-3.5
	영통구	화성시	24,388	15,929	39.5	화성시	40,319	33,500	45.4	33,502	5.9
성남	수정구	분당구	21,101	22,355	51.4	분당구	26,163	27,085	50.9	9,792	-0.5
	중원구	분당구	28,812	19,248	40.0	분당구	29,212	18,175	38.4	-673	-1.6
분당	분당구	강남구	35,689	32,160	47.4	강남구	49,855	40,433	44.8	22,439	-2.6
	기흥구	분당구	29,689	20,239	40.5	분당구	42,185	36,858	46.6	29,115	6.1
	수지구	분당구	16,953	18,856	52.7	분당구	25,998	37,488	59.0	27,677	6.3
	광주시	분당구	27,367	10,679	28.1	분당구	43,908	32,605	42.6	38,467	14.5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시	41,886	25,845	38.2	양주시	52,852	39,293	42.6	24,414	4.4
	동두천시	양주시	10,645	4,301	28.8	양주시	11,108	6,235	36.0	2,397	7.2
	양주시	의정부시	20,584	9,386	31.3	의정부시	27,141	15,003	35.6	12,174	4.3
	포천시	의정부시	23,151	2,034	8.1	의정부시	24,633	3,308	11.8	2,756	3.7

〈표 3-6〉의 계속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A)	역외(B)			역내(A)	역외(B)			
안양	만안구	동안구	24,176	21,526	47.1	동안구	25,577	24,225	48.6	4,100	1.5
	동안구	만안구	29,338	29,020	49.7	강남구	33,230	28,822	46.4	3,694	-3.3
	과천시	강남구	4,657	6,099	56.7	서초구	3,692	7,219	66.2	155	9.5
	군포시	동안구	23,123	20,622	47.1	동안구	29,149	28,063	49.1	13,467	2.0
	의왕시	동안구	10,148	12,521	55.2	동안구	13,306	19,868	59.9	10,505	4.7
안산 시흥	상록구	단원구	37,711	22,416	37.3	단원구	44,826	26,493	37.1	11,192	-0.2
	단원구	시흥시	43,851	13,321	23.3	시흥시	55,839	17,517	23.9	16,184	0.6
	시흥시	단원구	46,471	15,883	25.5	단원구	70,248	34,934	33.2	42,828	7.7
고양	덕양구	일산동구	34,842	25,196	42.0	일산동구	48,384	45,140	48.3	33,486	6.3
	일산동구	파주시	28,082	16,268	36.7	파주시	35,975	24,486	40.5	16,111	3.8
파주	일산서구	파주시	23,971	15,830	39.8	파주시	33,043	24,488	42.6	17,730	2.8
	파주시	일산동구	43,525	11,629	21.1	일산동구	62,335	23,821	27.6	31,002	6.5
오산 화성	오산시	화성시	16,337	12,405	43.2	화성시	25,216	21,320	45.8	17,794	2.6
	화성시	팔달구	57,109	18,071	24.0	영통구	110,221	50,302	31.3	85,343	7.3

주 : 1) 음영은 주 통근지가 변경된 경우임.

2) 역외 통근자 비율 : 시군구 총 여성 취업자(A+B) 중 역외(B)의 상대비로 $(B/(A+B)) * 100$ 임.

3) 역외 통근자 증감 : 2020년도 역외 비율에서 2010년도 역외 비율을 뺀 값.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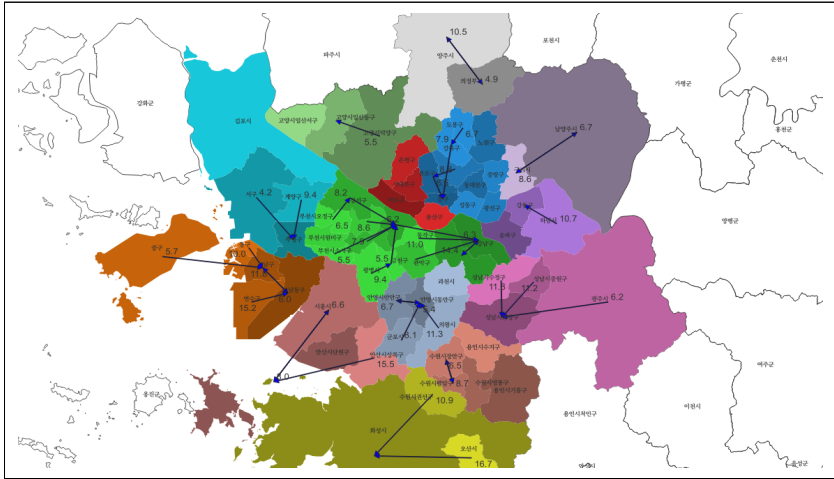
전반적인 취업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증가 폭에는 지역 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를 비교하면 ① 취업자 수와 역외 통근자 비율 모두 증가한 지역, ②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역외 통근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지역, ③ 취업자 수와 역외 비율 모두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수원 영통구, 고양 덕양구 등인데, 지난 10년간 수원, 분당, 평택 등 주요 산업시설 구축과 함께 인근 배후지로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경기 남부의 산업 인근지역으로서 직주분리 경향이 나타난다. ②는 서울 광진구, 송파구,

경기 남양주시, 인천 서구, 성남 분당구 등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공급되었지만 이미 기존 통근지와 노동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기에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지역 노동시장 중심인 경우에 속한다. ③은 종로, 중구, 강북구, 강남구 등 주로 서울 내 자치구로 구도심이거나 일자리 중심지로 일부 지역은 직주근접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지역의 특성에 해당한다. 즉 ①의 산업 인접지역으로 직주분리가 큰 지역은 주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 ②는 기존 지역노동시장 중심으로 서울 일부와 경기 일부 지역, ③은 기존 주거지역 내지 이미 일자리 중심인 경우로 주로 서울 자치구 내로, 수도권은 직주분리와 직주근접이 혼재하여 나타나지만 전자의 경향은 주로 비서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영우 외(2023)에서 밝힌 전체 지역노동시장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표 3-6>은 주 통근지 한 지역만 확인할 수 있고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그림 3-2]와 [그림 3-3]을 통해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 변화와 통근방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지역노동시장 내 시군구 색의 농도는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취업자 수의 비중을 정규화하여 나타낸 것이기에, 이를 통해 각 지역노동시장별 일자리 중심지를 알 수 있다. 두 그림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경기·인천은 인천 남동구, 서구, 성남 분당, 수원 영통구, 경기 화성시, 파주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화한 반면,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와 마포구로의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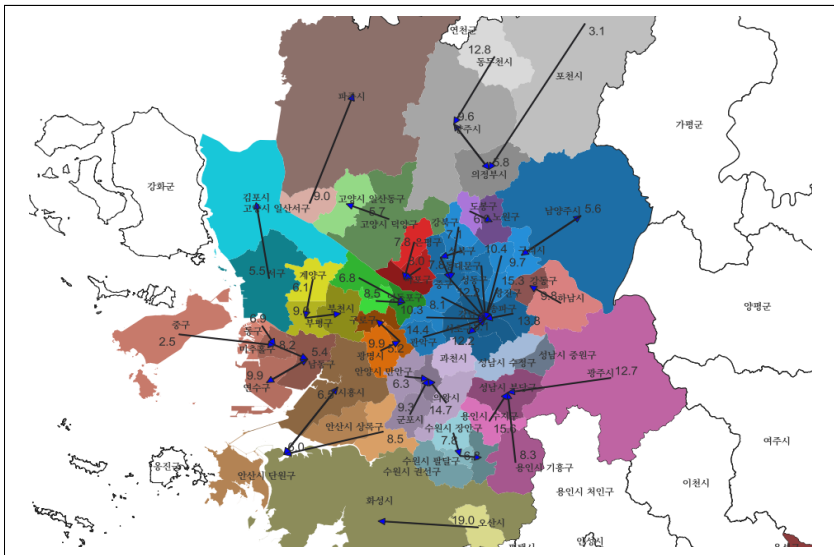
강남 3구 중 특히 강남구로의 집중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노원, 광진, 성동, 동대문구 등 강북 지역의 통근지가 역내 혹은 중구에서 강남으로 바뀐 데 기인하며, 이는 고영우 외(2023)에서도 살펴보았듯 중구를 비롯한 전통적인 강북의 일자리 중심지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중구의 2010~2020년 기간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율은 31.5%, 7.2%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국 사업체조사 2010년, 2020년; 고영우 외(2023 : 83)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중구의 여성 일자리가 소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강남구에 가장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북권의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은 같은 지역노동시장으로 분류

[그림 3-2] 2010년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그림 3-3] 2020년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되었어도 역내 통근 경향이 강하였는데 마포구로 일자리 중심이 변화했으며, 이는 서울 서북권과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직주분리 경향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일자리의 감소와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분당구는 10년 전에는 주로 성남 시 내 다른 지역에서 주로 통근하였으나 2020년에는 용인이 주 거주지로 변화한 점, 수원 영통구도 팔달구에서의 유입이 커진 것 역시 이와 유사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 충청권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방향의 변화는 크게 1) 천안의 변화 2) 청주·청원군 통합 이후 청주 및 인근 지역 재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고영우 외(2023)에서 정리한 전체 노동시장과 비교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이에 따른 대전권 지역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대전 동구와 대덕구의 통근지가 변화하긴 하였으나 세종시의 경우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는 천안 지역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별도의 단일노동시장으로 분리되었으며, 경기 남부에서 이어지는 청주의 산업시설 구축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주남부권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진천·음성, 괴산·증평, 논산·계룡이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로 <표 3-1>에서 살펴본 충청권의 지역노동시장 수가 감소한 것이다. 진천·음성, 괴산·증평, 논산·계룡권은 10년 전에도 논산시와 부여군을 포함해 각 지역이 주 역외 통근지였으나, <표 3-7>의 역외 통근자 비율 증가에서도 알 수 있듯 실제 노동시장 통합이 진행되어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도권과 비교할 때 충청권의 총 취업자 증가는 크지 않은 편이다.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노동시장 변화가 활발함에도 수도권에 비하면 취업자 증감은 크지 않고, 대전 서부(서구, 유성구)만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노동시장과 비교할 때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수도권 집중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역외 통근자 비율 자체가 수도권보다 낮은 점도 수도권 외 지역

〈표 3-7〉 충청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¹⁾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³⁾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	역외			역내	역외			
대전 동부	동구	중구	22,633	15,396	40.5	서구	26,052	14,168	35.2	2,191	-5.3
	중구	서구	28,404	14,411	33.7	서구	30,830	14,245	31.6	2,260	-2.1
	대덕구	서구	21,841	10,930	33.4	유성구	22,449	10,645	32.2	323	-1.2
대전 서부	서구	유성구	62,145	25,601	29.2	유성구	68,375	27,629	28.8	8,258	-0.4
	유성구	서구	30,500	10,626	25.8	서구	49,533	19,004	27.7	27,411	1.9
청주 남부	상당구	홍덕구	27,468	12,399	31.1	홍덕구	25,118	10,720	29.9	-4,029	-1.2
	서원구					홍덕구	26,975	12,435	31.6	-	-
	홍덕구	청원군	54,632	16,434	23.1	청원군	43,105	12,125	22.0	-15,836	-1.1
진천 음성	진천군	음성군	11,317	871	7.1	음성군	13,075	2,792	17.6	3,679	10.5
	음성군	진천군	15,659	824	5.0	진천군	17,726	1,947	9.9	3,190	4.9
괴산 증평	괴산군	증평군	7,735	291	3.6	증평군	5,917	518	8.0	-1,591	4.4
	증평군	괴산군	4,093	1,261	23.6	괴산군	5,331	2,245	29.6	2,222	6.0
논산 계룡	논산시	부여군	23,300	1,382	5.6	부여군	19,269	1,560	7.5	-3,853	1.9
	계룡시	논산시	3,479	1,884	35.1	논산시	4,815	2,446	33.7	1,898	-1.4

주 : 1) 음영은 주 통근지가 변경된 경우임.

2) 역외 통근자 비율 : 시군구 총 여성 취업자(A+B) 중 역외(B)의 상대비로 $(B/(A+B)) * 100$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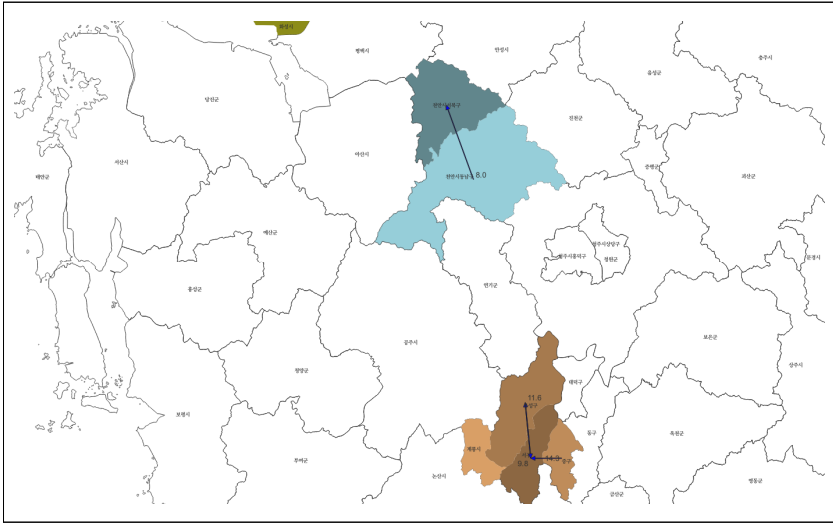
3) 역외 통근자 증감 : 2020년도 역외 비율에서 2010년도 역외 비율을 뺀 값.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은 상대적으로 직주근접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림 3-4], [그림 3-5]를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도 지역노동시장이 출현한 것은 역외 통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교통환경 변화나 일자리 재편이 여성 일자리의 반경 확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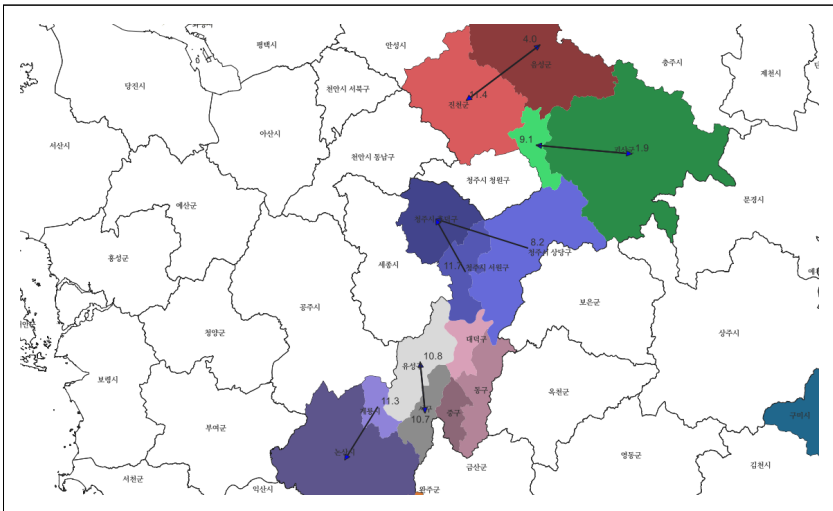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원군과 통합되어 분구한 서원구를 제외하면 청주 상당구와 홍덕구의 여성 총 취업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주요 일자리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 주로 남성 비율이 높은 일자리인 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에도 청주시의 주 통근지는 홍덕구이며, 상

[그림 3-4] 2010년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3-5] 2020년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당구, 서원구에서 흥덕구로 통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흥덕구에 상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남성을 포함해 분석한 경우 진천군과 증평군이 청주북부 지역노동시장으로 분류되었으나 여성 한정 시 진천·음성이 별도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는데, 이 역시 성별로 다른 직종 특성이 지역노동시장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녀 통합 분석 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세종시-유성구-공주시 간 이동이 활발했던 것과 별개로, 비록 유성구의 역외 통근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 역시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의 직주 근접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성구의 경우 역내는 약 19,000명, 역외도 약 8,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총 27,000명가량 증가해 충청권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데, 비록 세종시와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역외 출근자의 상당수는 세종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출범의 파급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유성구의 역외 통근자 비중도 10년 전에 비해 1.9%p 증가하였다. 반면 대전시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는 전체 분석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구도심의 경우 일자리 구성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호남권

호남권도 수도권에 비하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다만 광주 광산구, 전주 덕진구의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영우 외(2023)에서도 분석하였듯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와 혁신도시가 여성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고용 증가와 통근에 미친 영향은, 후술하겠지만 남성보다는 작다. 다른 한편 광산구와 통합된 장성군, 덕진구와 통합된 완주군을 제외하면 대체로 호남권의 역외 통근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충청권과 유사하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주근접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남권도 충청권과 유사하게 역외 통근 비중이 15.6%(장성군)~33.3%(광주 남구) 선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 고영우 외(2023)의 전체 노동시장 분석과 유사하게 광주 각 자치구의 역외 통근 비율이 낮아진 점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광산구, 덕진구, 그리고 광주 북구에서의 여성 취업자 증가가 지역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였기에 [그림 3-6], [그림 3-7]을 통해서 알 수 있듯 10년 전에 비해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광주, 전주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호남권의 단일노동시장 감소와 지역 노동시장 출현을 촉진하였다. 남성을 포함할 경우 2010년에도 광주는 지역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여성으로 한정 시 단일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는 여성 노동시장도 지역노동시장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는 여성 일자리의 증가 및 역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 환경 변화,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그 외 지역은 단일노동시장으로 역외 통근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전체 기준 분석보다 광역권의 지역노동시장 통합 정도가 낮다. 광주 북구는 전체 분석과 다르게 다른 자치구와 분리된 단일지역노동시장을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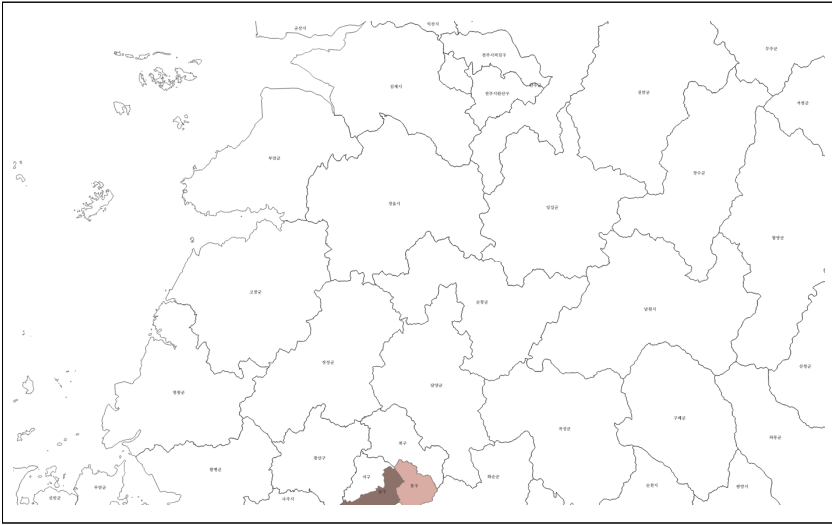
<표 3-8> 호남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¹⁾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	역외			역내	역외			
광주 동남	동구	북구	11,696	5,046	30.1	북구	13,735	5,214	27.5	2,207	-2.6
	남구	서구	21,142	14,687	41.0	서구	28,470	14,213	33.3	6,854	-7.7
광주 동북	북구	광산구	54,697	23,976	30.5	서구	61,522	21,142	25.6	3,991	-4.9
	담양군	북구	8,657	787	8.3	북구	6,311	1,372	17.9	-1,761	9.6
광산 장성	광산구	서구	45,101	14,291	24.1	서구	61,541	16,519	21.2	18,668	-2.9
	장성군	광산구	7,524	549	6.8	광산구	5,450	1,005	15.6	-1,618	8.8
덕진 완주	덕진구	완산구	34,335	10,952	24.2	완산구	46,727	14,534	23.7	15,974	-0.5
	완주군	덕진구	11,869	2,492	17.4	덕진구	11,307	4,528	28.6	1,474	11.2

- 주 : 1) 음영은 주 통근지가 변경된 경우임.
- 2) 역외 통근자 비율 : 시군구 총 여성 취업자(A+B) 중 역외(B)의 상대비로 $(B/(A+B)) * 100$ 임.
- 3) 역외 통근자 증감 : 2020년도 역외 비율에서 2010년도 역외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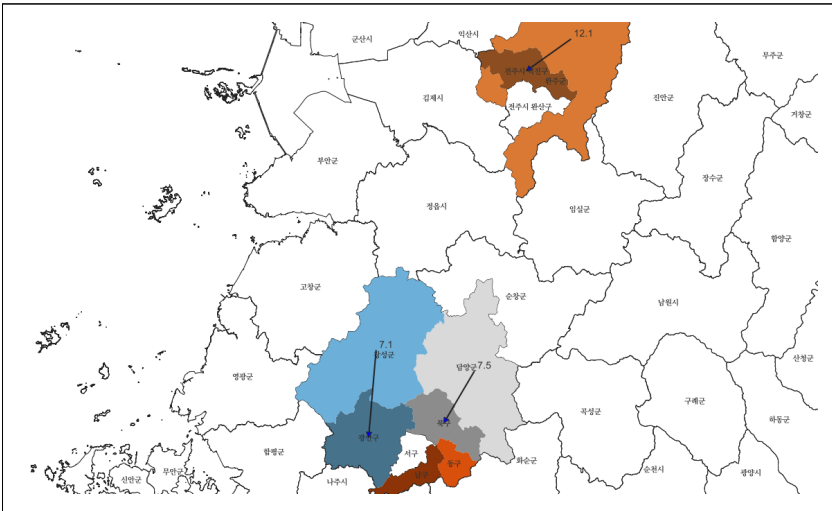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3-6] 2010년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3-7] 2020년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성하고 있으며, 호남 내 다른 시군 중에는 역외와 결합된 지역노동시장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남성을 포함할 때 여수, 광양 지역 등에서 통근방향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지역의 여성 일자리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라. 대구 · 경북권

대구 · 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통근방향 변화를 살펴보면 대구 내 자치구의 평균 역외 통근자 비율은 30% 초중반대로 수도권과 비슷하게 높았으나, 10년간 서구, 남구에서 역외 출근자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하면

〈표 3-9〉 대구 · 경북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¹⁾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³⁾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	역외			역내	역외			
대구 북부	중구	달서구	9,088	4,652	33.9	수성구	10,992	5,037	31.4	2,289	-2.5
	서구	달서구	20,617	16,016	43.7	달서구	20,633	10,280	33.3	-5,720	-10.4
	북구	중구	47,309	23,310	33.0	중구	53,455	27,202	33.7	10,038	0.7
대구 서남	남구	달서구	16,064	13,400	45.5	달서구	18,000	9,312	34.1	-2,152	-11.4
	달서구	중구	66,671	32,503	32.8	달성군	75,877	28,047	27.0	4,750	-5.8
	달성군	달서구	18,825	9,845	34.3	달서구	29,319	16,730	36.3	17,379	2.0
	고령군	달서구	6,556	678	9.4	달성군	5,069	1,041	17.0	-1,124	7.6
	성주군	달서구	9,751	205	2.1	달서구	6,880	565	7.6	-2,511	5.5
수성 경산	수성구	중구	41,573	26,893	39.3	경산시	48,087	24,082	33.4	3,703	-5.9
	경산시	수성구	32,622	9,265	22.1	수성구	36,222	11,269	23.7	5,604	1.6
구미 칠곡	구미시	칠곡군	70,345	3,719	5.0	칠곡군	70,396	5,156	6.8	1,488	1.8
	칠곡군	구미시	15,179	5,365	26.1	구미시	14,147	5,497	28.0	-900	1.9
군위 의성	군위군	구미시	5,764	133	2.3	의성군	3,020	297	9.0	-2,580	6.7
	의성군	안동시	15,821	160	1.0	군위군	7,342	281	3.7	-8,358	2.7

주 : 1) 음영은 주 통근지가 변경된 경우임.

2) 역외 통근자 비율 : 시군구 총 여성 취업자(A+B) 중 역외(B)의 상대비로 $(B/(A+B)) * 100$ 임.

3) 역외 통근자 증감 : 2020년도 역외 비율에서 2010년도 역외 비율을 뺀 값.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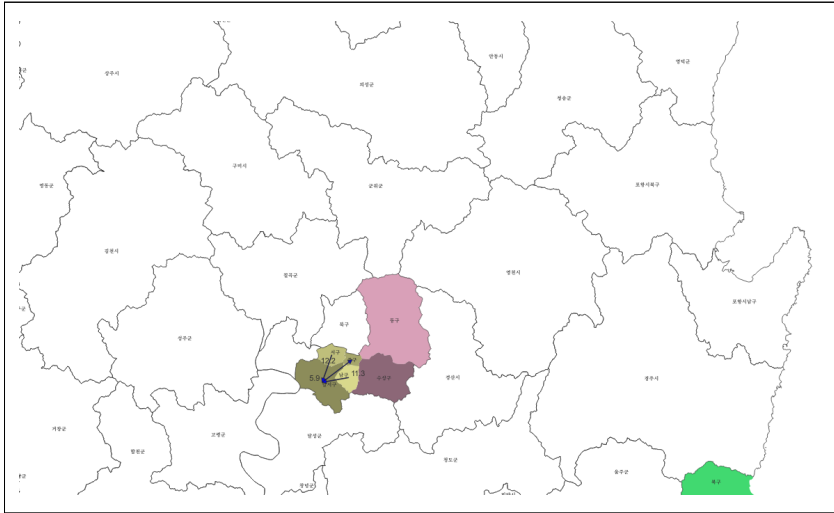
서 역내 통근 경향이 강화되었다. 달서구와 수성구도 5%p 이상 역외 통근자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직주근접 경향의 강화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기존 구 도심 지역의 여성 일자리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반면 역외 통근 비중은 고령군, 성주군, 군위군 등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구서남권 및 수성경산권 지역노동시장 재편으로 역외 여성 일자리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 지역노동시장은 2010년 중부권(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과 동부권(동구, 수성구), 북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대구 주변의 다른 지역이 결합하며 북부권(중구, 서구, 북구)과 서남권(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중구의 주 통근지는 달서구였으나 북부권 외부인 수성경산권의 수성구로 바뀌었다. 다만 중구가 수성경산권에 통합된 양상은 아니다. 한편 달서구와 고령군의 주 통근지가 달성군으로 바뀌면서, 비록 2020년에도 남구 여성 취업자의 8.1%, 성주군의 1.5%, 달성군의 14.7% 등이 달서구로 통근하며 서남권 일자리 중심지이지만, 고령군의 5.1%, 달서구의 5.1%가 달성군으로 통근해 여성 일자리가 일부 분산된 양상을 보인다.

2010년 수성구는 대구 동부권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주 통근지는 중구였으나 경산시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며 수성·경산권이 결합되었다. [그림 3-8], [그림 3-9]를 참조하면 2010년에는 뚜렷하게 눈에 띄는 통근 이동이 관찰되지 않으나, 2020년에는 수성구 여성 취업자의 6%, 경산시 여성 취업자의 7.5%가 상대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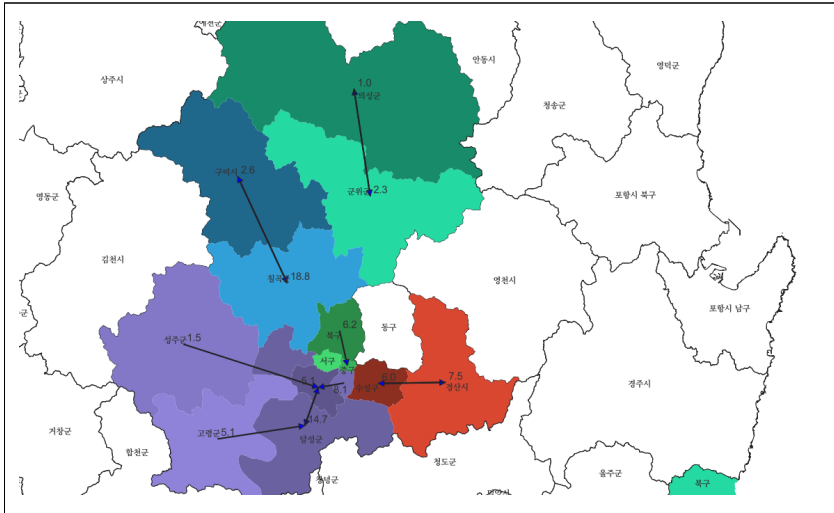
대구 외 경북 지역에서는 구미·칠곡권과 군위·의성권이 각각 결합해 두 지역 간 통근이 활발하다. 구미·칠곡권은 2010년에도 칠곡권 역외 통근 비율이 구미시보다 높았으나 [그림 3-8]에서 확인되듯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2020년에는 칠곡군 여성 취업자의 18.8%가 구미시로 통근하고 지도의 색 역시 구미시가 진해 여성 일자리 대다수가 구미에 위치한다. 반대로 구미시에서 칠곡군으로 통근하는 여성 취업자는 2.6%에 그친다. 군위·의성권은 역외 통근 비중이 각각 2.3%, 1.0%로 매우 낮아 별도의 단일노동시장이었으나 2020년 결합하였는데, 이는 군위군에서 의성군으로 통근하는 방향이 주 요인으로, 의성군 역외 통근 비중이 3.7%인 반면 군위군은 9.0%로 10년간 6.7%p 증가하였다. 다만 군위에서 의성으로의 이동

[그림 3-8] 2010년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그림 3-9] 2020년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이 2.3%이기에 인근 칠곡, 동구, 영천으로의 통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포항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포항의 여성 일자리 비율이 남성보다 크게 작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을 포함한 지역노동시장 분석에서 경북 지역의 특징은 예천군에서 안동시로의 이동이었으며, 이는 경북도청 이전, 바이오사이언스 및 SK플라즈마 안동 공장 건립 등의 영향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다수가 남성 일자리에 속해 이러한 변화는 여성 지역노동시장 분석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호남권 광주 광산구, 전주 덕진구 지역노동시장 결합에 혁신도시 출범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화가 여성 지역노동시장에도 반영된 것과 대조적이다. 즉,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여성 일자리와 관련되는지가 여성 지역노동시장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 동남권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는 중구, 서구, 영도구가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와 결합해 서부권을 형성하고, 기존 서부권의 동구, 부산진구, 남구가 별도의 동남권 시장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북부권에 기장군이 결합된 것도 부산권 노동시장의 변화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달리 <표 3-10>의 주 통근지 변화를 살펴보면 중구의 주 통근지가 동구에서 서구로, 동래구의 주 통근지가 금정구에서 연제구로, 해운대구의 주 통근지가 부산진구에서 기장군으로 변경된 것 외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지난 10년간 통근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중구의 변동이 부산권 전체 지역노동시장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보다 각 시군구의 취업자 증감 및 역외 통근자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구와 영도구의 역외 통근자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9.4%p, 7.7%p 감소하였으며, 영도구는 여성 취업자 수 역시 약 2천 명 감소하였다. 사상구도 2천 명 정도가 감소한 반면,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 중 강서구는 역외 통근자 비율도 증가한 반면,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역외 통근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강서구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관련된 인구 유

입이 여성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강서구에서 사상구, 사하구로 통근하는 인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림 3-11] 세 지역의 취업자 농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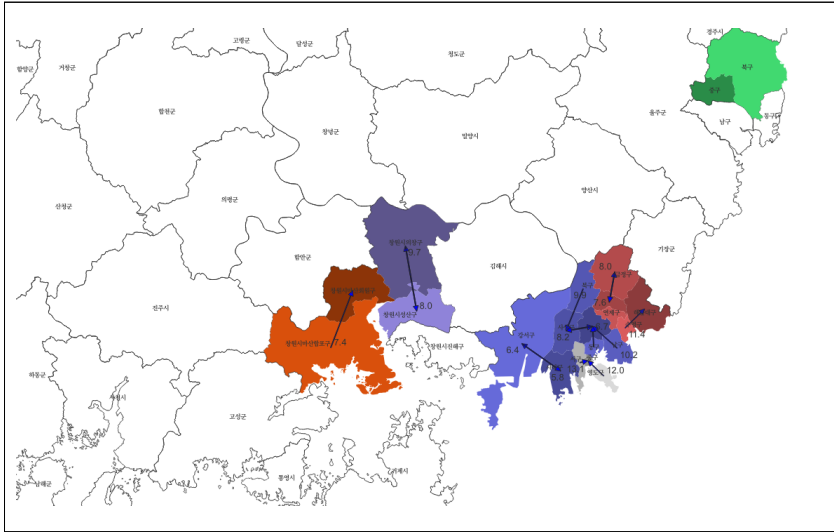
<표 3-10> 동남권 지역노동시장의 주 통근지 및 역외 통근자 비율 변화¹⁾

지역 노동 시장 (2020)	주거지	2010				2020				총 취업자 증감 ³⁾ (명)	역외 증감 ³⁾ (%p)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주 통근지	취업자 수(명)		역외 ²⁾ (%)		
			역내	역외			역내	역외			
부산 서부	중구	동구	6,442	3,149	32.8	서구	5,930	3,074	34.1	-587	1.3
	서구	중구	10,742	9,153	46.0	중구	12,719	7,347	36.6	171	-9.4
	영도구	중구	12,265	8,862	41.9	중구	12,550	6,530	34.2	-2,047	-7.7
	북구	사상구	27,011	22,097	45.0	사상구	29,921	22,252	42.7	3,065	-2.3
	사하구	강서구	36,739	18,847	33.9	강서구	37,638	19,676	34.3	1,728	0.4
	강서구	사하구	7,228	2,446	25.3	사하구	15,878	6,817	30.0	13,021	4.7
	사상구	부산진구	26,339	16,762	38.9	부산진구	24,105	16,679	40.9	-2,317	2.0
부산 동남	동구	부산진구	8,867	6,944	43.9	부산진구	9,754	7,706	44.1	1,649	0.2
	부산진구	사상구	38,694	26,829	40.9	사상구	45,104	25,183	35.8	4,764	-5.1
	남구	부산진구	25,231	21,122	45.6	부산진구	25,977	21,003	44.7	627	-0.9
부산 북부	동래구	금정구	23,135	21,553	48.2	연제구	25,190	23,997	48.8	4,499	0.6
	해운대구	부산진구	38,928	23,430	37.6	기장군	45,159	25,932	36.5	8,733	-1.1
	금정구	동래구	22,376	17,815	44.3	동래구	26,094	15,626	37.5	1,529	-6.8
	연제구	부산진구	17,008	17,168	50.2	부산진구	22,760	17,539	43.5	6,123	-6.7
	수영구	해운대구	14,675	13,882	48.6	해운대구	18,144	16,856	48.2	6,443	-0.4
	기장군	해운대구	11,403	4,411	27.9	해운대구	19,941	8,785	30.6	12,912	2.7
울산 중부	중구	남구	19,796	15,156	43.4	남구	24,825	12,625	33.7	2,498	-9.7
	남구	울주군	43,899	10,580	19.4	울주군	44,827	11,520	20.4	1,868	1.0
	북구	남구	16,003	7,362	31.5	남구	23,667	11,677	33.0	11,979	1.5
회원 함안	마산 회원구	의창구	26,370	8,993	25.4	함안군	25,836	9,588	27.1	61	1.7
	함안군	마산 회원구	11,470	1,370	10.7	마산 회원구	9,564	2,098	18.0	-1,178	7.3

- 주 : 1) 음영은 주 통근지가 변경된 경우임.
- 2) 역외 통근자 비율 : 시군구 총 여성 취업자(A+B) 중 역외(B)의 상대비로 $(B/(A+B)) * 100$ 임.
- 3) 역외 통근자 증감 : 2020년도 역외 비율에서 2010년도 역외 비율을 뺀 값.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3-10] 2010년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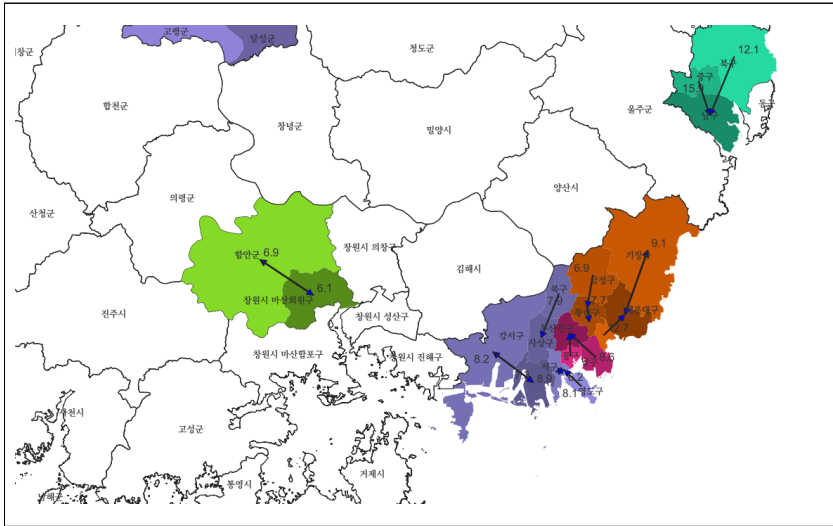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반면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역외 통근자 비율이 각각 36.5%와 30.6%로 아주 높지 않고, 역외 통근 비율도 높지 않은 점에서 상대적으로 직주근접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산진구, 남구, 동래구 등에서도 관찰 가능하다.

한편 남성을 포함할 경우 양산시가 부산 지역노동시장에 결합되었으나 여성은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는 양산시 여성 취업자의 역내 통근 경향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은 남성을 포함한 지역노동시장 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남구로의 통근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여성 지역노동시장은 2010년에 남구가 단일노동시장을 형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중구, 북구가 남구와 결합하여 울산 중부권을 형성하였고, 중구 여성취업자의 15.9%, 북구의 12.1%가 남구로 통근하고 있다. 다만 남성을 포함할 경우 남구의 집중도는 2020년에 감소한 반면(고영우 외, 2023),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남구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남구에 집중된 산업시설의 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대신 여성 일자리 비중이 높

[그림 3-11] 2020년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구성 및 주 통근방향



자료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뒤늦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는 북구의 여성 취업자 증가와 남구로의 통근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창원 지역은 마산 합포·회원권, 의창성산권으로 구분되던 지역노동시장이 단일노동시장으로 분리되고 마산회원구가 함안군과 결합하여 회원함안권이 형성되었다. 이는 회원구의 여성 취업자가 의창구에서 함안군으로 주 통근지가 바뀐 결과로 판단되며, 회원구 여성 취업자의 6.1%가 함안군으로 통근하고, 함안군의 6.9%가 회원구로 통근함에 따라 두 지역의 지역노동시장 결합이 강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함안군의 역외 통근 비중이 7.3%p 증가해 회원구와의 지역노동시장 결합이 촉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시간의 변화

1. 지역노동시장권 통근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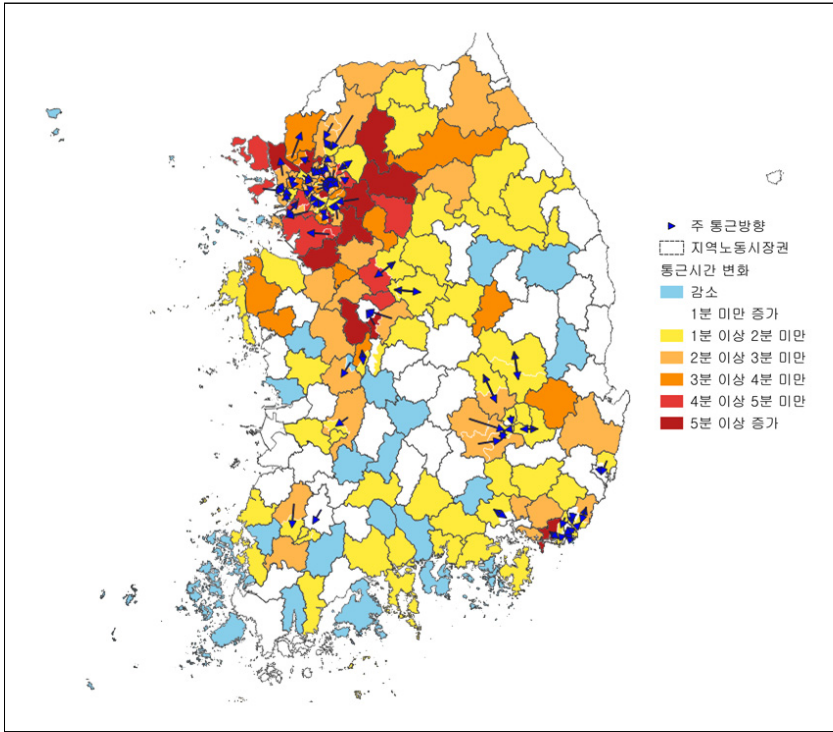
광역별 지역노동시장 통근시간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국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는 각 시군구별 여성의 평균통근시간을 비교해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연한 파란색, 1분 내외 증감인 경우 흰색, 1분 이상 증감인 경우 정도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남성을 포함한 통근시간 변화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점은 여성으로 한정하여도 수도권 통근시간 증가가 두드러지며, 특히 경기 동남권을 중심으로 5분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역외 통근이 활발한 수도권은 대체로 3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분 이상 증가한 경우는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평택시, 수원시 영통구 등인데 그 외에 경기권 중 김포시와 일산동구에서도 5분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여성 취업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중에는 세종시, 청주시 서원구, 부산 강서구가 5분 이상 통근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은 세종시 출범, 부산 강서지역 개발 등 지역 고용을 창출한 사건과 관련된다.

다만 그럼에도 비수도권에서는 통근시간이 감소하거나 1분 내외의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많다. 즉, 지역 간 통근시간 격차는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남성보다 더 크다. 이는 지방은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미미하거나 비교적 주거지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수도권보다 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장년 이상 여성인구의 노동시장 이탈도 이러한 비수도권 통근시간 감소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3-11〉은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별 평균통근시간 변화로 2020년과 2010년의 통근시간 차이(B-A)를 보여준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2020년

[그림 3-12] 전국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2010, 2020년)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수도권 지역노동시장권 통근시간은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구리·남양주권이 서울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10년 전에 비해 통근시간이 16.8분 증가하였다. 반면 서울권에서 분리된 도봉구, 노원구는 31.1분으로 10년 전에 비해 5분 정도 감소하였다. 물론 이는 통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을 기준으로 한 통근시간이기 때문에, 개별 시군구의 통근시간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후의 2항에서 단일노동시장의 통근시간 변화를 다루며 다시 다룬다.

서울권은 도봉구와 노원구가 제외되었으나 용산구 및 강남지역 5개구(동작, 관악, 강남, 서초, 송파), 구리·남양주시가 포함되며 10년 전에 비해 통근시간이 5분 정도 증가하였다. 서울서북권은 용산구가 제외되었음에도 통

〈표 3-11〉 수도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단위: 분)

2010년		2020년		차이 (B-A)	비고 (변동)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 시간 (A)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 시간 (B)		
서울북부권	36.2	서울권	41.4	5.2	+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리시, 남양주시 - 도봉구, 노원구
구리남양주권	24.6			-5.1	
		서울동북권	31.1	-5.1	+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부권	36.7	서울서북권	38.3	1.7	- 용산구
서울서남권	38.4	서울서남권	38.4	0.0	+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서울서부권	39.1	0.7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부천 원미구, 부천 소사구, 부천 오정구, 광명시
서울동남권	30.6	강동하남권	31.6	0.9	- 송파구
인천남부권	29.4	인천동부권	31.2	1.8	변동 없음
인천북부권	26.6	인천서부권	29.7	3.1	+ 부천시 (舊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 서구, 김포시
		김포권	29.6	3.0	+ 서구, 김포시
수원용인권	25.7	수원시	29.4	3.7	+ 수원 권선구 - 용인 기흥구, 용인 수지구
오산화성권	27.0	오산화성권	30.2	3.2	- 수원 권선구
성남광주권	28.2	성남권	31.6	3.5	성남 분당구, 광주시
		분당권	33.5	5.4	+ 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용인 수지구, 광주시
의정부양주권	25.0	의정부권	27.0	2.0	+ 동두천시, 포천시
안양과천권	27.5	안양권	31.5	3.9	변동 없음
안산시흥권	26.3	안산시흥권	28.7	2.3	변동 없음
고양시	24.8	고양권	30.2	5.4	- 고양 일산서구
파주시	25.3	파주권	28.0	2.7	+ 고양 일산서구

자료: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근시간이 1.7분 증가하였는데, 2020년 용산구 주 통근지가 강남구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서북권의 통근시간이 증가한 것은 은평, 서대문 등의 주 통근지가 중구에서 마포구로 바뀐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중구의 고용 감소 및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포구로의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서남권은 서남권과 서부권으로 재편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통근시간 변화가 크지 않다. 인천북부권은 서부권과 김포권으로 재편되면서 모두 통근시간이 3분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북부권에 부천시가 포함되면서, 그리고 서구와 김포시가 별도의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경기 남부도 대체로 3분에서 5분 이상 통근시간이 증가하였는데, 다만 지역노동시장권 변동이 없는 안양권과 안산시흥권이 2.3~3.9분 정도 증가한 점은, 지

<표 3-12>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단위: 분)

2010년		2020년		차이 (B-A)	비고 (변동)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 시간 (A)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 시간 (B)		
대전서부	23.3	대전서부	25.7	2.4	- 중구, 계룡시
논산시	17.0	논산·계룡	19.4	2.4	+ 계룡시
대전 동구	22.0	대전동부	25.3	3.3	+ 중구, 대덕구
대전 대덕구	24.0				- 대덕구
연기군	20.8	세종시	24.0	3.1	연기군 → 세종시
청주 상당구	20.3	청주남부	23.2	2.9	+ 청주 서원구, 청주 흥덕구
청주 흥덕구	19.6			3.6	- 청주 흥덕구
진천군	21.7	진천음성	24.7	3.1	+ 음성군
음성군	20.9			3.8	- 음성군
괴산군	16.2	괴산증평	20.4	4.2	+ 증평군
증평군	18.9			1.5	- 증평군
천안시	19.4	천안 동남	24.5	5.1	- 천안 서북구
		천안 서북	22.8	3.4	+ 천안 서북구

자료: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역노동시장의 지리적 재편보다는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통근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통근시간이 5.4분 증가한 분당권과 고양권의 변화는 지역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한 변화로 판단된다.

〈표 3-12〉는 충청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평균통근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충청권에서 통근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천안동남권으로, 천안 서북구가 분리되어 단일노동시장이 되었음에도 5분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두 지역이 각자의 단일노동시장으로 분리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아산을 비롯한 인접 지역으로의 역외 통근 비중이 증가하였거나,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외에 진천·음성권, 괴산군의 통근 시간 증가 폭이 큰 편이지만, 이는 10년 전의 통근시간이 크게 짧았던 탓으로, 특히 괴산군은 2010년 기준 통근시간이 16.2분으로 논산시와 함께 충청권 내에서 여성 통근시간이 가장 짧았던 지역인 만큼, 여성 취업자 증가와 인접 증평군으로의 통근인구 증가가 통근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경우 앞서도 논의하였지만 수도권, 충청권에 비해 통근시간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담양군과 장성군이 각각 10년 전에

〈표 3-13〉 호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단위 : 분)

2010년		2020년		차이 (B-A)	비고 (변동)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시간 (A)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시간 (B)		
광주 동남	22.9	광주 동남	24.6	1.7	변동 없음
광주 북구	21.8	광주 동북	22.9	1.1	+ 담양군
담양군	18.6			4.3	- 담양군
광주 광산구	22.0	광산장성	22.5	0.5	+ 장성군
장성군	17.9			4.6	- 장성군
전주 덕진구	19.3	덕진완주	21.2	1.9	+ 완주군
완주군	19.7			1.5	- 완주군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비해 4.3분, 4.6분 증가하였으며 이는 광주 북구 및 광산구로의 통근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겠으나, 두 지역의 통근시간은 10년 전에도 각각 18.6분, 17.9분으로 짧은 편이었던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두 지역을 제외한다면 다른 호남권 지역노동시장의 통근시간 증가는 2분 미만으로, 전체 분석 시 논의된 덕진·완주권의 혁신도시 출범도 남성보다는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통근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호남권과 유사하게, 10년 전에 통근시간이 짧았던 고령군(18.6분), 성주군(15.9분), 의성군(15.2분)의 통근시간이 인근 지역과의 노동시장 통합으로 인하여 4.1~9.1분가량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통근시간 증가는 2분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이 역시도 전체 분석에서 논의되었던 예천군→안동시로의 통근인구 증가가 여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3-14〉 대구·경북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단위: 분)

2010년		2020년		차이 (B-A)	비고 (변동)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시간 (A)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시간 (B)		
대구중부	24.6	대구북부	26.1	1.5	+ 북구, - 남구, 달서구
대구 북구	23.2			2.9	- 북구
대구 달성군	23.8	대구서남	25.0	1.3	+ 남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고령군	18.6			6.4	- 고령군
성주군	15.9			9.1	- 성주군
대구동부	23.4	대구 동구	26.3	2.9	- 수성구
경산시	22.7	수성경산	25.0	2.2	+ 수성구
군위군	18.1	군위의성	19.3	1.2	+ 의성군
의성군	15.2			4.1	- 의성군
구미시	20.9	구미칠곡	21.7	0.8	+ 칠곡군
칠곡군	21.5			0.2	- 칠곡군

자료: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역시 통근시간에 있어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기장군이 부산북부권으로 통합되며 3.5분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1~2분 내외의 변화만이 관찰될 뿐이다.

다만 동남권의 경우 앞서 통근방향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강서구의 통근시간 변화가 눈에 띄는데, 지역노동시장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러한 개별 시군구의 통근시간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성남 분당구를 비롯, 수도권 변화가 큰 지역과 비수도권 중 세종시, 청주시 등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노동시장별 통근시간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통근시간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시군구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단일노동시장을 포함,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의 변화를 광역별로 살펴본다.

〈표 3-15〉 동남권 여성 지역노동시장 평균통근시간 변화

(단위: 분)

2010년		2020년		차이 (B-A)	비고 (변동)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시간 (A)	지역노동 시장권	통근시간 (B)		
부산서부	26.9	부산서부	28.6	1.7	+ 중구, 서구, 영도구 -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부산동남	28.3	부산동남	29.0	0.7	+ 동구, 부산진구, 남구 -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북부	25.8	부산북부	27.6	1.8	+ 기장군
부산 기장군	24.1			3.5	- 기장군
울산북부	20.8	울산중부	22.4	1.6	+ 남구
울산 남구	22.6			-0.2	- 남구
(구)창원	21.3	창원 의창구	22.9	1.5	- 창원 성산구
		창원 성산구	22.8	1.5	+ 창원 성산구
마산	20.8	마산합포	21.5	0.6	+ 창원 마산합포구
		회원함안	21.7	0.9	+ 함안군 - 창원 마산합포구
함안군	18.9			2.7	- 함안군

자료: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2. 단일노동시장 통근시간 변화

[그림 3-13]은 수도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시 내 자치구는 전반적으로 통근시간이 1~3분가량 소폭 증가하였다. 강남구로의 통근 집중이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주 통근 방향인 서울 강북 및 강서 지역 자치구의 통근시간 증가 폭은 크지 않은데, 이는 이미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여성 취업자의 증가에도 이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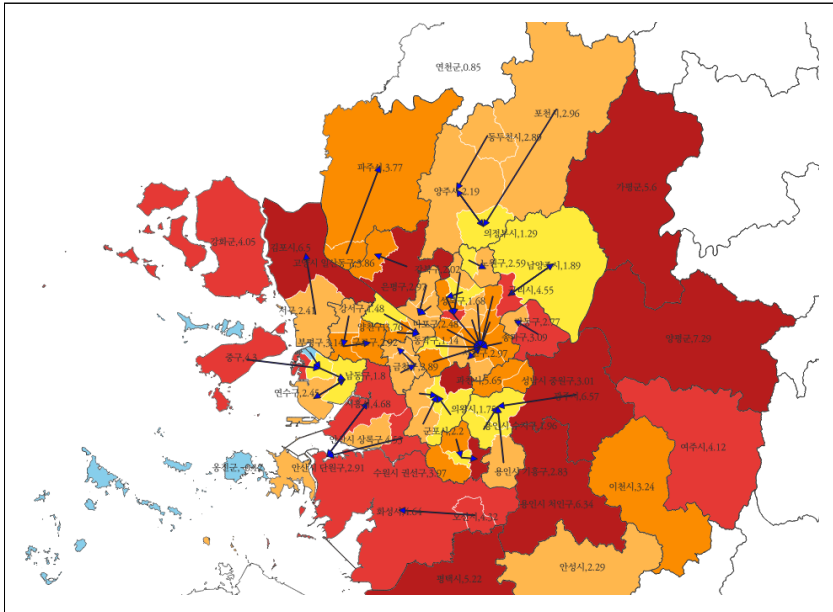
앞서 지역노동시장권 통근시간 분석에서 비교적 큰 통근시간 증가를 보인 구리·남양주권의 경우 남양주시는 1.89분 증가에 그쳤고 구리시가 4.55분으로 상대적으로 큰데, 비록 주 통근방향은 남양주시이지만 남양주시 못지않게 서울 내부, 가령 성동 및 강남으로의 통근인구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통근시간 증가가 남양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도권의 통근시간 증가는 서울보다 크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는 비록 단일노동시장을 형성함에도 다른 지역노동시장보다 통근시간 증가가 큰 편인데, 이는 단일노동시장으로 분류되지만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광주시, 고양시 덕양구 등은 인접지역으로의 통근 증가가 실제 평균통근시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성남 분당, 덕양구는 일산 동구로의 통근자 증가가 통근시간 증가로 이어졌으며, 비록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인천 서북권에 통합된 김포 시도 서구 못지않게 서울 강서구로의 통근인구 증가가 통근시간의 6.5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수원 영통구, 평택시,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등은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및 여성 취업자 증가가 통근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해당 지역은 경기 남부권의 산업시설 및 관련 서비스업, 교육·전문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여성 고용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시 내의 통근시간 증가보다 경기도권의 통근시간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점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등이 경기도 거주-서울 통근의 직주분리 경향을 심화시켰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남성을 포함할 경우

[그림 3-13] 수도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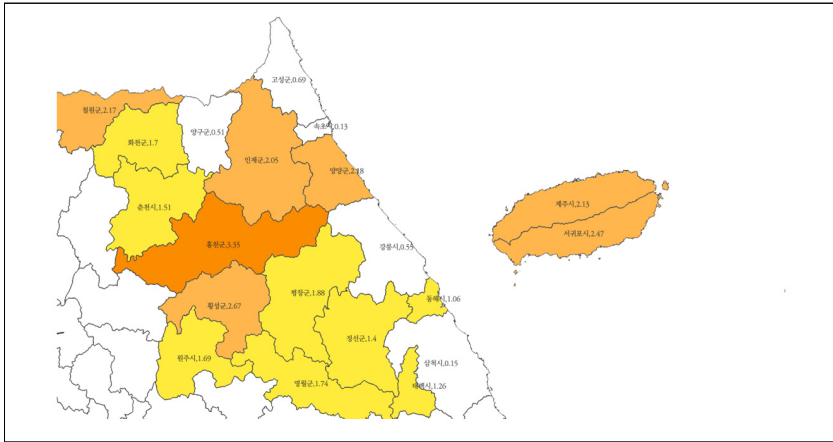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에도 나타났던 사항으로, 주택 가격 상승, 새로운 산업시설의 구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직주분리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4]는 강원·제주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강원·제주권은 남성과 달리 통합된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지역노동시장권의 통근방향 및 통근시간 분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강원·제주권 여성 일자리가 대체로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주택 가격 등 직주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강원·제주권 여성 통근시간은 대체로 2분 내외의 크지 않은 변동만 있었으며, 남성을 포함한 분석에서 일부 확인된 원주, 춘천 등 영서 지방의 변화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홍천군만 약 3.35분 증가했으며, 이는 특별한 지역 고용 이슈가 있지 않았던 강원·제주권 여성 일자리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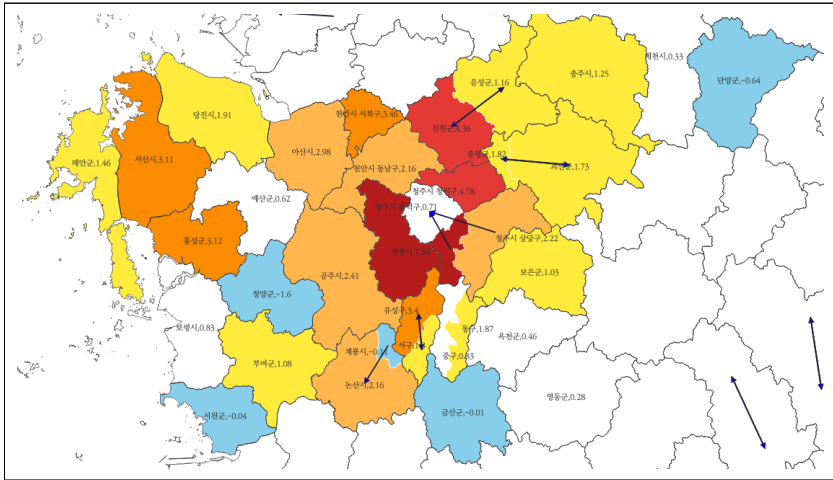
[그림 3-14] 강원·제주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3-15]는 충청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세종시의 통근시간 증가가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 세종시의 여성 통근시간은 7.84분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거의 변화가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청주시 서원구 역시 전체를 기준으로 3.5분 증가에 그쳤으나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5분 이상 증가하여 대조적이다. 유성구도 3.4분 정도 증가하여 고영우 외(2023)에서 분석한 전체 기준 2.97분 증가한 것보다 크다. 이는 세종, 대전 유성, 청주 서원구 등 세종시 내지 세종 인접 지역의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해당 지역에서 교육·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 여성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 서산시, 홍성군,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 청원구 등도 평균통근시간이 증가한 지역이지만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유사한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종, 대전 유성 등이 미혼 혹은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는 여성 취업자 증가로 남녀 간 통근시간 차이가 큰 반면, 이러한 지역들은 맞벌이로 남녀의 통근시간 모두가 증가했기에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15] 충청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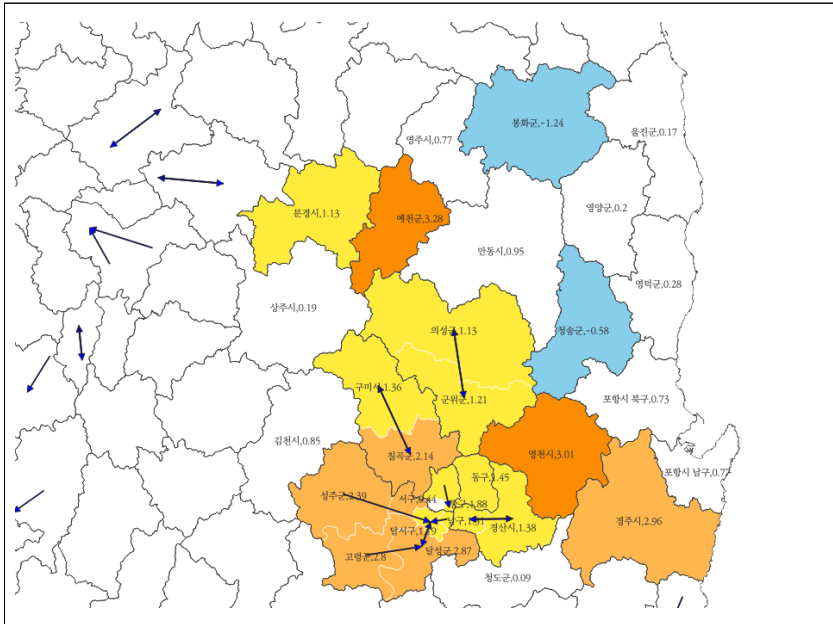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그림 3-16]은 호남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호남권의 경우 대체로 10년 전에 비해 통근시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감소한 지역들이 많다는 점에서 수도권, 충청권과 차이를 보인다. 나주시와 장성군이 각각 2.68분, 2.62분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호남 지역 여성 고용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완주군이 2.41분, 나주시가 2.68분 증가하여 혁신도시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남성을 포함할 때보다는 차이가 적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성을 포함할 경우 통근시간이 감소한 지역은 목포시(-1.63분), 진도군(-0.39분), 고흥군(-0.34분), 화순군(-0.64분) 정도였으며 감소분 역시 크지 않았으나(고영우 외 2023), 여성으로 한정하면 [그림 3-16]을 살펴보면 통근시간이 감소한 지역도 많고, 감소 폭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보다 크다. 진도군(-1.61분), 고흥군(-1.17분), 화순군(-1.13분) 등이다. 그 외에 남성 포함 시 통근시간이 증가하였어도 구례군(-0.79분), 장수군(-0.82분) 등은 여성 통근시간이 감소하였다. 수도권, 충청권과 대조적인 호남권 여성 통근시

[그림 3-17] 대구·경북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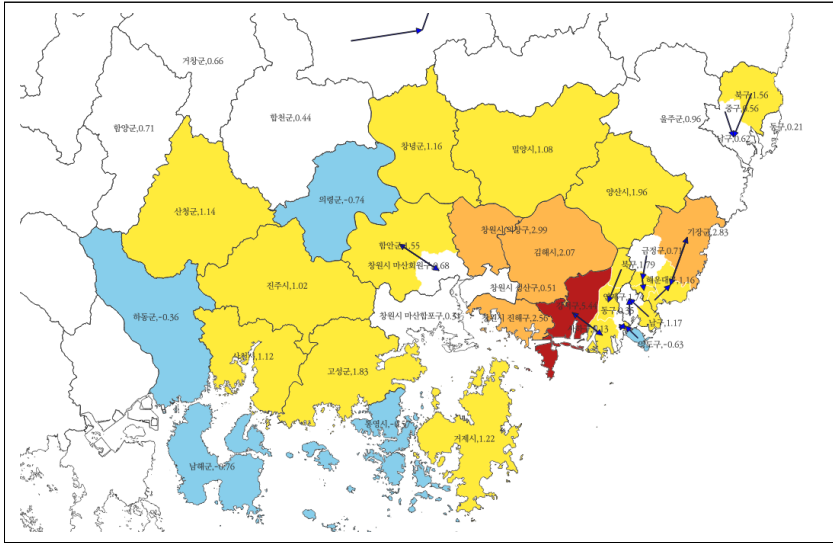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공항 등의 사업은 주로 남성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일자리는 달서구, 달성군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천군의 통근시간이 증가한 것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유사하지만 증가 정도가 작고 예천군 여성 노동시장은 여전히 단일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점에서 경북도청 이전,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건립 등의 지역 고용 효과는 주로 남성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8]은 동남권 지역 노동시장 시군구별 여성 평균통근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대체로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나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의 통근시간 증가는 남성보다 크다. 남성을 포함할 경우 강서구는 4분, 해운대구는 -0.18분, 기장군은 2.12분 통근시간이 증가하였으나(고영우 외, 2023),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강서구의 통근시간은 5.44분, 해운대구 1.16분, 기장군 2.83분 증가하여 남성보다 증가 폭이 크다. 이는 부산시의

[그림 3-18] 동남권 시군구별 여성 통근시간 변화



자료 : 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RAS(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5080606).

여성 일자리가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 지역에 집중되며 구 도심지보다 새로운 지역 개발 사업 및 이에 따른 고용효과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해군, 통영시, 하동군, 의령군 등의 통근시간이 감소한 점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의 차이이다.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2010년과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근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근방향 변화, 그리고 통근방향의 영향을 받은 통근시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남성을 포함한 고용위 외(2023)의 분석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을 포함한 전체 지역노동시장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으면

서도 동시에 여성 지역노동시장만의 특징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용인시, 충청권의 세종시 등에서 지역노동시장 재편이 활발하고 통근 집중과 통근시간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일자리 역시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 10년간 여성 취업자 증가,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 해당 지역에 높은 비중을 보이는 서비스업, 특히 교육·전문기술 서비스업에서의 여성 고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직주분리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가격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는 지역노동시장권과 통근방향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점, 통근 비율 감소로 산업 정체 내지 직주근접화가 관찰되는 점, 농촌이 주 산업인 군 지역보다는 대도시 및 광역시, 도시 인접 지역의 통근시간 증가가 군 지역보다 뚜렷하게 크다는 점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유사한 점이다.

반면 차이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성을 포함한 경우에 비해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가 좁으며, 이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이 세분화되고 단일노동시장이 많은 점, 역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이 돌봄 내지 가사 분담을 위해 주거지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또한 남성에 비해 비수도권의 지역 고용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확인된다. 세종시, 청주시 등을 예외로 하면 강원권의 원주 혁신도시, 호남권의 전주, 나주 혁신도시, 대구·경북권의 군공항 이전 및 지역 행정구역 재편, 경북도청 이전, 부산 신시가지 개발 등 남성을 포함한 경우 지역노동시장 재편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여성의 경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이 미치는 지역 고용 효과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컸음을 시사한다. 물론 기혼 여성이 맞벌이를 선택함에 따라 일정하게 해당 지역의 여성 취업자 수 및 통근시간 증가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남성보다 작다. 동시에 서비스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여성 고용도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면서 통근시간의 지역 간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광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남성보다 더 강남 3구, 특히 강남구로의 일자리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주 통근방향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강북 지역에서 강남으로 통근하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근시간이 증가하였으나, 다만 서울시 자치구 내 통근시간 증가는 대체로 1~3분 내외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서울은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여성 취업자의 증가나 통근방향 변화를 소화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장의 분석 범위를 넘으므로 명확히 할 수는 없으나, 여성 취업자의 대중교통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점도 상대적으로 통근시간 변화가 크지 않은 점을 일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권 여성 취업자의 통근시간은 서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김포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광주시, 용인시, 수원 영통구, 평택시 등 경기도권 시군구에서 나타난다. 경기권이어도 광명시, 부천시 등의 통근시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서, 통근 교통수단이 통근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범위가 작아 같은 권역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로, 구리시에서 서울 성동구 및 강남으로 통근하는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통근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김포, 화성 등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이 여성의 직주분리 경향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고영우 외(2023)에서 남성을 포함할 경우 원주혁신도시의 영향, 평창과 정선의 통근시간 소폭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성으로 한정된 본 장의 분석에서는 뚜렷한 지역노동시장 재편 및 통근방향·시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강원·제주권의 일자리가 여성 비중이 낮고 이에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지역 여성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세종과 청주,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통근시간 증가가 관찰된다. 특히 세종과 청주의 통근시간 증가 정도는 남성보다 크며, 다른 충청권 시군구의 통근시간 증가보다도 큰데, 이는 충청권에서 여성 일

자리의 적지 않은 비중이 세종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을 포함할 경우 경기 남부로부터 충청 북부권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 확대, 천안, 아산의 사업체 증가가 지역노동시장 재편과 통근방향·시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호남권도 강원·제주권과 유사하게 수도권 및 충청권보다 지역노동시장과 통근방향 변화, 통근시간 증가가 크지 않다. 장성군과 담양군이 광주의 산업단지, 첨단지구 개발 등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남성을 포함했을 때보다 적은 영향을 보였으며, 전주·나주 혁신도시의 영향도 남성보다 작았다. 또한 남성을 포함하면 서해안 군지역의 통근시간이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으로 한정 시 통근방향 변화 없이 통근시간만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호남권 일자리도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역외 이주, 고령화로 인한 기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권은 호남권, 강원·제주권보다는 변화가 있으나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서는 변화가 적다. 대구 및 인근 시군의 지역노동시장 재편과 통근시간 증가가 관찰되는 점은 남성과 유사하지만, 남성은 대구 북·서부와 인근의 군위, 칠곡, 성주, 고령에서의 통근시간 증가가 다른 지역보다 큰 반면, 여성은 달서구와 달성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역내에 여성 일자리 비중이 해당 지역에서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천군의 통근시간 증가는 경북도청 이전 및 바이오사이언스 사업체 건립 등이 영향을 미쳤겠으나 이 역시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시사한다.

동남권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보다는 지역노동시장의 변화가 작다. 부산 구도심보다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의 통근시간 증가와 통근방향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강서진해자유구역 조성 and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에서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과 통근 양상의 변화, 통근시간의 증감과 남성 고용시장과 다른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분석의 한계 역시 있다. 먼저, 지역 노동시장을 도출하는 방법론의 특성상 실제 통근이동이 미비하여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되거나, 반대로 같은 지역노동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역외 통근이 있으나 분리되는 지역 역시 있었다. 예를 들어 노원구는 2020년 도봉구와 함께 별도의 지역노동시장으로 분류되었으나 여전히 강남구로의 통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노원구가 서울권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은 강북 다른 지역의 강남구로의 집중에 따라 상대 순위에서 노원구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부산 사상구도 부산진구와 다른 지역노동시장으로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주 통근지는 부산진구이다. 이는 지역노동시장권 분류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통근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지역노동시장권 변화와 통근양상 간의 관계 분석에 있어 정주 여건 조성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 교통수단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지역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한 사업, 정책 등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보다 직접적인 자료가 실제 분석 과정에 녹아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려면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이나 도로 및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여성의 자녀 유무, 연령대에 따른 비교가 추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높은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하려면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분석 범위의 한계상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비록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반경이 상대적으로 좁은 점,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재편과 통근양상, 통근시간 변화가 수도권에서 더 크고, 지역별 여성의 통근시간 격차가 남성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출산과 육아가 여성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가 지역노동시장과 통근양상,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자료가 비교되지 못한 점 역시도 본 장의 한계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에서는 통근시간 정보가 범주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2010년 및 2020년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10년이라는 시점

의 차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재편 및 통근양상 변화가 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반대로, 2015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2010년과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어 분석되지 못한 사례 역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감안되어 차후의 지역노동시장 분류 및 통근양상 분석에 반영된다면 보다 풍부한 함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영우 외, 2023).

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식별하고 그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별 여성고용의 특성 및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순히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식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연령계층 및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을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여성고용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그 변화 및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자체 수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지역노동시장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정된 콤즈 방법론’(Coombes and Bond, 2008)을 활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164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138개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윤윤규 외(2012)에서 도출한 2010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75개)보다는 적게 도출된 것인 반면, 고영우 외(2020)에서 도출한 2015년 여성 지역노동시장권(152개)보다는 많게 설정된 결과이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12개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된 것에 비하면,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훨씬 좁게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강원제주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0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권역 내 20개 시군구 지역 모두 각각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음성권 및 괴산증평권 등 국지적으로 결합 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호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8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통근취업자 대상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호남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3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대구광역시와 인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5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후, 2020년에는 이것이 분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동남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7개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되었다. 동남권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에 변화가 상당히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였는데, 20~3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44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보다 적은 개수인바, 청년층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40~50대 연령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적으로 168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수이다. 다만, 초광역권역별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별로 구분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였다. 고졸이하 학력계층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총 191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통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64개 지역노동시장권보다 상당히 많은 개수인바, 고졸이하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좁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총 128개로 분석됨에 따라, 전문대졸이상 학력의 여성 취업자들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통근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과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근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근방향 변화, 그리고 통근방향의 영향을 받은 통근시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남성을 포함한 고영우 외(2023)의 분석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을 포함한 전체 지역노동시장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성 지역노동시장만의 특징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은 직주분리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가격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는 지역노동시장권과 통근방향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점, 통근 비율 감소로 산업 정체 내지 직주근접화가 관찰되는 점, 농업이 주 산업인 군 지역보다는 대도시 및 광역시, 도시 인접 지역의 통근시간 증가가 군 지역보다 뚜렷하게 크다는 점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와 유사한 점이다.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가 좁으며, 이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이 세분화되고 단일노동시장이 많은 점, 역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이 돌봄 내지 가사 분담을 위해 주거지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광역별 여성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강남 3구, 특히 강남구로의 일자리 집중이 남성보다 더 심화되었으며, 이는 주 통근방향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경기도권 여성 취업자의 통근시간은 서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김포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광주시, 용인시, 수원 영통구, 평택시 등 경기도권 시군구에서 나타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고영우 외(2023)에서 남성을 포함할 경우 원주혁신

도시의 영향, 평창과 정선의 통근시간 소폭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성으로 한정된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지역노동시장 재편 및 통근방향·시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세종과 청주,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통근시간 증가가 관찰된다. 특히 세종과 청주의 통근시간 증가 정도는 남성보다 크며, 다른 충청권 시군구의 통근시간 증가보다도 큰데, 이는 충청권에서 여성 일자리의 적지 않은 비중이 세종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호남권도 강원·제주권과 유사하게 수도권 및 충청권보다 지역노동시장과 통근방향 변화, 통근시간 증가가 크지 않다. 이는 호남권 일자리도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역외 이주, 고령화로 인한 기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권은 호남권, 강원·제주권보다는 변화가 있으나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서는 변화가 작다. 대구 및 인근 시군의 지역노동시장 재편과 통근시간 증가가 관찰되는 점은 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남권도 남성을 포함한 경우보다는 지역노동시장의 변화가 작다. 부산 구도심보다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의 통근시간 증가와 통근방향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강서진해자유구역 조성 및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에서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근이동에 근거한 지역노동시장권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숙련수준(학력)이 낮을수록 좁게 형성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영우 외(2023)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이 단일 행정구역에 국한하여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 내 시군 간, 또는 광역 외 시군 간 지역고용정책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며, 지역노동시장권을 고려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노동시장권이 집단별로 상이하게 형성됨을 확인한바, 다양한 지역고용정책을 지역 간 연계·협력함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여성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서비스 사업체에 몰려 있고, 여성 일자리의 순증가율에 대한 지역 간 차이는 대부분 신생 사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해 많이 설명되는바(고영우 외, 2018), 지역에서의 여성 청년층을 중심

으로 혁신적인 제조업 분야로의 취·창업 지원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고학력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형성된(상대적으로 넓은)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간 취·창업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 및 인구유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고영우 외(2018)에 따르면, 지역에서의 여성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 재배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및 단기 일자리,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저학력 및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지역노동시장권이 상대적으로 좁게 형성됨을 확인한바, 이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등은 기초지자체 단위로(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단위로) 지역의 여건을 충족하는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지에 거점 센터를 두고,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영우 외, 2023).

참고문헌

- 고영우 · 박상철 · 신영민 · 주수인(2023),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20 : 지역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 연구』, 연구보고서 2023-11, 한국노동연구원.
- 고영우 · 임슬기 · 한이철(2020),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5 :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연구』, 정책연구 2020-13, 한국노동연구원.
- 고영우 · 최효미 · 조장희(2018), 『지역노동시장과 여성 고용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2018-19, 한국노동연구원.
- 윤윤규 · 배기준 · 윤미례 · 이상호 · 최효미 · 김준영 · 신인철 · 정준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 방법론, 설정 및 평가』, 연구보고서 2012-06, 한국노동연구원.
- 황진영 · 이종하(2012),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 :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연구』 30(3), pp.19~43.
-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 _____ (202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프로젝트 고유번호 : RAS25080606).
- Coombes, M. G. and S. Bond(2008), *Travel-to-Work Areas : the 2007 Review*,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 Goldin, C.(2021), *Career and Family :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nson, S. and I. Johnston(1985), "Gender Differences in Work-Trip Length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Urban Geography* 6,

pp.193~219.

Hanson, S. and G. Pratt(1990), "Geographic Perspectives on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National Geographic Research* 6(4), pp.376~399.

Preston, V., S. McLafferty, and E. Hamilton(1993),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Black, White, and Hispanic Women's Commuting," *Urban Geography* 14, pp.228~250.

◆ 執筆陣

-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영민(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여성고용

- | | |
|------------|---|
| ▪ 발행연월일 | 2025년 12월 26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5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826-1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826-1